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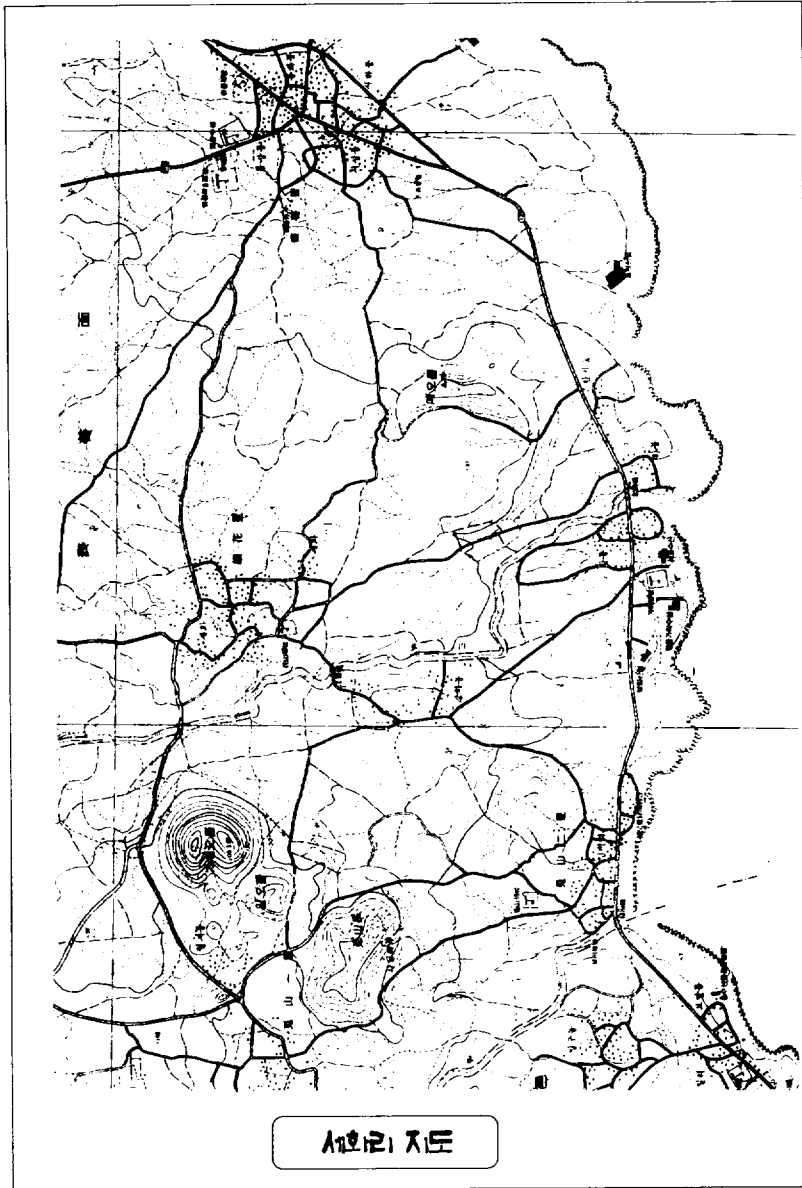
# 南濟州郡 表善面 細花里

## 現地學術調查報告

(2003. 8. 8. ~ 8. 11.)

1. 조사경위
2. 마을개황
3. 방 언
4. 민 요
5. 설 화
6. 신 앙

• 세화리 부근 지도



## 調查經緯



1976년부터 매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올해로 25번째가 되었다. 그 동안 현지 학술조사를 통해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익힌 이론을 실제로 적용시켜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마을개황, 방언, 민요, 설화, 신앙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 지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국문학의 시야를 넓히는 좋은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

이번 학술조사는 2003년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3박 4일 동안 南濟州郡 表善面 細花里에서 이루어졌다. 사전 답사 경위와 조사 경위는 다음과 같다.

5월 초에 表善面 細花里로 학술조사지가 선정되어, 본격적인 사전 답사에 들어갔다. 먼저 5월 3일에 세화 2리(가마리)에 가서 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였으나, 리장님과 노인회장님을 뵙지 못하고 마을 주변과 숙소 예정지인 가마초등학교를 둘러보았다. 5월 10일에는 세화 1리 노인회장님을 만나 사전 협조를 부탁드렸고, 노인 회관을 둘러보면서 마을의 설촌 유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5월 17일에는 마을개황반장과 함께 세화 2리를 방문하여 세화 2리 리장님과 노인회 총무님을 만나서 협조를 부탁드렸고, 이에 흔쾌히 허락하여 주셨다. 6월 6일에는 개황반원들과 함께 세화 2리를 방문하여 민요, 신앙, 설화 등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6월 7일에는 학과장님(현승환 교수님)과 함께 가마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을 만나 숙소 사용에 관하여 협조를 부탁드렸고, 확답을 얻은 후에 세화 2리 리장님을 만나 재차 협조를 부탁드렸다.

1차 사전 답사는 7월 12일에 각 조사반 반장들과 함께 세화 2리 노인회장님을 만나 조사에 대하여 협조를 부탁드렸고, 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 수 있었다.

2차 사전 답사는 7월 14일에 1차 사전 답사 인원들과 함께 세화 1리 노인회장님을 만나 뵈었다. 1차 사전답사와 마찬가지로 포제와 지명 유래,

설촌 유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 수 있었다.

3차 사전 답사는 7월 19일에 각 조사반 반장과 일부 반원들도 참여하여 세화 2리 노인들을 만나서 각 조사반 별로 제보자를 파악할 수 있었다.

4차 사전 답사는 7월 22일에 이루어졌다. 사전에 약속한 노인회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어렵게 강봉익 할아버지를 만나 제보자 파악을 할 수 있었다.

본 조사에는 재직교수, 재학생, 그리고 동문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 김태곤, 윤석산, 문성숙, 안성수 교수님과 국어교육과 총동문회(회장 김양택) 임원진과 송문석, 강영기, 김종철, 고상수, 강보경 동문과 2003년도 제주도 임용고시 합격자(총 11명) 일동이, 그리고 현대문학 연구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특히 학과장님(현승환 교수님)과 강정식 선생님은 사전 답사부터 많은 도움을 주셨고, 본 조사에서도 숙식을 같이 하며 3박 4일 동안 모든 반을 지도하여 주셨다.

그리고 참가 재학생은 아래와 같다. [( )안은 학년]

- **마을개황** : 양지선, 김양희, 김주연(3), 한혜경, 김순화, 양 원(2), 김보경, 김선영, 부석빈, 이민희(1)
- **방 언** : 고영란, 강성진(3), 오정은, 강소은, 강희경, 이승조, 강경탁(2), 김현지, 양보라, 양희욱, 현재상(1)
- **민 요** : 강현주, 박하연, 변영철(3), 김성희, 강미현, 강지연, 우기성, 현승엽, 현준영(2), 고경환, 우선혁, 구어진, 함지영(1)
- **신 양** : 박신춘, 서지은, 위햇님(3), 고안나, 고경림, 이은정, 김정옥(2), 강희진, 김지현, 문경미, 임하정(1)
- **설 화** : 문지환, 문석희, 박미진(3), 강민정, 홍원정(2), 김현준, 이예슬, 정해선(1)

조사 일정은 아래와 같다.

- 제1일(8월 8일) : 9시에 학교에 집결하여 인원과 물품을 정리하고, 10시 정각에 출발, 11시에 가마초등학교에 도착하였다. 11시 30분까지

숙소를 정리하고, 세화 2리 노인회장님과 마을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오리 엔테이션 자리를 마련하고, 식사 후 각 반별로 제1·2차 조사에 들어갔다.

• 제2일(8월 9일) : 8시 30분까지 식사를 마치고, 한 시간 동안 조사 발표 시간을 가진 후 제3·4·5차 조사에 들어갔다. 각 반별로 조를 나누어 세화 1리와 세화 2리를 조사하였다.

• 제3일(8월 10일) : 8시 30분까지 식사를 마치고, 한 시간 동안 조사 발표 시간을 가진 후 제6·7차 조사에 들어갔다. 저녁 8시 정각부터 〈국교인의 밤〉 행사를 통해 교수와 재학생, 동문이 어우러지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제4일(8월 11일) : 모든 반들이 자료를 정리하고, 마무리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학교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 일정을 앞당겨서 진행을 하였다. 10시 30분경에 숙소에서 출발하였다.

조사에 도움을 주신 세화리 주민들과 숙소를 마련해 주신 가마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바쁘신 중에도 조사에 함께 해 주신 학과 교수님과 여러 동문 선배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조사 범위가 넓은 지역이었기에 더 열심히 땀을 흘려 준 모든 조사원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 마을개황

## 〈 목 차 〉

- |           |         |
|-----------|---------|
| 1. 자연환경   | 4. 산업환경 |
| 2. 역사적 배경 | 5. 세시풍속 |
| 3. 인문환경   |         |

## 1. 자연환경

세화리는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동남부에 위치한 마을로 면적은 9,776.872m<sup>2</sup>(2,962.689평)이다. 행정구역상 세화 1리와 세화 2리, 세화 3리로 나누어져 있다. 처음에는 세화 1리를 중심으로 마을이 설촌되어 운영되다가 세화 2리와 세화 3리가 설촌되면서 나누어졌는데 현재 운영상에 있어서는 각각 독립적인 마을이다.

세화 1리는 표선면 동남부에 위치한 중산간 마을로 북쪽으로 가시리 남쪽으로 세화 2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면 소재지인 표선리와 4km 떨어져 있다. 서쪽에는 가시리와 세화 1리를 통과하는 하천인 가시천이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하류는 세화 2리의 바닷가로 이어지고 있다. 세화 1리를 중심으로 오름이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어지는데, 서쪽에는 가세오름, 알오름, 토산악 등이 있고 동남쪽에는 매오름이 있다. 마을 안으로 표선~가시리간의 군도가 통과하고 있으며 순환버스, 중산간버스, 동부산업도로 노선버스가 운행되어 중산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편리한 편이다.

세화 2리는 해안마을로 동쪽으로 표선리, 서쪽으로 토산 2리와 접하고

있으며 일주도로가 마을 중심으로 통과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한 편이다. 일주도로 이남 지역은 다소 경사가 급하여 동으로는 주로 가옥이 형성되었고 서쪽으로는 구룡사이에 군데군데 경작지가 형성되었다.

세화 3리는 표선면 서북부에 위치한 중산간 마을로 동쪽으로는 세화 1리와 가시천을 경계로 하고 남쪽으로 세화 2리, 토산 2리와 접하고 있으며 면소재지인 표선면에서 4.8km 떨어져 있다. 교통 수단은 표선관내 순환버스만이 1일 6회 운행되고 있어 세화 1리와는 달리 교통이 불편한 편이다.

세화리의 토지 형태는 준 평야이며 화산회토로 형성되어 토질이 척박하여 토지 생산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발농사 위주에서 감귤을 재배하면서 농업 소득 면에서 많이 나아지고 있으며 복지 농촌으로 발전하고 있다. 표선시내와 떨어져 있어 문화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관광자원이 부족한 지역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에 표선~세화 2리 해안을 따라 형성된 6.3km의 해안도로는 포장 상태가 양호하고 노선의 굴곡이 없어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하며 해안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어촌계 직영 음식점이 운영되어 관광지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세화리의 기후는 바다와 인접하고 있어 다변성 일기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기온은 연평균 15℃ 정도이고 평균 습도는 78% 정도이다. 기록상 최고 기온은 1983년 8월 4일 35.5℃, 최저기온은 1977년 2월 16일 영하 6.4℃를 기록하였다. 세화 1리의 경우는 해발 65~75m의 높은 지형으로 인하여 표선과의 기온 차는 연중 0.5~1℃의 차이는 보이고 있다. 강우량은 연평균 1,693mm로 10월부터 3월까지 건조기에 속하고 4월부터 9월까지는 우기에 속한다. 1년 강수량이 70% 이상이 우기에 내리며 장마철에는 집중 호우가 내려 재산피해를 주기도 한다. 연간 일조시간이 2,350 시간이라 쾌청한 날이 계속될 때가 많은 편이고 증발량도 780mm나 된다. 바람은 연평균 3.3m/s이며 한라산의 방풍 영향권 밖에 위치해 있어 겨울에 북서풍이 심하게 몰아친다.

세화 2리 매봉 주변의 암반 발달을 보면 해안가에 단애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거나 괴두둑, 머늘개, 오개미 동산 등의 해변가는 파식력 강화에 의한

파식대가 발달되었다.

마을의 용수상황은 설촌 당시부터 심각하여 과거 거주했던 고씨들이 절수문제로 고통을 받다가 다른 고장으로 이주해 버렸다고 한다. 또한 가마리는 생활용수 공급관계 때문에 가마천을 중심으로 설촌되었다. 수도시설 등 문화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가마천에서 멀리 떨어진 가마초등학교 주변에도 취락이 형성되었다. 샘이 나는 곳이 없어서 가마천 하류에 있는 행구수(내가 흐르면서 고인 물)를 생활용수로 이용하였다. 행구수의 동쪽물은 식수로 서쪽은 우마가 먹는 물로 하여 깨끗이 관리하였다. 가마천은 세화 1리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여 흐르는 건천으로 검순이, 병풍물, 행구수 등을 형성하여 설촌 이래 주민들의 생활용수로 공급되었다. 부락민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하여 우물을 파서 사용하였으나 염분이 많아 양질의 물은 아니었다. 지역 유일의 우물이었기 때문에 돈오름 주민들까지 허벅(물항아리)를 지고 물을 길러 날랐다. 그 후 각 동별로 우물을 더 파서 사용하고 세탁이나 목욕, 우마용은 가매물을 사용하였다. 1972년에 이르러 지하수 개발 사업에 착수하여 물 문제를 해결했다.

## 2. 역사적 배경

### 1) 설촌유래

#### (1) 세화 1리

세화 1리는 지금부터 약 500년 전(서기 1480년경) 당시 정의현감을 보좌하고 있던 허익이라는 별감이 정의현 지역을 순시하던 중 가스름(가시리)을 경유 가세봉을 돌아 속칭 "가매물"이라는 큰 냇가 좌편 지역에 이르니 갑자기 사슴 한 마리가 앞다리로 땅을 긁고 있어 이를 수상히 여긴 허별감은 지관에게 명하여 자세히 살펴보게 한즉 지관이 고하되 이곳은 마치



자라가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 자손이 번창하고 지맥이 흐르고 있어 좋은 택지가 된다고 하여 이 말을 들은 별감은 즉시 집으로 돌아와 전 가족을 이끌고 이곳으로 이주하여 최초의 허씨촌이 되었으며, 마을 이름을 설촌 당시에는 악향리로 부르다가 도내악으로 불렀다.

그 후 고씨, 강씨, 현씨, 김씨, 정씨가 입주하여 현재의 부락 규모로 확장되었다. 천연적으로 토양이 박하고 물이 귀하여 설촌 당시에는 생활에 불편이 많아 설촌주역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새로 입주한 제씨족들이 부락을 개척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 (2) 세화 2리

세화 2리는 약 160년 전 마을 포구에 어선들이 많이 드나들어 어선들의 출입에 편의를 주기 위하여 채만봉씨가 점포를 마련한 것이 설촌의 시초로 그 후 군위 오씨가 표선리에서 가시천 하류 서쪽에 이주해 정착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가마리라는 호칭은 포구의 머리에 자리잡은 마을이라 하여 갯머리였던 것이 변형된 이름으로, 행정구역 재편에 의해 세화 2리로 바뀌었으나 주민들은 지금도 가마리라고 부른다.

### (3) 세화 3리

세화 3리는 1896년경 군위 오씨가 성산읍 수산리에서 세화리 1590-1 번지에 이주해 왔고 같은 시기에 동해 정씨, 평안 강씨가 인근으로 이주해와 설촌이 되었고 그 후 오씨, 경주 김씨, 김해 김씨가 동강왓, 불미저에 촌락을 형성해 오다가 여러 성씨가 이주해 옴으로써 마을이 형성되었다. 마을 명칭을 강왓따로 불러오다가 1960년대에 강화동으로 개명되었다.

당시는 초목이 전무한 황무지였지만 점차 동리로 형성되었고, 이 동네를 흐르는 하천을 중심으로 활처럼 휘어져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동명을 강고라 칭하고 강왓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대여동으로 주민들 사이에 대여동으로 부르고 있으며 모두가 부를 이루어 잘 살아보자는 뜻이다.

## 2) 행정구역 변천

세화리는 약 500년전에 설촌되어서 18세기 경 도내악(돈오름), 가마리, 강화동으로 칭하였다. 1915년 도제 실시로 제주도 동중면 세화로 칭하였고, 1936년 행정구역 정비로 세화리로 개명하여 1943년 세화 1·2區 분리하였다. 그러다가 1948년 행정구역을 세화 1·2리로 분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세화 3리는 1988년 행정구역상 남제주군리장정원조례 998호에 의거 리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세화 1리에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른다.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마을 운영에 있어서 각기 독립적이나 서로 협조하며 발전하고 있다.

## 3) 문화 유적과 특이 지형

### (1) 솔대왓

· 위치 : 세화 1리 1854번지 화산초등학교 위쪽

30년전 세화리에는 지금의 리민회관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부자가 많이 살고 동쪽에는 관가에 일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쪽 사람들이 횡사하는 일이 생겨나서 지관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즉 서쪽은 앞이 虛(비어있다)하여 그런 횡사가 가끔 일어나고 있다 하니 그의 방지책으로 솔대를 세웠는데 그 장소는 지금의 지하수 개발지의 남쪽이며 그 후 솔대왓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주민들이 솔대를 세운 후부터는 불행한 일이 줄었다고 한다. 주민의 안녕과 복리, 재난예방을 위하여 원형석탑을 쌓은 위에 1.8m 정도 되는 소나무를 세웠는데 화산초등학교를 세운 후에 솔대는 없애버렸다고 한다.

### (2) 갈마수(渴馬水 가매물)

· 위치 : 세화 1리 2296번지 가시천 동쪽 하류

가시천 하류에 속하며 가세봉 목장에서 그 주위를 살펴보면 울창한

수목이 주변에 있으며 넓이 1000평에 수심은 5m로 물이 항상 가득 차 가물이 들어도 마르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가시천으로 인하여 갈마교와 강화교 두 개의 다리가 있는데 갈마교 부근을 가매물, 강화교 부근의 물이 깊은 곳을 덩빙수라고 부른다. 세화리에서 가세봉으로 가는 지점에 있는 큰물로 가세봉 주위에서 풀을 뜯던 우마들이 목이 마르거나 일을 해서 애쓴 우마들이 찾아와서 물을 먹는다고 해서 갈마소 또는 가매물이라고 한다.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농사일이나 고된 작업이 끝나면 이곳에 와서 목욕을 해서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고 한다.

우마수급용으로 쓰여 왔으나 갈마교가 생기고 장마대비 하천정비공사로 인해 물이 다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물이 다 마르고 갈마교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 (3) 가사봉(袞裳峯 가세오름)

· 위치 : 남제주군 표선면 세화리

가세오름은 세화 1리와 토산 1리 사이에 자리잡고 있어 행정구역상 세화리 쪽에서 보면 민뎃한 사다리꼴 모양이고 토산리에서 보면 숲이 우거진 가운데 젓무덤같은 봉우리가 굽부리를 이루어 판이한 양상을 보여준다. 북봉과 남봉 사이는 야트막한 안부를 두고 휘어져 그 거리에 약 350m의 등선 마루가 형성되어 있으며 정상인 남봉이 표고 200.5m로 삼각점이 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우마들이 풀을 뜯는 방목지가 되었으며 봉우리 모양이 중이 장삼 위에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걸쳐서 입은 범복 모양 같다고 해서 가사봉(가세봉)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산봉우리가 두 갈래로 갈라진 것이 마치 가세(가위)처럼 생겼다는 데서 가세오름이라 한다고도 한다.

### (4) 매봉

· 위치 : 남제주군 표선면 세화리

세화리를 중심으로 동남쪽에 위치하여 세화리 소유로 되어 있으며 지금

은 산림지역이다. 봉우리 모양이 매형이어서 매봉이라 하였고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선조의 묘를 만들거나 집을 지을 때는 매봉의 꼭대기가 비치지 않도록 썼다고 한다. 매봉의 꼭대기가 보이면 매가 병아리를 낚아채듯이 집에 손해를 분다는 설이 있기 때문이다.

#### (5) 생걸이

· 위치 : 남제주군 표선면 세화리 마을 동쪽

포구 동쪽 머릿동산으로부터 서쪽으로 이어지는 코지를 의지하여 생긴 냇가 동쪽에 위치하는 포구이다. 현재 코지를 의지하여 만든 바깥 방파제 있는 자리라 평상시 간조 때에도 배를 매어주는 틈석자리였고 안쪽에 방파제를 축조하여 포구를 만들어 안쪽 포구만을 생걸이라 했다.

생걸이 포구 방파제는 해방 바로 직후 마을 사람들의 자력으로 축조했다. 내가 범람하면 위험할 듯 하나 오히려 태풍으로 밀려드는 파도와 범람하는 냇물이 충돌을 일으켜 파도의 힘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점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생걸이 안에는 담수가 솟지 않아 선식층인 소로부터의 피해는 있었다. 평상시에는 틈석자리에 배를 매어두나 태풍 등의 비상시에는 안쪽 생걸이 포구로 배를 옮겨 맨다.

#### (6) 생걸포구남당

· 위치 : 남제주군 표선면 세화 2리 생걸포구 가기 바로 전

세화 2리 생걸포구 남당은 남당하르방·할망을 모시고 있는 해신당이다. 생걸포구 입구 왼쪽에 새로 지은 당집이 있고 당집 안에는 돌로 만든 신케가 있어 촛불에 그을려 있고 그 안에 지전물색을 담아 두고 있다. 이당은 당우형·신케형·지전물색형·해변형의 해신당으로 세화 2리 어부해녀를 수호해 주는 당이다.

#### (7) 고는갯골 요드렛당

· 위치: 남제주군 표선면 세화 2리 포구 해변도로

세화 2리 고는갯골 요드렛당은 토산에서 갈라다 모신 알토산 요드레한 집을 모신 당이다. 세화 2리 포구 동쪽으로 끝나는 지점 바닷가 수림 속에 있는 이 당은 해변형·지전물색형의 당으로 당신은 시집 갈 처녀를 수호해주는 치병신으로 어머니에게서 딸로 신앙을 유전하는 신이다. 세화 2리 주민 일부가 다니는 이 당의 제일은 6월과 1월의 8, 18, 28일이다.

#### (8) 황근 자생지(黃槿自生地)

· 위치: 남제주군 표선면 세화 2리 190-3번지 공유수면

황근은 현재 남제주군에서는 성산읍 오조리 식산봉과 표선면 세화 2리의 바닷가에서 드물게 자라고 있다. 세화 2리의 황근 자생지는 가시천 하류와 포구가 인접해 있는 해안도로변에 자생하고 있다.

성산읍 오조리 식산봉의 황근 자생지는 해안가에 접하였으나 다른 수목들 사이에 있어 해풍의 피해를 덜 받는 것과는 달리 세화 2리의 황근 자생지는 해안가의 탁 트인 곳에서 위치하여 해풍의 영향을 바로 받으면서 양지에서 자라고 있다. 원래 드물게 자라는 수종이어서 이 곳에서도 해안도로변에 해안가를 따라 분포하고 있으며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 3. 인문환경

#### 1) 인구현황

세화리는 세화 1리와 세화 2리, 세화 3리로 나뉜다. 이 마을의 2003년 8월 현재 인구를 살펴보면 총 543세대, 1641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이 중 남자 인구는 839명이고, 여자 인구는 802명으로 성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구조에 의한 육지나 제주시로의 인구 유출이 커지면서 세화리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지 않은 편으로 연령층을 보면 약 15% 정도가 노인인구로 노인층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세화 1리는 세화 3리와 분리

되고 제주시, 서귀포 등으로 인구 유출이 커지면서 마을의 세대수가 줄었다. 이에 비해 세화 2리는 양식장이 생기는 등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던 시기에 유입인구가 증가하였고 그 후에도 레미콘 생산업체가 들어서 젊은 층들의 인구 유출이나 이동이 다른 마을에 비해 적다. 다만 젊은층의 80% 정도가 이주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 세대수는 많아졌지만 출산기피현상으로 인해 아동수가 적어져 인구수가 많지 않다.

● 세화리 인구현황

구 분	인구수 (명)			가구수
	남	여	계	
세화 1리	343	349	692	203
세화 2리	392	360	752	251
세화 3리	103	93	196	62

<2003. 1 세화면사무소 제공>

## 2) 마을단체

마을단체는 자생단체로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가 있고 이외의 단체로 마을문고회와 세화 1리에 세화 공동목장조합, 세화 2리에 어촌계가 있다. 이들 단체들은 각기 분야와 연령층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활동경비는 각 단체별 활동 수익금이나 국가 보조금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세화 1리와 세화 2리, 세화 3리는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마을단체 활동에서도 나뉘어서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단체의 활동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부녀회

세화리 부녀회는 세화 1리와 세화 2리, 세화 3리로 나뉘어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은 많지 않으나 청년회와 함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자격은 세화리에 거주하는 60세 이하의 부녀자들로 자율적으로 회원이 될 수 있다.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1명), 연락반장 등과 일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재임이 가능하며 회원들의 추천에 의해 선출된다. 부녀회의 회원수는 현재 약 32명 정도로 주 활동층은 35~55세로서 40대가 대부분이다. 세화 3리의 경우는 마을 자체가 작기 때문에 회원수가 19명 정도이다. 부녀회는 군 보조금과 수익금으로 운영되는데 활동을 보면 마을 안 길 환경을 정비하고 비닐하우스의 비닐이나 농약병, 재활용품을 수거한다. 연중행사로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고추장이나 장아찌 등을 회원들 전체가 담궈서 혼자 사는 노인들께 밑반찬을 제공한다. 재생 비누를 만들어 노인회나 노인단체에 봉사하는분께 드리며 여름 복날에 노인들께 닭죽을 대접하고 겨울에는 김치를 담궈드린다. 먼 단위로 하는 표선면 어버이날 행사에서 음식을 대접하거나 선물을 드린다.

## (2) 노인회

노인회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만 가입할 수 있으며 의무적이 아니라 자유가입이다.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임원선출은 회원들의 추천을 통해 선출된다. 전직회장은 고문으로 위촉된다. 노인회 회원수는 세화 1리는 116명이 세화 2리는 72명, 세화 3리는 30명으로 여자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활동하는 인원은 20~30명 정도이다. 노인회 활동을 살펴보면 봉사활동으로 환경정리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며 부녀회와 합동으로 마을 청소를 하기도 한다. 농한기에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게이트볼장에서 운동을 즐기기도 하며 표선면에서 열리는 게이트볼 경기대회에 참여하기도 한다. 매 달 두 차례의 건강보건일을 정해서 경로당에서 무료로 물리치료와 건강검진을 받고 1년에 한 번 정도 도일주 등의 관광을 한다. 표선리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에 참가하나 5~10명 정도로 수가 매우 적다. 이 외의 대부분의 행사는 자생단체들이 주체가 되어 노인회에서는 참여 위주로 활동한다.

노인회는 군 보조금에서 지원을 받는데 매달 10만원으로 나머지는 자생단체나 복지가들에게 찬조금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한다.

### (3) 청년회

청년회는 다른 자생단체들에 비해 회원수가 많은 편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청년회 임원은 세화 1리는 회장, 부회장, 기획부장(1), 감사(2), 재정부장(1), 체육부장·부차장, 홍보부 차장, 사업부 차장으로 구성되며 세화 2리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재무부장, 사업부장, 선도부장, 조직부장, 체육부장, 홍보부장, 대의원(5)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원 임기는 2년으로 재임이 가능하며 총회를 거쳐서 선출한다. 임원회의는 한 달에 한 번이며 정기총회는 1년에 두 번으로 연초와 연말에 한다. 청년회 회원 조건은 만 20세 이상 45세 미만의 남성들로 세화리에 거주하거나 본적이 세화리인 경우 자동가입으로 전원 의무적으로 청년회원이 되며 각 리마다 40~50명이 활동하고 있다. 청년회의 대부분의 활동은 임원을 포함한 15~20명의 회원들에 의해 사업이 이루어진다. 청년회에서 하는 활동을 보면 먼저 한 가정마다 국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여 1년에 2~3번 정도 헌 태극기를 새 태극기로 갈아주며 영산홍 식재 구간을 관리하는데 토산~가시리에 해당하는 세화 1리 진입로에 있는 영산홍, 철쭉 등을 관리하고 고사목 및 잡풀을 제거한다. 또한 농노길에 나뭇가지가 많아 매년 가지치기를 한다. 1년에 한 번 남조로 검은오름 일대에서 노루 먹이 주기 운동을 하고 있다. 남제주군의 지원으로 체육공원,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데 청년회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수익금을 조성하게 되고 이를 청년회 활동비로 쓰게 된다. 청년회 자체기금으로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청년회원 22명을 중심을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자율 방범대를 결성하여 마을을 순찰한다. 하계 방법은 방학기간 청소년 선도를 목적으로 사고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표선연합청년회를 주체로 하는 효도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 청년회가 중심이 되고 부녀회에서는 음식을 준비한다. 각 리마다 이루어지던 것이 연합으로 확대되어 표선면 전



체 체육대회를 열게 되었다. 세화 1리의 경우 서울의 병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매년은 아니지만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청년회에서는 일체 회비를 받지 않고 봉사 수입금으로 활동하며 체육대회를 통한 찬조금으로 많은 지원을 받으며 축구회나 한마음초등학교에서도 지원해 준다.

#### (4) 새마을문고회

새마을문고회는 4년 전에 결성되었으며 세화 1리와 세화 2리가 나뉘어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화 3리에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1년에 회비는 세화 1리의 경우 12만원이고 세화 2리는 5만원이다. 자발적으로 참여 가능하며 세화 1리의 회원 수는 14명이고 세화 2리는 38명이다. 정기적인 모임은 없으나 필요시 마을 회원들이 모여서 공부방, 문고 관련에 대해 회의를 하며 회장 선출은 문고총회에서 한다. 마을문고는 리사무소 2층에 위치하여 독서실, 컴퓨터실, 도서실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총 3,000~4,000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다. 이용대상은 초·중·고등학생에서 일반인들까지 제한이 없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율적인 운영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편의상 24시간 개방하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300만원 상당의 책을 구입하며 그 외에 퍼서지문고 활용 후 책을 얻거나 중앙문고에서 책을 보내온다. 부녀회의 요청에 따라 부녀회 취미교실을 마련하고 방학기간을 이용해 청소년 공부방을 연다. 세화 1리의 경우 미술교실을 마련하여 약 30명의 학생들이 취당 김창웅 화백의 지도 아래 미술을 배우게 하였고, 세화 2리는 121전경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중학생들을 일주일에 세 번씩 공부를 도와주기도 했다.

#### (5) 목장조합과 어촌계

자생단체 이외의 단체로는 세화공동목장조합과 어촌계가 있다. 이들 단체들은 반농반어의 세화리 산업구조 특성상 존재하는 단체들이나 목축업이나 어업이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어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다.

세화 1리의 세화공동목장조합은 회원 수가 270명으로 초지를 조성하고 가축 방목과 목장을 관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외국산 수입 등으로 축산업이 어려워지고 위축되면서 목장조합의 활동도 활발하지 못한 상태이다.

세화 2리의 어촌계는 세화 1·2·3리를 합친 것이나 대부분 바다를 접하고 있는 세화 2리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조합원수는 116명이나 세화 1리의 경우 30명, 세화 3리는 10명 정도이다. 해녀는 66명으로 17명은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한다. 8년 전에 법인 어촌계가 만들어졌으나 적자가 나면서 1987년에 각 리마다 어촌계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지금의 어촌계가 있다. 어촌계에서 현재 활동하는 회원은 주로 해녀들로 한 달에 한 번 해안가를 청소한다. 또한 정부에서 해녀들을 위한 병원비를 지원 받아 무료로 치료를 해준다. 어업현황을 보면 해녀사업과 양식사업이 주를 이루어 옥돔이 주로 잡히며 해녀들은 보통 소라나 전복을 잡는다. 그러나 바다의 오염과 백화현상으로 인해 그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상태이며 소득 역시 적은 형편이다. 1995년 3월에 해녀가 주축이 되어 양식장에서 공동작업을 하며 1년 정도 운영되다가 1996년에 판 상태이다. 어촌계에서는 정부에서 보조받은 돈 2억 5천만원으로 어촌계를 지을 계획 중이다.

### 3) 향약

세화 1리와 세화 2리, 세화 3리는 향약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들 중 대표로 세화 1리의 향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세화 1리 향약】

##### • 전문

우리 마을은 설촌 이래 500여년 동안 천연적으로 토양이 척박하고 물이 귀하여 설촌 당시에는 생활에 불편이 많았으나 선조들의 일을 극복하는 의지로 성

실하고 근면을 바탕으로 협동하며 삶의 터전을 이루어 왔으며 운영기록이 전해 오지는 못하였지만, 구전에 의하면 본리정 책임자는 경민장을 시발로 구장에서 리장으로 리정 책임자가 되어 리정이 운영되어 오던 중 늦게나마 본리 발전을 위하여 향민의 총의로 본 향약을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향약은 세화 1리 마을회(향약)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 사무소는 세화 1리 1161-2번지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향약은 리민 상호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상부상조하며 리 발전을 위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며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다.

제 2장 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 (구성)

1. 세화 1리 리민이 되려면 본리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이 명예 리민을 둘 수 있다.

① 본적이 세화 1리인 자

② 세화 1리에 공헌이 있는 자 중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제5조 (권리) 모든 리민은 본 향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미성년자는 제외)

제6조 (의무) 모든 리민은 마을 운영에 대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

제 3장 임원구성 및 임기

제7조(임원구성)

1. 리장 1인

2. 감사 2인

3. 동장 3인

4. 개발위원 10인

5. 반장 6인

제8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 중 리장이 유고시 간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기간)

제9조 (기관) 본리에는 3개동을 둔다. (단, 동장은 동에서 선출하며 리장이 위촉한다.)

개발위원 : 개발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반장은 동회에서 선출하여

리장이 위촉한다. (단, 청년회장, 3개 동장은 당연히 개발위원이 된다.)

제10조 (의무) 리장은 마을을 대표하여 마을을 총괄 집행하고 리정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개발위원 의무) 개발위원은 리의 발전을 위하여 리정에 적극 참여하며, 리장을 보좌한다.

제12조 (감사) 감사는 년 1회 이상 리정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관한다.

제13조 (내부) 리장은 리정에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명의 리사무소장을 둘 수 있다.

#### 제4장 회의

##### 제14조

1. (총회) 총회는 리민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2. (정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월 중에 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한다.
3.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리장 또는 개발위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 (성원) 총회의 성원은 30인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16조 (총회의 개최통지) 총회는 7일 이전에 방송과 공고를 통하여 알리고, 기타 회의는 3일전에 통보해야 한다.

##### 제17조 (의결)

1.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한다.
2. 리장과 감사는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18조 (의결사항)

1. 리장, 개발위원 선출
2. 향약 개정
3. 재산처분관계
4. 예산결정 승인
5. 사업계획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 제5장 개발위원회

##### 제19조 (개발위원)

1. 개발위원은 리장과 개발위원으로 구성하되 리장은 개발위원장을 겸한다.
2. 개발위원은 재반업무에 대하여 리장을 보좌한다.

##### 제20조 (소집)

1. 개발위원회는 리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2. 성원과 의결에 있어서는 제 15조, 17조에 준한다.

제21조 (기능)

1. 업무집행
2. 예산결산서 작성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처리
4. 향약 개정안 작성
5. 재산관리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6장 재정

제22조 (운영비)

1. 리민총회 의결에 의하여 리운영비를 부과한다.
2. 리장과 개발위원회, 동·반장 결의에 따라 리운영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23조 (세입)

1. 리운영비는 다음의 세입으로 충당한다.  
① 리운영비 ② 보조금 ③ 찬조금 ④ 기타 수입
2. 특별회계로 두되 세출보조금과 찬조금은 임원회에서 결의 집행한다.

제24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 (보수)

1. 임원과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리장은 총회에 의거 다소의 관공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사무장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일정의 보수를 지급한다.

제7장 가정의례

제26조 (관혼상제) 건전한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관혼상제를 간소화한다.

제27조 (포제)

1. 포제는 본리의 전통문화로서 이를 발전, 계승시킨다.
2. 포제는 전리민의 정성으로 거행하되 필요한 경비는 매년 개발위원, 동·반장 회의에서 결정한다.
3. 포제 제관은 임시총회에서 지명한다.

부칙

제28조 본 향약에 미비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29조 본 향약은 1988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30조 본 항약은 1997년 1월 21일 개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 4) 교육기관

세화리의 교육기관은 세화 2리에 위치한 가마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있다. 가마초등학교는 1968년 3월에 분교로 설립하여 1973년 본교가 되었다. 가마초등학교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세화 1리에 화산초등학교, 표선리에 표선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분교가 생겨나면서 현재 다른 학교들은 폐교되고 가마초등학교만이 남아 있다. 가마초등학교는 2003년 현재 6학급에 82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올 해 졸업생은 20명이며 입학생은 6명으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실정이다. 이농현상과 지역 경제가 어려워졌고 전학생도 생기면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나 학부모들의 학구열은 매우 높은 편이다.

세화 1리에는 화산초등학교가 있었으나 폐교되면서 하천리에 세 학교가 통합되어 2000년에 한마음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 가시리, 하천리, 세화 1리 학생들은 한마음초등학교에 대부분 통학하고 있고 학교와 먼 곳은 통학버스가 다녀 통학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상급 학교 진학은 중학교인 경우 거의 표선중학교로 진학하고 그 외 시내에 위치한 학교를 다니기도 한다.

##### • 교직원 현황

구분	교장	교감	교사	유치원	서무	영양사	조리 보조	계
남	1	1	2		1			5
여			3	1		1	1	6
계	1	1	5	1	1	1	1	11

<2003년 8월 현재, 가마초등학교 제공>

• 학급편성

학년	1	2	3	4	5	6	계
남	5	8	6	11	6	9	45
여	2	5	8	3	7	12	37
계	7	13	14	14	13	21	82
학급수	1	1	1	1	1	1	6

<2003년 8월 현재, 가마초등학교 제공>

### 5) 종교현황

종교현황은 세화 1리와 세화 2리에는 공인 종교로 기독교 교회가 있고 절은 없다. 세화 3리에는 공인종교와 절이 없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절에 다니는 신자들이 많다. 세화 1리에는 제주 형제 사랑 교회가 있고 세화 2리에는 가마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다. 그 밖에 다른 지역에 있는 신흥종교인 천지대안교과 삼천교를 다니는 신자들도 있다.

### 6) 기타

세화리에는 교육이나 문화, 의료시설 등이 없는 실정으로 이들 대부분이 면 소재지인 표선리를 중심으로 형성하고 있다. 주요 관청이 모두 표선리에 밀집되어 있고 상권도 표선리에 집중되어 있다. 세화리 주민들은 이전부터 현재까지도 생활필수품 구입에서부터 모든 면에서 표선리로 가야 하지만 그다지 거리가 멀지 않으며, 세대당 자동차 보유율도 높아져서 불편하지는 않다. 부분적으로 표선리 외에 제주시나 서귀포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세화 1리의 경우에는 마을 내에 보건진료소가 있다. 세화 2리에 비해 표선리와의 거리가 먼 편으로 보건진료소는 마을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보건진료소를 담당하는 사람은 상주하므로 24시간 진료가 가능하고 1차적인 상담, 고혈압, 당뇨 등을 진료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가정진료를 하고 있다. 세화 1리가 도시지역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을 병원으로 모셔가며 그 밖에 건강검진 희망자는 병원과 연계하여 수시로 병원에 모시고 간다. 또한 부녀회, 청년회 등의 자생단체들과 협조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한 달에 2번 정도 경로당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물리치료와 질병상담을 한다. 예방접종도 실시하고 있다. 65세 이상은 무료로 65세 이하는 진료비가 900원 정도가 든다. 1차 보건 의료기관으로 진료보다는 예방적 업무에 치중하며 보건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마을 내에 위치하여 편리하면서도 적은 부담의 진료비로 많은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세화 3리는 세화 1리에서 분리되기 이전부터 많은 주민들이 이용했으며 지금도 세화 3리에는 진료소가 없고 표선리까지는 거리가 멀어 세화 1리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고 있다.

#### 4. 산업환경

세화리는 반농반어업에 종사하는 촌락이긴 하나 농업 종사 인구의 비중이 큰 지역으로 해안가 인접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세화 2리에는 어업인구가 좀 많은 편이다. 과거에는 보리, 조, 유채, 산뽕 등의 밭작물을 재배하였고 현재에도 일부 농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밭을 갈기 위해서 옛날에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소·말 등을 키웠고 마을 공동목장을 기반으로 축산업을 하였다. 물영아리는 세화리의 공동목장으로 74만평이나 되어 1980년대초까지 축산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외국산 수입이 이루어지면서 대부분 축산업을 포기하면서 지금은 골프장 등의 이용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세화리는 농업분야에 있어서 감귤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감귤 소득이 대부분으로 노지와 시설감귤 재배를 병행하는 농가가 많다. 그러나 시설감귤 재배 면적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득 면에서 시설재배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라봉이나 네블오렌지 등을 재배하는 농가는 약 20~30호 정도로 고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일반작물을 감자, 콩, 유채, 참깨 등의 밭작물을 경작하나 많은 편이 아니라 소득은 크지 않은 편이다. 대부분 감귤소득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감귤이 가격 하락 속에서 재배면적의 적정화나 고품질 감귤생산 등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 산업일반현황

세 화 리	토지이용현황(ha)					가구수(호)						총인구수			농가 인구
	계	농경지			기 타	계	농가호수				비 농 어 가	계	남	여	
		소 계	밭	과 수 원			소 계	전 업 농	수 산 겸 업	기 타 겸 업					
1리	583	278	35	243	305	203	170	165	-	33	66	692	343	349	622
2리	261	169	48	121	92	251	251	99	118	34	-	752	392	360	515
3리	139	83	33	50	56	62	48	48	-	-	14	196	103	93	167

<2003. 1. 세화면사무소 제공>

● 시설감귤재배 현황

	재배면적(ha)	생산량(t)	농가수(호)
세화 1리	25	576	
세화 2리	35		18
세화 3리	12	288	

<2003. 1. 표선면사무소 제공>

해안변에 위치한 세화 2리도 감귤 재배가 주 소득층이나 수산업도 일정 부분을 차지한다. 소규모 어항이지만 20여척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녀를 중심으로 한 어업 소득도 적지 않은 편이다. 지리적인 여건상 마을 주변에 11개의 육상 양식장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백화현상과 바다의 오염으로 점차적으로 어선업과 해녀사업의 소득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해녀의 연령층이 고령화로 수명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화리에서 주로 포획되는 어종은 옥돔, 소라 등이며 전복양식장에서 전복이 대량으로 생산된다.

• 해양수산현황

어업인구				어선보유현황			마을 어장	해안선 길이	육상양식장 현황				잠수탈의 장	항포구 현황(m)			
세화리	계	남	여	계	15t 이상	15t 미만	91.2 (ha)	800 (m)	계	양성	종묘	담수	3	방파제	호안	물양장	선착장
	152	51	101	17	3	14			11	10	1	-		218	-	92	58

<2003. 1. 세화면사무소 제공>

세화 2리의 매봉은 기생화산으로 옛날의 화산 활동시 해안 가까이에서 분출된 관계로 매봉 주변에는 암반지대가 형성되어 현재 화성기업사, 한라레미콘, 낙원산업, 미륵건설 등이 진출해 있어 석재생산이 활발하다. 이로 인해 젊은층이 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적었다.

## 5. 세시풍속

### 1) 1월

① 정월명절 : 음력 정월 초하루 아침에 세화리 사람들은 차례를 지내

고 마을에 높은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새해 인사와 세배를 드린다. 친족끼리 모여서 윷놀이 등을 즐기거나 처가댁을 찾아가간다.

멥질음식으로 메밀겉질을 벗겨 직접 멧돌에 갈아 채에 쳐서 반죽을 하여 칼국수면을 만든다. 떡국 대신 메밀칼국수를 해서 정월멥질 아침에 세배 후에 친척들과 함께 먹는다.

멥질떡으로 시리떡(호린조가루, 산디가루 등으로 만들), 침떡, 제편, 인절미, 새미떡, 절편, 솔변, 우찌시 등의 떡을 만들어 먹는다. 침떡, 제편, 인절미, 절편, 솔변, 우찌시 순으로 떡을 제사상에 올리는데 우찌시는 북두칠성의 모양으로 솔변 위에 놓는다. "열끗떡에 우찌시 모양..."이라고 하였는데 떡 중 맨 위에 올리는 우찌시 떡이 제일 낫다는 뜻이다. 침떡과 제편은 땅을, 인절미는 밭을, 절편은 해를, 솔변은 반달을, 우찌시는 북두칠성인 별을 의미한다. 친척들이 모여서 떡을 만드는데 떡 모양으로 사람 마음을 판별하였다. 떡이 이상하게 되면 마음이 바르지 않으며 떡이 바르면 마음이 바른 사람이라고 하였다. 먹을 것이 없던 시기에는 퉁뿌리로 떡을 해 먹었던 적도 있다고 한다.

정월멥질에 먹을 술도 가정에 직접 빚기도 했으나 형편이 좀 나은 집에서나 할 수 있었다. 정미소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조와는 다른 호린 조를 직접 갈아서 반죽을 하여 오메기떡을 만들어 삶았다. 오메기떡과 누룩을 같이 끓이는데 밥자로 저어주면서 죽같이 만들어 술항이라고 하는 큰 항아리에 담아 두고 25일 정도 지나면 윗물은 청주가 되고 아랫부분은 막걸리가 된다. 청주는 병에 담아 제사 때 쓰고 특별한 분에게 대접하며 막걸리는 동네 분들에게 사발로 대접하는데 이를 세배술이라고 한다. 감주도 정월멥질에 손님들에게 대접하는데 산디쌀을 담가서 만들며 매우 달아서 맛있다고 한다.

멥질옷으로 광목을 갖고 직접 옷을 지어 입었는데 아이들 옷은 색갈별로 물을 들이기도 하였다.

② **대보름** : 대보름에는 분향에 부녀자들이 제물로 쌀밥, 삶은 계란, 동그란 모양의 떡, 생닭을 가지고 가서 바치고 굿을 통해서 가족의 안녕을

기원한다. 대보름 일주일 전부터는 돼지를 잡아서는 안 되며 대보름이 지난 후에야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다. 특별한 놀이는 하지 않았다.

③ **신구간** : 귀신이 하늘에 올라가는 신구간은 대한 후와 입춘 전 1주일동안으로 이 기간에는 화장실이나 집을 수리하고 이사를 해도 동티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새집을 짓고 이사를 하게 되면 신구간이라도 방위를 보고 이사를 가야한다. 해마다 막은 방이 달라지는데 대장군방으로 이사를 가면 집주인인 대주가 죽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이사할 때에는 요강에 쌀, 초, 성냥을 넣고 제일 먼저 가지고 간 다음에 가져간 초로 방마다 한번씩 비추고 청소하기 전에 소금을 뿌린다. 그리고 재산을 이루라는 뜻으로 숯을 가지고 가며 성냥에 불을 붙여 아궁이에 담는 것은 부를 이루고 집안이 잘 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행하는 이사나 공사 등에는 동티가 나지 않는 것으로 믿어서 신구간이 아니어도 종이에 법령(法令)이라고 적어 붙여두어 정부에서 행하는 일처럼 하여 동티를 예방했다고 한다.

## 2) 2월

① **영등제** : 가시리에서만 행해졌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영등 하르방이 정월 보름날에 들어와서 2월 14일에 소섬에 가서 계, 보말 잡아먹고 보름날에는 제주를 떠나서 육지로 간다고 한다. 16일에 영등 하르방이 나가면 큰 비가 오는데 바람만 불면 “명주치마 입은 딸들을 데려와서 바람만 쐬다”라고 한다. 3~4명의 무당들은 갯마을에서 3~4일 동안 지내면서 용굿을 한다. 무당들이 임룡이나 수룡과 같은 모습으로 차려서 배마다 돌아다니며 땡굴기도 하는 용놀이를 통해 고기를 잘 잡게 해달라고 빌면 선주는 용머리에 돈을 넣어준다고 한다. 바다 일만 잘 되라고 비는 것만이 아니라 동네 일 모두 잘 되게 해달라고 빈다.

② **입춘** : 새철 드는 날이라 하여 여자는 집밖의 출입을 금했다. 여자가 오게 되면 그 해 밭에 검질이 많이 나서 농사를 망친다고 하여 물을 끼

없으며 쫓아냈으나 남자가 들어오면 곤밥 등의 음식을 대접했다. '입춘대길', '횡통' 등의 글자를 써서 대문에 붙여 복을 빌었다.

③ **포제** : 입춘이 지나면 포제를 지낸다. 행정구역이 나뉘기 전부터 세화 1리와 세화 2리는 따로 제를 지냈기 때문에 현재에도 따로 지낸다. 부락에 장사가 나가거나 하여 정일에 지내지 못하면 해일에 제를 지낸다. 리장이 주관하여 포제상회에서 17명의 제관을 뽑는데 연령이 어느 정도 높아야 하고 상주나 불구자는 될 수 없다. 특히 초헌관은 머리 좋고 지식 많이 낡고 잘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리장이 예산을 세우고 나면 집집마다 돈을 수금하고 이를 다시 제관이 받아 포제를 지내게 된다. 초헌집에서 3일 정성을 드리는데 금줄을 쳐서 부정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제 지내는 날 11시에 새옷으로 갈아입는데 그 전에 향을 깨서 물에 삶은 후 그 물로 목욕을 한다. 반드시 제관들만 참석하며 특히 여자들의 출입을 금한다. 포제시 제물은 제관들이 준비하며 돼지고기, 떡, 과일 등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돼지머리는 동쪽으로 하고 제가 끝나면 제사음식을 나눠 먹는다. 고기 중 제일 맛있는 부분은 삶아서 제관과 유지들에게 먹게 하고 나머지는 제관들에게 나눠준다.

### 3) 3월

① **묘제** : 삼월 삼짇날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5대 이상의 조상의 묘에 벌초를 하고 제를 지낸다. 대부분은 3월에 묘제를 지내나 가정에 따라 10월에 지내기도 한다.

② **고사리 꺾기** : 가세봉, 물영아리 등의 근처 산으로 마을 사람들이 함께 고사리를 꺾으러 다녔다.

### 4) 5월

① **단오** : 아침에 간단한 제를 지내고 친척끼리 모여 명절을 즐겼다고

한다. 설은 아침, 단오는 점심, 추석은 저녁이라고 하여 이제는 점심을 안 먹어도 산다고 해서 단오는 지내지 않게 되었다. 특별한 놀이는 전해지지 않는다.

## 5) 6월

① **갈중이 만들기** : 6~7월 사이에 무명에 감물을 들여 갈중이를 만들어 입었다. 시원하고 땀을 잘 흡수하여 편하다는 이점이 있어 여름철 농민들이 많이 입었다.

② **닭 잡아먹기** : 음력 스무날 보신용으로 닭을 잡아먹었다. 고단한 농사로 지친 몸을 회복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였는데 가정형편에 따라서 인삼, 대추를 곁들여 먹기도 하였다. 또한 몸이 붓거나 몸살나는 사람(다리나 팔이 빨갱게 부어올라 열이 나는 사람)은 이 날에 붉은 장닭을 잡아 붉은 팔을 넣어서 아침에 해 뜨는 쪽으로 돌아앉아서 먹으면 좋고, 남은 뼈 등을 터진 방에다 묻어주면 몸이 낮게 된다고 한다.

③ **개역(미숫가루)** : 보리를 볶고 간 다음에 채로 쳐서 물에 타 먹었다. 콩을 함께 넣기도 하는데 가정 형편에 따라 달랐다. 7월에만 먹는 것은 아니지만 더운 7월에 시원한 물에 말아서 많이 먹었다고 한다.

## 6) 7월

① **칠월 칠석** : 불교신자들은 절에 가서 가족들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였다.

② **백중제** : 백중을 백중이라고도 하는데 목동 백중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제를 지내는 것으로 마을 사람들 중에 가축주들이 마소를 관리하는 목동에게 음식을 마련해서 주었다. 원래는 보름에 해야 하나 세화 1리에서는 전날인 14일에 행하고 가시리는 보름에 하거나 뒷날에 하기도 하는데 예로부터 마소를 많이 키웠기 때문에 백중제가 크게 행해졌다. 음식은 흰

쌀밥, 상희떡, 돌레떡, 제숙, 과일, 술 등을 마련하는데 특히 쌀밥은 사발이 아닌 양푼에 넣어서 갖고 간다. 밤 12시에 가세봉에 올라 동네별로 소나무 아래 모여서 제를 지내는데 절은 하지 않는다. 소나 말을 많이 키우는 사람은 닭을 잡기도 하고 옥돔 등의 생선도 올리는데 당시에는 어려운 형편으로 소고기적이거나 돼지고기적은 하지 않았다.

③ **백중** : 물 맞는 날로 주로 남토산에 산여리통이나 한라산의 물 나는 곳에 가는데 백중제에 맞는 물은 약재가 된다고 하여 신경통 등이 낫는다고 여겼다. 백중날에 마늘을 심으면 백가지가 나고 처서날에 심으면 천가지가 난다고 하며 호박이 잘 열지 않으면 호박을 막대기로 두드리면서 “백가지 열라”라고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

## 7) 8월

① **소분** : 음력 8월 초하루에 풀을 베야 풀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여 친척들이 모여서 조상의 무덤에 벌초를 하였다.

② **추석** : 아침에 가정에서 차례를 지내고 나면 청년회 주관으로 리민 체육대회가 한마음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참여하며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추석을 함께 즐긴다.

③ **말똥줍기** : 출베기를 하고 난 후에 가세봉에 가서 말똥을 주워 말려서 겨울에 연료나 거름으로 쓰였다. 목초를 베고 말린 다음에 한 곳에 모아 두고 거기에 마소를 가둬 놓고 2~3일 정도 지나고 나면 거기에 있는 말똥을 주워 썼는데 연료로 사용하고 난 말똥을 다시 거름으로 썼다.

## 8) 11월

① **동짓날** : 팔죽을 쑤어 먹는데 동짓날 팔죽을 먹으면 무병하고 건강해진다고 한다.

## 9) 12월

① **지붕잇기** : 제주시는 2년에 1번 지붕을 잇는데 남제주군은 마(장마)가 많아서 지붕이 잘 썩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지붕잇기를 한다. 농한기인 12월에서 1월 사이에 지붕을 새로 덮었다. 지붕을 이를 재료는 직접 키운 새로 음력 11월쯤에 베어다가 말리는데 긴 새 22개, 짧은 새 40개 정도를 갖고 꼬아서 사용하였다. 바람 없는 날에 동네 남자들 5~6명이 모여 돌아가면서 지붕을 덮어 주고 주인은 술, 고기, 담배 등을 대접한다.

② **장담그기** : 가을에 여문 콩을 수확하고 말린 다음에 장담그기 좋은 날을 보아서 그 날에 콩을 솥에 넣고 삶아서 메주를 만들어 장을 만든다. 장맛에 따라 신년의 운세를 점치기도 하였다.

### ※ 기타풍습

① **액막이** : 점괘가 좋지 않을 경우 접시에 참기름을 놓고 그 안에 심지를 담아 불을 붙인 후 불에서 나는 그을음으로 창호지에 그림을 담았다. 이 행위를 통해 나쁜 점괘를 막았는데 '불싼다'라고 한다.

변소에 실수로 빠지게 되면 어른이든 아이든 나이수대로 떡을 만들어 먹여야 탈이 안난다고 하였다.

② **무 점치기** : 무로 한 해의 운수를 점치기도 하는데 무 가운데 흠을 파고 거기에 물을 넣고 천장에 걸어두어 순이 잘 자라면 한 해의 재수가 좋다고 여겼다.

③ **기후 알기** : 한라산 주위를 구름이 둘러싸면 "한라산이 목 잘랐다"라고 하여 비가 올 것을 예측하였는데 중턱에서 잘리면 일주일 후 쫄, 꼭대기 부근에서 잘리면 사흘 후 쫄에 비가 내린다고 한다.



# 방 언

## 〈 목 차 〉

- |              |              |
|--------------|--------------|
| 1. 의생활 관련 어휘 | 6. 어업 관련 어휘  |
| 2. 식생활 관련 어휘 | 7. 축산업 관련 어휘 |
| 3. 주생활 관련 어휘 | 8. 신체명칭      |
| 4. 생필품 관련 어휘 | 9. 기타        |
| 5. 농업 관련 어휘  |              |

## 1. 의생활 관련 어휘

### 1) 평상복

#### (1) 갈적삼, 적삼

갈적삼이렌 헌건 우에 입는 거.

#### (2) 옷저고리

겨울에는 그것보고 무신 옷 산디. 막 덥게 시리. 저고리렌 허주게.

#### (3) 우아게

#### (4) 저구리

웃웃.

#### (5) 후루메

겨울에 입는 것은 후루메.

#### (6) 두루메기

여름에 하얗게 입는 것은 두루메기.

(7) 뜨대옷

겨울나민 이 미녕으로 행 잠바 만들영 그 속에 소개 낡 경행 누병으  
네 겨울에도 입고 해낫주.

(8) 갈점뱅이

(9) 치메 : 치마.

(10) 중이

(11) 굴중이

영 행으네 이디 널르게 행 다님 치는 거.

(12) 고냉이포

겨울에는 뜨시개를 요렇게 줍는 것이여. 요렇게만 주민 그대로 이렇  
게 씻어. 겨울 때 추우민.

(13) 몸뻘/갈몸뻘(일 하러 갈 때)

(14) 소중이

여자들 속옷 잇잖아이. 이진 소중이 소중이 해서. 지금 입는 팬티를  
보고 소중이.

(15) 살마다

쪼그만 영 뻘쓰새끼 만들영 입지주.

(16) 단속곳

속읍에 입는 속치마.

## 2) 모자

(1) 페립

(2) 패랭이

더울 때는 밀은 갈거든. 밀, 밀대 우에꺼. 딱 딱 기창. 그걸로 이젠  
우리가 짜는거라. 지금도 우리 거 짜지는데. 영 짜그녕에. 뽕뽕뽕뽕  
뽕뽕은 방구레기가 이마니 하면은 아. 요건 패랭이. 지금 밀대모저  
잇잖아 이? 패랭이랜 허주게.

(3) 고냉이 감티

겨운<sup>1)</sup>에는 뭐 쓰느냐? 추울 때 이? 무엇을 머리에 쓰냐 하면은 고냉이 감티엔 헌거 잇었어. 고냉이 감티 모를거다. 고냉이 감티가 어떻 생긴거나 허민. (종이로 설명) 이추룩 헌거면은 딱 허게시리 영 만들 영. 올로 영 꼬매고, 요디 흐끔 줄이민 대가리에 쓰거든. 것도 잘 사는 사람이라야 그런거 했지.

(4) 병것

토끼 가죽이나 이런 털모자 요런 거 행으네 썩 다녔주.

### 3) 신발 · 양말

(1) 초신

(2) 고무신

(3) 남신 : 나막신

(4) 대비 양말

(5) 보선 - 버선

보선을 이렇게 주어서 이렇게 발모냥으로 주어서 저 지금은 미숭 잇는디 미숭도 없어서 바늘로 꿰꿰 주어서 그 아덜덜 거 신져서.

### 4) 아기옷

(1) 지성귀

헌옷을 뜯어 헉솔 넓게 만든 것. 경 얇으면 천으로 무명 같은 걸로 뚜 대기라고 조금 넓게 해서 그저 물건 싸듯 뱅뱅 그 속에 말아서.

(2) 보댓옷

곧 나쁜 베로 헤가지고, 애기 나쁜 금방 입는 것 곱앙 보댓옷 일주일 배끼 안입져.

(3) 뚝빠떼

베, 무명으로 만든 애기 여름 옷. (애기 옷은 그 베로 만듭니까?) 응.

---

1) 겨울을 의미하는 듯함. 겨울, 저울, 저슬 등으로 발음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들리는 그대로 전사하였음.

베로도 만들고 미녕으로도 만들고 게. 미녕. 미녕. 무멍. (그런걸 뭐  
랜 험니까?) 애기 땀빠때.

(4) 벳저구리

벳저구리 어서게? 그런거 이녁냥으로 만들영 입지주.

(5) 강알 튼 점뱅이<sup>2)</sup>

아즈면 그대로 강알이 벌어지게 되어서. 그른 아즈면 그대로 옷이 벌  
어지면 오쭈 누게 땀어.

### 5) 비웃

(1) 우장

지금 입영 땀기는 만또 같이 맨들어서 비오는 날은 썩 땀기고. 우장  
이런 헤그냉이. 그 새. 새 알아? (그 초가집 만들 때) 응 그렇지. 초  
가집 만들 때 그 새. 그거 영영, 막댕이 영영, 요고 새 거꾸로 심영  
확 홀트면는 그 가운데 것은 싹 빠지꼭 두곶으로 영 헤그네이 나온  
끄트머리 허나만 이서 경허민 그걸로 심으멍 옆이멍, 옆이멍. 읍로  
헤그네 이녁 키에 맞춰그냉에. 딱 짜 모자. 그거 노멍 모지민 벨 비  
가와도 안들어와.

(2) 벌립

소털로 밀짚모자 모양으로 엮어서 우에는 쓰고.

### 6) 혼례복

(1) 여자

- ① 치메 : 비료도 치마<sup>3)</sup>, 웃등 치마, 그거 입은 사람은 최고로 존 거,  
까치마, 옛날 체진치마.

---

2) 어린아이들이 입는 옷

3) 제보자의 특성에 따라 치메, 치마라고 발음되었다. 예)세화 1리 강육희(여, 77세)할  
머니는 '치메'라고 하였고 세화 1리 김을출(여, 70세)할머니는 '치마'라고 하였다.  
제주어사전을 기준으로 하여 '치메'라고 표기하되, 그에 따른 설명은 김을출 할머  
니의 조사내용을 들리는 그대로 적는다.

- ② 저구리
- ③ 장옷 : 저고리 위에 장옷. 파랑헌 것에 빨강헌 거 물들인 거. 장옷 입고 하나는 머리에 쓰고.
- ④ 고무신
- ⑤ 건지 : 머리에는 건지 엮었어.
- ⑥ 족두리
- ⑦ 꽃신 : 새각시 신는 신.
- ⑧ 꽃빈네/꽃비녀 : 새각시 머리 영 두정 질르는 거.
- ⑨ 보선/버선 : 발에 곱딱한 헤영헌 광복으로 헝 꽃신에 맞추주.

## (2) 남자

- ① 바지
- ② 저구리
- ③ 후루메<sup>4)</sup> : 후루미
- ④ 선재 : 코를 향시 막았어. 부채
- ⑤ 가막창신, 창신 : 가죽신.
- ⑥ 풍뎡이 : 풍뎡이 쓰고, 신은 가죽신, 창신.
- ⑦ 도복 : 후루메 우이 영 덩기는 것 굴앙 도복.
- ⑧ 각띠/허리띠 : 허리에 이레 영 도막도막 찢러진 건 각띠.

## 7) 상복 · 제사복

### (1) 상복

- ① 지도옷  
 느네 집안에 상이 나면 두건을 쓰고 베옷을 입잖아이. 이것이 어머니가 죽었을 때랑 아버지가 죽었을 때가 틀려. 어떻게 틀리느냐, 그 지도옷이 잇잖아이. 아래 가면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요걸 가위로 딱 잘를거 아냐? 잘르민 그대로 실밥으로 감추는 것이여이. 젠디 어머

4) 앞에서는 '후루메'라 발음하고 같은 내용을 '후루미'라고도 발음하셨다.

니가 죽으면 이렇게 꼬불려 와서 죽는 것이야 접어서 죽는 거야.

- ② 두건 : 모자 닮은 거.
- ③ 건대
- ④ 대건
- ⑤ 소건

머리에 쓰는 거. 배 험뻑으로 영 행 머리 두룬 것. 글 쓴 거 종이 헤  
그네, 대건 소건 두 개 쓰주게 건대를. 하나는 창호지로 대건 쓰고.  
소상에는 소건 벗어 불고 두 개 셋당 하나 벗어 불고, 대상 넘으면  
대건도 벗어 술아 불곡. 여자 쓰는 것도 건대. 산디쪽으로 꼬은 거.  
상복 쓰곡, 두건쓰곡, 요 우에건 대건, 또 동글래미 행으네 아굴탁드  
레 오는 건 소건.

- ⑥ 남자 : 지도웃 스나이들 밑에 허는 건 행경.
- ⑦ 띠 : 상주가 허리 묶으는 거.
- ⑧ 방장대 : 짚으는 거
  - 아방 죽으면 왕대막작 : 왕대로 헤영 방장대 허곡.
  - 어명 죽으면 먹이낭 : 먹이낭 해당 방장대 허곡.
- ⑨ 신 : 셋각신
- ⑩ 행경 : (다리에 두르는 것 곶앙 뒀랜 행계 마는?) 아! 행경, 행경.  
행경. 영 허는 건. 행경.

## (2) 제사복

- ① 두루막 : 8월 멩질엔 모시 두루막 헤영케 헤그냉 후리매 고치헨 입  
구 5월 멩질엔 배두루 입구.
- ② 도복
- ③ 행적 : 발에 차는 거.
- ④ 갓

## 2. 식생활 관련 어휘

### 1) 밥·죽

- (1) 보리밥
- (2) 감저밥/고구마밥
- (3) 조팍  
모인좁쌀 살락헨거 해가지고. 조나민 조팍헨 먹주.
- (4) 산디밥  
시계 멩질 때나 먹주 그걸 먹읍서게 막 하영 헐 댜 먹고.
- (5) 툄밥  
바당에 강 툄 비여당 밥 헨 먹고.
- (6) 프래밥/파래밥  
바당에 강 프래도 매당 브랑으네 솥앙 솔방울 낳으네 헨 밥.
- (7) 근밥/쌀밥
- (8) 조축
- (9) 보리죽
- (10) 물룣죽

### 2) 국

- (1) 장국
- (2) 배추국
- (3) 춤늑물국
- (4) 갯늑물국  
드룣 늑물을 캐당 국 끓여.
- (5) 메역국
- (6) 냉국  
메역 물리엇당. 물리엇다그네. 여름에는 거 싹 빨면은 곧 해온 메역

닭아. 썰어 놔그네 행. 물장노코. 요샌 전고지랜 허고 거보고 우리. 새우리랜 해. 그거 썰어노코 물장해 그거 버무렁. 그거 행. 국혜영 냉국해 먹고 여름에(그런걸 냉국이랜 험니까?) 냉국이치. 그걸 냉국이랜 헛어. 우린.

(7) 자리국

바당에 댕기는 하르방들 이시민 자리돔 행으네 단지에 젓 담양으네 형겡으로 싹당으네 그 국물 툇랑 놓으멍 놋물 놓으멍 끓영 먹고.

### 3) 반찬

(1) 짐치/김치

- ① 드릅놋물 짐치 : 까실까실한 놋물
- ② 춤놋물 짐치/참나물 김치

(2) 자리젓

(3) 갈치구이

갈치사른 소금을 막 짜개해서 항아리에 담는다. 부젓집인, 그 갈치가 짜봐. 고사리 해다가 막 큰 거, 마당에 쫄든 그거 몰르든 그거 불 솥 앙 그걸 구우면은 막 거 반찬.

(4) 된장/된장

반찬은 된장 반찬뻬기 엇엇어.

### 4) 간식거리 및 떡

(1) 감저 칭 먹는거/찢고구마

(2) 밀처배기

옛날 여기서 심은 밀을 그라그넝 상에 떡헿 먹고.

(3) 모를 만디떡

(4) 상외떡

(5) 제귀떡

(6) 솔변



(7) 절번

(8) 범벅

므물범벅 - 밥 먹기 실플 땐 므물 굴앙 범벅헝 먹주. 방애 옥에서 설근설근 실렁 푸는 체로 퍼동 쟁그래에 굴앙 그루치는 체로 청으네 감저 거적 베경으네 호랑허게 숲당으네 물 툴라동 남죽으로 짓으네 함박에 퍼 낱 먹엇주.

(9) 못

엔날은 못 살 때 못 산 사름들 밧디 비루도 하니허고 허난에 못이 봄나민 못이 구작하게 밧디서 나와. (아~ 밧디서 나는 걸 못이렌.) 어. 지금은 거 약 때문에 못 엇주마는 그 못을 놔 허는 거 보고 흐 번 먹어봐신디 우리는 못 먹크란게. 그걸 못 사는 사름은 헤다그네 그 영헤그벵에 초집이 그 일 년 일 년 헤나민 줄 이시네. 메는 줄 그 줄을 노려온다. 그걸로 헤그네 빙빙 몽코당 영 향아리 헤그네 들러그벵에 거기서 영 흑 그튼 거 영 덕영 놔두민 그 줄이 막 불이 붙어그네 뜨뜻하게 되민 그 온기로 향아리 속읍에 이제 못이 물 놓고 그거 그 못을 잘 단장헝 노민 구어지는거라. 구어지면은 어떤 사름들은 맛잇덴허멍 그자 먹고 이제 미숫그루, 개역 옛날에 보리허민 개역 많이 그 정그래에 굴아그네 그거 합체로 처그네 그거 버물영 먹곡 해신디 그걸 또 사는 집이 아정가민 흐 사발 아정가민 그 사발에 저 섭섭하카부덴 쏘을 한 사발 영 거려줘. (아~ 못이 밧디서 나는 풀 그튼전디 그거 구웁으네 개역처럼 헝 먹는거?) 개역에 섞어그네 먹는 사름도 있고, 기자 먹는 사름도 있고.

(10) 개역/미숫가루

(11) 밀헝주리

미국에서 그 엔날 가루 들어왔을 때 그 빠난 헝주리를 아주 가난허게 사는 사름들은 그것도 사당 먹엇저게. (아~ 밀가루 나와놓고 나머디 그걸.) 어. 거적은 왜냐하민 것도 감저냥 감저 숲아그네 그 옷드레 놔그네 조금 숲다그네 이제 거의 그루로 치몰랏거니 허민 이제 엔날

에 또 지금은 저 뭐하주마는 옛날엔 밥을 짓는거 곶양 요만죽이 만들 아그네 밥이 다 되민 짓는 남죽이 잇저. 거 곶양 남죽이엔 현다. 남죽으로 짓으면 맨짜행 범벅이 되느네. 범벅이 가루에 감저에 맨짜행 흡수되어그네 정행 그걸 먹엇주. 게문 그걸 그 체를 어떻게 먹느니. 그거 감저 위주로 그걸 먹엇주. 배불기 위해그네.

(12) 밀주생이/밀찌꺼기로 만든 먹거리

육지서 밀 찌꺼리 오문 사 먹는 사람이 하 나서.

(13) 감저 빼때기/고구마를 이용한 간식

날짜로 썰왕 말령으네 숲양도 먹주게.

(14) 밀저베기/밀수제비

수제비(물저베기마썸?) 밀, 밀로 만드난 밀저베기.

(15) 모물 등절빔

메밀 떡.

## 5) 제사음식

(1) 뫼(메)

잘허는 집은 끈밥을 허고, 아닌 집은 밀쌀 허고 보리쌀. 신정에는 끈 밥.

(2) 갯

(3) 뫼물

(4) 탕쉬

메물 탕쉬. 대중 고사리. 무채도 해서 올리고 호박도 지정 올리고 들에 가그녕이 들국, 트릅 잇잖아이 들국 같은거. 야생드릅 까서 돌고 현 나무에 순 올라오는 거 잇어.

(5) 산디솔

옛날에는, 제사 때는 당. 딱 상에 올리는 것만 집에서 7는 산디솔. 요 중간엔 안 허당. 이제부턴 허는디. 밧디가는 논 그 물에서 나는 게 아니고, 밧디가는 산디엔 해나서 그거 행 제사 때만 써서.

(6) 술래기

옥돔. (다른 거, 밥 말고 다른 거 제사상에 올리는 거?) 올리는 건 술래기. 지금 같으면 술래기 알아져? 옥돔. 그렇지, 옥돔, 술래기 행 올리고.

(7) 비계

저 옛날에는 이. 저 비계엔 현 고기 잇는디이. 비계. 상어. 그런 거 무지무지 많이 나뉘는디.

6) 술

(1) 춘술

옛날에는 그 표선에서 표선이 송방옥이네 집이가 술 공장이라신디 옛날에이. 그디서 고동 ㄱ튼 거, 전복 ㄱ튼 거. 전시되나서. 옛날 송방옥이랜 하여튼 제주도에선 (청취불능) 공장이라시네. 거기서 술을 이제 기계로 해영 닦아네 추레 나왔지마는 이 사가에서도 술을 한다.

(2) 고소리술/곡식술

술을 한다 하민 뭐냐하면 곡식술을 허되 이제 누룩헛다그네 누룩헛당 보리쌀 참진 보리쌀 헤그네 반죽헤그네 그걸 이제 누룩헛 티와그네 크는 죽 부엌에 농곡 헤그네 집에서 술을 곡식 농곡 헛 술을 만들어. 술을 담아그네 거의 익을만하민 고소리가 잇져. 고소리 술. 고소리로 이제 영헤그네 으긴 한플레기 되고 으던 으기 영헛 음막하게 들어가 고 또 위는 맨물 놓는디가 이서. 맨물 놓는디가 이시민 술디 시리치 듯이 그걸 아시다 놔그네 그 술디 영 헤그네 거 가루고 다 곶냥 막아 그네 그 우이 물놔그넵에 물이 뜨뜻뜨뜻 헤가민 골곡곡 헤가민 그 고소리 곶냥으로 술이 허영헛 술이 졸졸졸 나오. 그거를 닦아그네 촌에 사람들은 이제 그 술을 팔아. 그거를 팔민 돈 많이 남주. 고소리술. (아~ 고소리로 닦아부니까 고소리술이랜.) 응. 고소리술. (곡식술을 다 고소리렌 해부난 고소리술이랜.) 응.

(3) 오메기술/막걸리

시린 좁쌀 가루로 갈아그네 반죽해그네 반죽허민 뭐나허민, 요만씩  
요만씩 허기시리 요만이 두둑히 헤그네 계민 솔드레 들이청 그건 하  
시리난에이. 차살ㄱ치 헨거난 시린 좁쌀이 찹쌀ㄱ치 헨거난 숲아그네  
막 꿰어그네 정헤그네 이제 그 뭔가 누룩 농곡해그네 담양 그걸 오래  
나뒀나민 말강한 청주가 올라와. 이제 그걸 따르멍 그 청주를 먹어.

### 3. 주생활 관련어휘

#### 1) 구조

##### (1) 고팡

집안에 쌀 곶은 것도 곶앙 갖다놓고 하간 거 갖다 놓는 디.

##### (2) 마리, 상방 - 마루.

##### (3) 문둥, 마둥(뭇뚱)

신발 벗어논 디.

##### (4) 촛벼롬

안네 벽.

##### (5) 죽은 삼방

정지에 맨든 죽은 마리.

##### (6) 지계문

쌀 문, 좀진좀진 헨 쌀, 스랑스랑한 문.

##### (7) 선반

비 안 발르는다.

##### (8) 가재 든거

비 들어오지 못허게 가재 붙전. 집 가재 흐쌀 나가게 허는 거.

##### (9) 도통

화장실 밑에 돼지가 들어있는 공간.

(10) 이문간

집은 요쪽에 집 하나 짓으면 가운 한 장으로 올래가 되어서 그게 이문간.

(11) 올래

그 영 집 밖에 올래가 나오라. 올래 나오면 으깬 칸에도 집이고 으깬 칸에도 집이고 집 하나인데 양쪽에 집이 갈라져서 이 한 반치로 올래가 나오지.

(12) 구들 : 방.

(13) 풍채/현관위에 비 막아주는 곳

풍채는 요기 돌리면은 저 이 햇빛도 안이 발르고 비도 이렇게 이 가 까운디 비도 안 들이 치고.

(14) 통시, 도통/화장실

얼마쯤 나가서 담 쌓아서 되야지 질르고 그 도새기 사는 집 만들어서 비오면 도야지도 거기 기어들고 그런 집 있지.

① 디딜팡 - 지금은 화장실도 잇주만은 거기서 일도 보고 영헤났수과 양. 그 도통보든 여기 영 땡으네 흐끔 집 닭은거 영헤영 해놓고. 도야지 비 맞으카부덴 그것이 집이주게. 여기가 영허영 돌 두개 영 낱. 어, 디딜팡.

② 돌토고리 - (도야지한테도 먹을거 줘야할거 아니과 먹을거 주젠하든) 돌토고리.

(15) 우자담

(집이 이시믄양 집이 있고 영 돌로 도글락하게 돌로 막아놔야될거 아니과. 거뭇랜 굴아나수과?) 아! 우자담.

(16) 정

(올래로 행 들어가든 집이 가젠하든 우자담 이신데 보든 옛날엔 경대문이신디가 어서 나십주게. 대문 어시믄 소도 기르고허난 소도 못 나가게 허젠 영 낱 닭은걸로 툫툫 걸어나지 안해수과?). 이 문간 대신헌거? 정.

(17) 조근거리

(안거리 있고 밧거리 있고 옆에도 영행 뭐 집 닳은거 해눌 수 있지 안 으파?) 안거리, 밧거리, 뭐 거시기 조근거리.

(18) 정지/부엌

- ① 솟덕 : 솟 받치는 거.
- ② 불 때는 것 : 나뭇가지, 출 베어당 허곡, 솔잎, 나무, 말뚝 곁은 거, 삭다리(소낭 가진디 불영은 이신디 죽은 거).
- ③ 군대 : 굴목 짓젠 허문 깊숙이 박고 빼내고 하는 거.
- ④ 연기통 : 정지에 연기 나가렌 뚫은 구녕.
- ⑤ 구텡이 : 감저 곁은 거 묻어 놓는다.
- ⑥ 주쟁이 : 구텡이에 물 들으민 썩으니까 안들렌 썩우는 것.

(19) 뺏마리/뺏마루

삼방엔 또 뺏마리가 있주. 뺏마리. 뺏마리는 어떻허냐 허민 집을 나가가지고 요렇게 이작겨추룩 죽 허게 나온디가 있어. 돌로 헌디도 잇 곡 또 낭으로 헌디게. 허민 뺏마리. 삼방 다음에 그건 쪼끔 낮인, 낮 은거지이.

(20) 구들바닥 : 바닥.

(21) 문

- ① 댛문 : 큰문.
- ② 섯문, 섯문 : 이 사이에 들어진 거는 섯문.
- ③ 창문

(22) 천장

- ① 구들천장
- ② 삼방천장 : 방천장이엔 안 헤영 구들천장.

## 2) 가구

(1) 책갑

옷이나 책이영 담아놓는 거.

(2) 시렁

시렁짜그네 문도 안돌곡이 영 이만 한거 놓주게. 그 옷트레 책감도 놓고 이불도 조근조근 개어놓곡.

(3) 웨못

옷 거는거. 다 웨못박안.

(4) 케

옷도 담아놓고 거기 뭐 엔날 하르방들 밧문세 집문세 그런 문세도 그 케 쪽읍에 담아놓고 케 쪽읍에 이룬디 저 영 처나반(확실치 않음) 님은디 뭐 설랍잇거든 그 설랍에 담아놓고 집문세 밧문세.

① 딱케 : 옷 노는 케를 딱케.

### 3) 주생활 관련 기타

(1) 초집바닥

바닥에 온돌 걸영 어뎡 해시냐믄 납작납작한 돌 헤다그네 돌을 영헝 다 지둥돌을 영영 놓나게. 채왕 구들 놀 때, 경해낭 납작납작한 돌을 맨작하게시리 다 짚아냐? 경헝 짚아그네 우이 이젠 자갈 끌고, 므살 끌알 세멘을 맨작 허주. 세멘 맨작 허민 이젠 영 이추룩 모누름 끌지 만은 옛날엔 창호지 불라그네 그 장판지 종이엔 헝거 두덕두덕 맨작 불라그네. 콩에 유에 뽕앙 그 놈을 뽕앙 이제 베 잘리 헤그네 그놈을 이젠 이걸 미처간당 미처온다 막 허느네. 노랑케 뽕질뽕질 장판모양으로 경헝 장판지 이제 온돌 건디 그대로 불만 때민 구들이 뽕뽕헤여. 온돌 허민은 붉도록이라도 뽕뽕한 냥 이서 그자.

(2) 구들 장판지 얼루는거

장판지 사당 맨작 불라그네 콩에 유에 헤여그네 뽕아그네 물낭 꾸작 꾸작헝 잘리믄 짚금짚금헝. 경해낭 그 옷트레 뽕기라도 칠허민, 구들도 뽕질뽕질 투색도 안허고 좋은디. 그냥 니스만 칠허민 제기 헝어불고 해나서.

(3) 초집우이 그거 상모루

집 구들은 허젠허민 영행 상모루 안에다가 영헤그네 쌀 헤그네 조근조근 허게 나무로 헤여그네 그래 이제 대 헤여그네이 바드랭이 찬거 특 허게 낱 흑질 허영 막 웃트레 놔그네 경행 안으로도 흑질 맨작 앙투헌 다고, 상방도 경허여그네 허영 볼루면은 이추룩 맨작허고, 경 아니민 그 서리해그네 앙투만 행 놔두민 서리 것도 다 뵈려지곡 허느네.

## (4) 앙투

천아반에 확 행 볼루는 거.

## (5) 천아반

엔날엔 츠집 지스민 서리 조근조근 걸쳐그네.

## (6) 서리

동나무다가 영영 다 놀 거 아냐? 경행 놔는 위에다가 이제 대로이 줌진 대 저디 대나무 비어다그네 그 놈을 막 여퍼그네 그거 뱅허게 다 덕끈다. 그래다 경행 짜주게. 노곳으로 짱 영 현우짜고 요영 현우자고 요영 현우짜곡, 경행 짜그네 그 웃트레 흑 헤그네 이디 이제 흑도 막 산디찍 수세나 믰물찍이나 노명 막 물질명 흑질 밥 헤영먹이멍 물꾼 맥이곡 헤영 흑질 헤영 그 놈을 믰시로 불려그네 이젠 다 혼불다 행 문착 불려지민 또 대싸놔그네 경 물 노명 그추룩 수세놔 경해당 그놈을 천아반드레 착착착 몬 흑질 허곡, 이 옆이 담도 닳은디 담구녕 다 흑질 하곡, 흑질하는 거.

## (7) 빈지

이제 빈지도 엔날엔 요 영행 이 믰루를 잇주 요만이. 널드령 가꾸목 굴이 행 널드런 지방 막 돌아가멍 상방도 경허곡 헤나그네 조근조근 헤나가고, 그리고 그 웃트렌 태기, 태기 우에 대바드랭이 행 논거. 영 구들이영 구들 사이에 영 막아지는 거 이런 것 고랑 태기, 그래 흑질 헤여그네 맨작 불량 누워놔주.

## (8) 호야

등 걸영 호야예 불 싸곡. 호야영 헌건 호야 병것. 이제 그런 팽 가운데 유리 헤그네 그거 또 아랫건 등잔헤영 심지도 올렛당 내렛당 쇠기



지름 낱 싸는거.

(9) 각지

쪼끌락한 사기 등잔에 싸곡 헛주. 허영허게 두개도 쪼끌락한거 툽 뒤  
영 썩 미실러그네 불 싸는거.

(10) 부섭

삼방에는 화리, 저 불 살르는 거. 영행 돌 내귀 방장한거 팡 부섭답게  
헤그네 질리는 나무헤당 싸곡.

(11) 발

방이영 상방 사이에 드는 거

(12) 꿩철

문 줌그는 거.

(13) 통췌

(14) 노

(초집 짓젠하민 위으는거 꼬아야 할거 아니파예?) 가마니 모양으로  
파 놓은거 그늘게 끈게 있구 굵게 솔지게 끈게 있어. 집 지슬라구 하  
민 매일 저녁 수정에 다 노 꼬는거여. 짚도 드리면서 새로 드리면서  
밤이 막 노 백발씩 오십발씩 께동 잠자는거라. 왜 그러냐 하면 어디  
사용하느냐 우에 대나 대나무 있잖아 쓰리대나 왕대나 그런걸 헤여  
다가 깨면서 우에 가그냉 그걸 맞춰 그냉에 팬팬하게 다 만드는거라.  
서리 걸어낱 경행 만들엉 그노로 몬 뽀지는 거라 쭉 허개 사람 여남  
은 아자서 열댓이 아장 쭉 허개 알라래 꺼장 요디 헤와지민 또 이쪽  
에 오랑 이편쪽이 뒤쪽이 옆 이쪽이 허구 노로 헛다구.

(15) 퇴기

옆이 이렇게 막는거 낱 요만씩 잘르멍 깨멍 다 그걸 노로 딱 막아낱  
냉중은 훌 끼어다가 맨작하게 불랑 삭강치구 손으로 하는거라 .

(16) 마께

던드렁 마께 라고 해서 까망한 돌이 이만한거 둥구린한 것에 낱 이런  
낱마께 이런걸로 막 두들기는거라. 그럼 몰랑해지거든 그럼 노꼬는

거 짚도 그걸로 두들리구.

(17) 굴묵

온돌방이엔 헌건 옛날에 굴묵을 뗏주.

(18) 호랭이

지붕 잇젠 허믄 새 해당 놓고 지붕 이었으네 영 줄 그튼걸로 씨왕 해  
야할 거 아니파 브름부난 줄 허젠허믄 앓앙 돌리멍 행으네 새끼 꼬듯  
꼬아난 거 이신디 것이 호랭이.

(19) 뒤치기

둘이가 हु데 노끈 그튼 거 꼬는 거 그망 툄라진 거 그것 굴앙 뒤치기  
엔 해.

(20) 왕대

(지붕에 한 사람이 올라강 밑에서 던져주믄 다 배아치 되부난 다 놀  
령 줄로 묶엉 줄로 영행 영 묶은 다음에 밑에 왕대낭행으네 탁해나  
지 앓앗수과양) 왕대. 기 주로 매 곳에 기 줄라매는데가 이십주게.  
기거 줄라매는 왕대낭이 이서십주게. 그래 툄툄 줄라맷주게. 왕대로  
흐는 사람도 있고 기뻔 왕대가 어려왕 또로 막대기 회칙허거 행으네.  
원래 집 짓은 때 그걸 줄 묶으게되게 맨든거주게. 별도로 줄 묶을 때  
가정맹기지 앓고.

#### 4. 생필품 관련 어휘

##### 1) 부엌식기

(1) 체

① 얼맹이 : 산디 두드리고 므물 두드령 허는 거.

② 대체 : 얼맹이 보다 흐썰 줌진 거.

③ 중체

중체는 보라썰을 정그레 옛날은 깨어가지고 웨나하면 그 보리를

큰 맷돌에 사람이 밀고 맷기도 해가지고 물을 섞어 다 갈아. 그 거  
기서 갈아가지고 집에 널었다가 또 이렇게 바람에 불령 체를 갈라  
가지고 또 널었다 그것을 듭을 뜨시 큰 맷돌에 놔그네 또 굴아다그  
네 말리와그네 거 또 작은 맷돌이 깨어그네에 그 대체에서 처. 대  
체 우이꺼는 또 놔가지고 또 불르고 또 처그네 또 불르고 해서 그  
두 개 벌러진 것을 옛날은 밥을 해가지고 먹어서. 유채집 해다가  
아궁이 떼가지고 그랬어.

- ④ 거름체 : 대체 보다 흐썰 줌진 거. 중간에 믈물만 허는 거.
- ⑤ 합체 : 거름체 보다 흐썰 줌진 거. 줌진 줌진 허게 ㄱ루만 치는  
거. 하간거 물ㄱ래에 ㄱ루 굴면은 무신 즈배기나 떡 굴은 거나 해  
먹젠 ㄱ루 치는거.
- ⑥ 푸는 체 : 체 푸는 거. 솔밥 굴은 거 해그네 그거 영 평 털어놔뵤  
또 판디 낭 푸곡 허는 거.
- ⑦ 조리. 거죽 : 손잡이 이신 거. 된장 푸는 거.

(2) 솔밥

(3) 대약세기

썰 향에 놔 듭 서루 썰 거리는 거. 쪼끌락 헌 거.

(4) 관대

썰 대는 거. 한 관대 두 관대 허는 건디 네 관대 되면 흐말 경허는거.  
네귀 방장헌 거.

(5) 지아독

사기 향. 바이는 오그롱헌 거. 썰 담아 놓는 거.

(6) ㄱ래

- ① ㄱ래즈루 : ㄱ래 잡는 것.
- ② ㄱ래ㄱ냥 : 굴멍 들이청 굴멍 허는 ㄱ냥.
- ③ 맷돌 : 위에 것도 있고 아랫것도 있고.
- ④ ㄱ래즈쟁이 : 두 맷돌 사이에 끼우는거. 나무 ㄱ는ㄱ는 허게 갇아  
그네 맨든 거.

(7) 방에

떡 그루 곶은 거 뽏는 거, 꿔도 뽏고.

(8) 꼭박세기

요만이헌 박세기, 요새 나이론 박세기주.

(9) 물구덕

배 헤여그네 허벅 낱 지는 거.

(10) 대바지

죽은 허벅, 두린 땀 허벅 버친댄 대바지 지렌허곡.

(11) 허벅

큰 거, 막 어른 되영 크민 허벅 정강 물 지어당 항드레 물 담아 놓는 거.

(12) 바드랭이

왕대 영영 꿔여그넹게 그 저 구덕 소랑한거민이 구덕 창에 잘 다인데 그거로 입형 톱 받천, 구덕 창이 자꾸강 돌 우에낱 지곡 어디강 정가 곡 허민 이디(밑창)이 빨리 혈영 구덕이 제기 그차지지 안허나? 정 허지 말랜 받치는 거. 안해도 좋은디.

(13) 물팡돌

정지 유영헌디 팡 흐나 낱 그거 영 돌 해다그네 세와그네 돌 허영 양 쪽에 세와그네 그래 납작한 돌 낱 팡 만든다. 팡 만들민 허벅 지영 강 물 질래 강 오랑 그래 톱 부러그네 놔뒀당 갈땀 톱 지영가고.

(14) 항 (크기에 따라)

① 큰독 : 제일 큰거

② 큰 항아리

③ 육은 항아리 : 중간 항아리

④ 작은 항

⑤ 망대기

⑥ 단지

큰 단지, 작은 단지. 자그마한 단지는 단지. 또 큰단지 작은단지

그추룩 허고. (단지는 어떤 거 담어나수파?) 단지는 어 그 장 담앗 다그네 그걸 이제 메주는 다 건정 따로 이제 갈아놓고 그 이제 장 물을 술에 막 말갱게 삶아가지고 그 장물을 거기 놔. 그 항아리에 작은 항아리에. 그리고 뉘장은 뉘장대로 뜨시 웅케가지고 또 다로 놓고 경해그네 그런 거 사용하는 거.

- ⑦ 오가리 : 오가리도 거 비슷추룩 헛거지. 이름은 따로.
- ⑧ 조막 단지 : 제일 흐끌락 한 거, 흐 두어 사발 든 거, 부린 조그만 허고.
- ⑨ 장항 : 장 담을 때 쓰는 항.
- ⑩ 물항 : 물항은 물, 허배기로 물 질어당 비왕 먹는 거 항 물항.

(15) 두지

보리 굵은 거, 조 굵은 거 하영 장만 한 거 네귀 방장한 나무로 짠 거, 삼방 굵은데 낱 곡석 막 담양 위로 탁 덕영 놓는 거, 곡석 하영하는 집인.

(16) 장태

항 뚜깨. 툇 허게 시리 곡석 담으면 덤으는 거.

- ① 작은장태 : 작은 단지 뚜깨.
- ② 큰 장태 : 큰 단지 덤으는 거.
- ③ 다라장태 : 큰 항 덤으는 거.

(17) 므뭉싸게

발, 꺼무릉헛거라 사기그릇.

(18) 뉘그릇

제사때 쓰는 거.

(19) 솟 (크기에 따라)

- ① 두말치, 두말떼기 : 쌀 두말 들어간덴헛 제일 큰거.
- ② 두말떼기 : 큰 집에 뭐 잔치 때 경사날 때나 쓰고 콩 숲을 때나 쓰고 그러주.
- ③ 웨말떼기 : 상식으로 생각허민 혼말떼기엔 한 말이지. 느네 식으

로 해보민 웨말떼기엔 현 건 하나난에 웨말떼기엔 하고 한 말 허는  
건 그대로 밥 허곡.

④ 아래미숫 : 알루미늄솥

⑤ 쥘은솥

⑥ 외말치

⑦ 동솥 : 제일 죽은 거.

⑧ 솥뚜껑이 즈루 : 솥 뚜껑이 잡는 거.

(20) 므물사발

꺼명한 사발. 사발 안네 으렇게 한 사발 안네 (논이 잇어 자글자글한  
는 들은 - 칭취힘듬) 그런 사발에 밥 먹고.

(21) 남박세기/나무바가지

밥 먹는 여러 식기<sup>5)</sup> 다섯이고 열이고 집안 식구들 다 아자서 밥먹는  
거는 저 나무로 만든 남박세기 그런 것에 다 밥 퍼나서 식구가 다 아  
자서.

(22) 종지/간장 따위의 장류를 담은 작은 그릇

으만히 현 거 종지. 으만히 짜그만한거고.

(23) 보시/김치 따위의 반찬류를 담은 작은 그릇

보시는 짐치 곶은거 낱 먹고.

(24) 꼭박세기

호박 닳은 그것을 열면은 많이 심거당 지붕 우에 올리지. 이런 데 초  
가집에 올리면 그 꼭이 올리면 많이 호박 닳은게 드랑드랑 열주. 그  
거허면 막 익어사 잘 된 놈으로 헤다가 톱으로 싸서 둘레싸서 그거를  
박세기 맨들어서 글로 물 거러먹고.

(25) 남도고리

(26) 장태(그릇장태)

설거지통.

(27) 낭푼

---

5) 식구를 뜻하는 듯 함.

(28) 차룽

땃디 갈 때는 이 저 시방 대나모로 만든 거 이서 이걸로 담아서 두께 덮어서 가는거.

(29) 물빻

쿱박세기로 저 만든거 물빻.

(30) 도구리(남도구리)

나모해그네 각양 영 만들아그네 시방 저 어디 무시거니 전시회에 가면 나무통덜 잇지 이 기런것에 밥 퍼먹고, 막 구루구루 색색으로 시니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게니깐 중간에 걸로는 깊은 거는 떡도 허고 요즘 다라에 ㄱ티 떡도허고 기다서 옛날에 그 두 부ㄱ는 ㄱ레 맷돌이 맷돌 돌리는 것에도 굴고 또 짝은 것에는 밥도 퍼먹고 뭐 놓기도 하고 그랬지.

(31) 시리

떡 시리에 쨍 먹지 시리.

(32) 돌ㄱ레 (ㄱ레황) /큰 맷돌

(보리썰할 때 그 막 돌리는 거 잇던 해나수께예?) 응. 정ㄱ레. (정ㄱ레. 큰 것도 잇던 굴아난게마는.) 큰 거는 큰 거는 막 그 마을 저변이로 돌아가면서 차례배기로 하여. 그거는 사람이 밀리고 딱시 배를 묶어가지고 또 티어가지고 앞이 사름 땡기고 뒤에 사름은 (칭취불능) 또 절로 오는 사름은 이렇게 갈아노민 그거가 내려오면 비치락으로 이렇게 올라가라고 허곡 또 저편이컨 잘 안 굴아진 그 안에꺼는 이렇게 땡겨가지고 요만쪽이 이렇게 돌이 이렇게 되니까 요기 것도 안 갈아지고 여기 것도 안 갈아지민 요기는 영 올리고, 나중에 가민 또 여긴 경 올려와야 여기서 갈아지거든. (그 큰 ㄱ레 굴앙 뭐랜 굴아나수 짜?) ㄱ레황.

(33) 굴반 : 쟁반.

(34) 남죽 : 나무주걱.

(35) 속박

곡식이 들어오면 그걸로 거러다가 몰방앗간에 가느넝 굴래 가젠하민  
얼마 마련을 하는거라 대개 예를 들민 혼뒷박 두뒷박 하듯이 두량을  
헛다고 계산을.

(36) 대왓새기

조그마한 쪼글락한 속박. 그것은 정지에서 저녁하러 가젠하민 쫄을  
거려와야 할거아냐 게민 몇 개를 거려야 우리 수정이 다섯이면은 요  
걸로 세 대왓새기면 우리 충분히 먹으리라 계산하고 또 두 개만 거려  
당 밥을 하민 요만큼 먹으리라 계산하그넝. 쉽게 말하자면 짐재기.

(37) 솟덕/아궁이

솟 앓지는 솟덕 저 거시기 이제 굴이 뭐 어신거난 돌 동글랑 헨게 석  
시빌영으네 다 설러당으네 네 개 영 세 개 뒤 하나 아찌고 양편이 두  
개 아찌고 세 개 아쨍으네 양편들에 저 뒤틀에 불 영 내치는 디 저 ㄱ  
망 두 개 내오곡 헿 덕 딱하게 맞쨍 솟덕.

(38) 살레/찬장

그자 살레 만들앙 영 살레 총계 총계 헿 만들민 그계 저대낭으로 영  
바드랭이 멘들앙으네 물 알르레 빠지렌 그에 어푸고.

(39) 젓통/수정통

순가락 같은 건 젓통 돌아메주게 영 대나무 동글랑 현 대낭으로 물  
골르카부덴 속읍에 ㄱ망 알착으로 ㄱ망 흐쫄 툴랑으네 그레 하영 순  
가락 스무나무게 놓주.

(40) 대차룽/소쿠리

떡 놓는것도 대차룽 대낭으로 ㄱ초룬 차룽.

(41) 수제/순가락

수제라는 말은 순가락.

(42) 저뵘/젓가락

(43) 국통/국그릇

(44) 밥통/밥그릇

(45) 낭푼/양푼



밥 담양 먹는 거.

(46) 차반지

떡도 놓고 밥도 놓고 허는 거 두께 딱 허게 뒤었으네.

(47) 팽/병

엔날엔 거멍헌 팽에 술도 질고 감주도 질고.

(48) 독사발

이제 무사게 식당에 강 보민 국밥들 거리지 안허여게 그런 것 곱아  
엔날엔 독사발.

(49) 펜틀

영 제사 멩질 때 떡 필제도 그런 것에 괴고 소랑소랑 네 귀 나게시리  
만들양으네 발 붙이곡 행 영 이게 곱으민 영 꿀양 앓는 방석 모양으로.

(50) 상뼈/헝주

광목으로 수건만들었으네 상 닦는다.

(51) 대바드랭이

대로 헝으네게 대나무로 행 영 뺱허게 무사 이제 맨들민 똑 이제 맨  
들 듯 맨들어난 동글랑 허영 아래 창들래 사발 얹어그네 속허게 울으  
래 낡 경행 떡 치고.

## 2) 바느질 도구, 바느질법 및 빨래

(1) 바농쌘지(바농쌘)

바농쌘지 안엔 뭐 가위 놓고 씨 놓고.

(2) ㄱ세/가위

(3) 실패

나무조각 요만해그네 지금도 있어.

(4) 바농/바늘

(5) 손골미/골무

바농질 헝 땀 손골미 끼영 이레 손콍 속웁드레 이레 바농 조름으로

찢러부는 따끈 그 거 찢고.

(6) 실뚜레기/실타레

미승혈 때 줌진 실 감양은 미승허고 훑은 실 감양은 이거 여불카부덴  
이추룩 허고 경허주.

(7) 바농질/바느질

(8) 시끈다

무릎이나 터지면은 바늘로 혼 번 데여가지고 시끈다 시껴. 시깁 이리  
부쳐나그네 떨어지지 말랜 부쳐당 기 다음에는 쪽 허게끔 주워그네.

(9) 땡침

이거 바늘이면은 혼 번 영 나오라그네 또 다음 뒤로 가그네 깡 나오  
는 건 땡침 박는거. 건 안 끈어지랜 땡침 박는거.

(10) 이슨 거

그자 곧작 줍지 않는 건 이슨 거.

(11) 감치는 거

실 올 풀어지지 말랜 감추우는 거.

(12) 흙는 거

이거 영 호와가는 건 흙는 거.

(13) 서답/빨래

(14) 물막개

그 막둥이로만 영 쥐기멍 뱅뱅 낳으네게 볼땐 독한 건 해와둥으네 손  
으로 빨아사주게. 재난 손이 존딜 수가 어서.

### 3) 머리장식 도구

(1) 돛박지름

이런 돛박나무에 열매따서 지름짜서 브르지.

(2) 도메

(3) 열레기(얼럭지/얼러기) /빋

나무 열레긴 그자 혼 밧디로 이렇게 심어서 영영 빋는 거.

(4) 찡빚

나무 빚. 옛날에는 이 냥으로 만든 열레긴디 요로콤 동그스름헌다 이 동그스름 해가지고 헌걸로 먼저 빚어냥 막 니 일거든이 니 일면은 또 찡빚으로 또 빚으면 시도 나오고 니도 나오고.

(5) 비네 : 비녀

4) 기타

(1) 개썰/털실

개썰로 헤어그녕 손으로 짜. 손으로 양말을 짜그녕에 신어나곡. 거 짤썰 모르민 짤 사람한티 가그녕 사오고. 그추룩 허멍 살았져.

(2) 미녕/무명

(3) 멘레/목화

미녕이엔 헌건. 뭐냐면 이. 목화잇지? 목화. 그뎨 목화렌 안 곶았어. 멘레. 멘레. 그거해그녕에. 예. 그거 돌리멍. 씨는 빠지곡. 멘레. 그 저 목화만 썩. 백기띠 나온다고. 그걸로 이불도 허곡. 그거 헤어그녕 에. 이젠 그걸로 썰을 물레에 행으네. 썰을 내어. 썰 영내고, 썰영행 감고. 썰영 냉 감곡 행. 그거 문딱행 그것 또 감아그녕 이. 명주. 베. 저 텔레비전보민 영짜는 거 잇잖아. 그런거 쪽쪽 그걸로 딱 1년에 혼 번 해 입었다고.

(4) 애기구덕/아기침대

애기구덕이랜 행. 수름흔거 대나무로 행으네 즈문거 있어.

5. 농업 관련 어휘

1) 농작물

(1) 조

① 흐린조

- ② 모인조 : 모인조는 말고름 하고 흐린조는 거무룩 하듯 누릿헤여 이 색채가.

(2) 보리

- ① 술루리/쌀보리
- ② 꺾보리 : 보리 쓸하민 요만씩한 보리쓸 헤어그네 그 몰ㄱ레에 ㄱ레에 그 민속마을 강 보문 그 ㄱ레잇지? 거기서 물에 커그네 보리를 물에 킁 두드렁 불려그네 그 보리를 물에 킁 굴아 굴아 그 ㄱ레에 강 민 속마을에 강 보문 그런 ㄱ레 잇거든 그것에 굴아그네 한번 굴고 두 번 굴고 두 번 굴민은 보리가 쪼금 체가 부떠 체가 부뜨면 저디 사람들 안는디 할망 영 ㄱ레 굴암서 그렇게 굴아서 그걸로 밥을 행 먹어.
- ③ 줄보리 : 꺾보리를 허단 줄보리를 가니깐 하이고 이거 좋은 보리를 낫젠 막 그 농민들이 할아버지들이 지꺼져서 그런 보리해영 갈 앙 먹고.
- ④ 주냉이 보리 : 영 양 곳으로 여물이 돌아. 또로 걸보리는 동글랑행 또 더 돌주게. 기걸로 술을 헤여.
- ⑤ 술보리 : 맥주맥이가 술보리주게.

(3) 감저

(4) 지술

(5) 콩

- ① 두불콩  
② 보리콩  
③ 지냉이콩

(6) 껌

- ① 흰 껌  
② 검은 껌

(7) 둔비

(8) 녹두

(9) 피

(10) 산뎨

① 강나룩산뎨 : 밥을 허민 케씩허는 강나룩 산뎨가 잇고.

② चु솔산뎨 : 허린 산뎨.

(11) 믰물 : 믰물은 양력 8월 15일경에 감니다게. 믰물 막 싹싹 더운 때

(12) 유 : 유로게 지름빠구 합니다게.

## 2) 야채

(1) 배추

(2) 무 : चु늑물

(3) 가지

(4) 왜

(5) 호박

(6) 새우리, 전고지 : 부추

(7) 늑뻬 : 무

(8) 꼭

호박 닭은거 지붕우에 초가집에 이렇게 올리지. 올리민 그 호박도 열고 꼭도 열고 허민 꼭을 해서 그 꼭이 익으면 이렇게 몬지그민 췁췁 허면은 그 꼭이 잘 익은거는 췁췁허민 이렇게 끈어서.

(9) 드룻마농

(10) 드룻늑물

(무사 드룻늑물이랜 고라수짜?) 들에서 몬 그거나난. (아~ 그니깐 무신건지 모르는디 들에서 나보니까 그냥 드룻늑물?) 응. 드룻늑물.

(11) 숨키 : 채소

(12) 유습 : 깻잎

(13) 부루 : 상추

(14) 애기늑물

배추보다 죽은 거.

(15) 느물동

느물 위에 꽃피젠 행 날 때 건 느물동.

3) 농기구

(1) 잠대/쟁기

- ① 양죽머리 : 손으로 잡는거
- ② 성에 : 연결시키는 긴 나무, 잠대에서 제일 긴거.
- ③ 몽골 : 그 밑에 오그라져서 보섭질렁 땅 파는거.
- ④ 설칫 : 연결시키는거, 성에광 몽골쇠에 세워그냉에 몽골하곡 연결 시켜그냉 현 거.
- ⑤ 돌뱅이뿔(달뱅이뿔) : 성에 끝에 달뱅이 뿔이라고 끌로 구멍 뚫랑 쇠줄대 멩에를 메여놓고 줄대헤영 오리목 연결시키는 것.
- ⑥ 줄대 : 끈
- ⑦ 멩에, 쉼에, 쉼적괴 : 소를 묶는 거, 멩에로 고양을 딸라서 목을 메여주는 거라 멩에가 도망 안가게끔. 구르마 할 때도 메영 하는 거. 멩에행 풀해야 입에 탁하게 묶어야 쉼이 꼬성갈겨주게.
- ⑧ 가리석, 불입패 : 뿔에 영 묶어서 땡기는 거.
- ⑨ 보섭 : 보섭, 배. 보섭은 앞에 꼭허게 찌르고 요것이 보섭이엔. 앞 이 또로 이디 배태야 찢러야 쉼 뒤축트레 넘어갈 거 아니과. 이거 나미주 나무에 영 질렁.
- ⑩ 오리목 : 쟁기, 줄대 이스는 것. 보섭, 배섭을 끼워야 갈아질거난.
- ⑪ 벳

(2) 따비

따비는 요리라고 했어. 발로 원착으로도 허국 이착으로도 하국 하는 건디 불바서 숙닥숙닥하민 땅드리 밀드리 들어가는거 영 땅기구 발 론 질리구하민 들어가, 삼식으로 하는 건디 쇠로 이렇게 만들어졌어.

(3) 굴쟁이 - 호미

(4) 호미

낫. 출비는 낫. 엔날은 이렇게 자룩이 현밭, 두뽀, 너리 두뽀이라 이렇게 현 낫 대장간 가그네게 만들어다가 실들로 막 ㄱ는거라 밭디강 ㄱ라그네게 출을 비어났다 말이여. 어디서 보리비구 무시거 비는 낫 말고 큰 낫.

(5) 굴각지

(6) 도깨

고구리 타다그넝 따시 도개로 두드리고, (고구리? 건 뭐파?) 고구리는 조 이삭 잇잖아이. 이삭을 보고 고구리라고 했어. 보리 이삭 보고는 보리 고구리. 여기서 멍석이라고 하면 덕석잇잖아이. 덕석이 도개로 두드리면 빨리 헐어분단 말이여이 그 산디짚 잇잖아이 그 짚으로 엮은 건디 막대기로 계속 때려볼문 몇 번 안때려서 헐어져부러. 그 헐 것을 아까워서 그걸 깔지 못헿 그대로 땅바닥 우에 놔서 조 고구리나 보리 고구리를 두드렸어. 탈곡을 헐거지.

(7) 멍탱이

겨울에 짚으로 말이여이 이 저 동그랑허게 요렇게 해서 지금 항아리 모양으로 엮어그넝 현게 멍탱이라. 그러니까 그 멍탱이에 보리허문 보리도 농코 조허문 조도 농코.

(8) 두지

잘사는 사람은 두지라고 해서이 나무통을 이렇게 만들어 놔그넝 한구 석에 놔슴드로 거기에 보리도 농코 조도 농코. 엔날엔 제주도 똥돼지 잇지. 게민 도통에 거름을. 여름에 보리 해나면은 그레 해. 먹는 거 해나면은. 바다에 감태 이. 감태 올리며는 그저노코 해그넝. 그 도통에 막 논다 말이여 이. 게민 돼지가 똥 싸고 오줌 싸나민 막 질어. 게민 겨울, 고구마. 감저, 다 파드리곡 다 해나며는 그 거름을 내는 거라. 골채로 해그넝이. 골채 알아지나. 골채. 이렇게 생긴거. 으기 담 아놔으네. 쉼슴으로 막 떠낱 사름이 들어강으네. 밭곡 밭곡 해여. 물 아나민 쇠로 계속 볶는거라. 돌아가명. 어느 정도 사름댕기명 불리곡 허문. 그때는 보리씨를 막 뿌려. 보리씨. 뿌려그네 하민. 그것드레

막 혼잡이 되지이. 되민은 경허다보면은 그날을 고저 어둑어 가면은  
어떻하나민. 혼 군데 이렇게 낱. 둑 쌍. 다 모여봐. 모여노민. 뒷날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만은. 그걸 소스렁으로 탁 찍어그네 이. 멧탱이  
알아지나. 멧탱이. 멧탱이도 모르나. 너네. 아 저 거시기 산디짚으로  
헤그네. 저라그네. 멧명석. 그저 뭐 담는거 잇자나. 쌀도 담고. 이렇  
게 저라그네. (푸대마썸?) 허허. 멧탱이 몰라? 텔레비전에 보면은  
육지도 씨뿌릴적에 영해그네 그대서 막 씨 뿌리곡. 그거 담아놓 허는  
거. 막 짜그네이. 헛 걸로. (갈생. 영행. 영매는 거. 망태?) 어. 망태.  
그 것을 크게 만든다 말이여. 벧짚으로 크게 만들어 그 것에 다 담아  
와 경해그네에. 소이신 사람은 소로 싣거당 밧디 다 툃툃 다 해노코.  
소 어신 사람은 그 거 다 지게에 지아정 가는 거라. 거 갖다노면은  
여자들이 그 거름을 막 밧디다 뿌리는 거라.

## (9) 브른구덕

멧탱이는 짚으로 엮은 때문에 막 거칠고 또 거기에는 문지도 생기고  
말이여이 그니까 대게 브른구덕이라고 이서. 옛날은 보면은 구덕을  
대로 엮어서이 구덕을 상 쓰다가 혈면은 이걸 던져부는게 아니라 그  
걸 이제는 플로 발라. 플로 발르면은 구녕이 막아질꺼 아니, 구럼 그  
구덕에 그루도 놓코, 이제 그건 쯤 문지가 만나서 깨끗허니까 이 방  
애에 찍어온 쌀도 놓코 말이여이 이렇게 해서 살았어.

## (10) 씨망탱이독

씨 뿌릴 때 통에 담아 보관하는 곳.

## (11) 항아리

## (12) 얼멧이 : 체.

## (13) 돌방애

돌이 끌게끔 만들어놔서 이제 돌등에 짚어진 거 연지방아 긴 나무에  
돌이 뱅뱅뱅뱅 도는 거.

## (14) 정그래

주로 그루를 그는 거여



(15) 몰궂레

연자방아. 이젠 도리깨, 도리깨엔 허주마는 독깨로 다 두드렝. 거 불  
령. 거 몰궂레에 강. 거 연자방아 그디강 다 곶양. 아이고. 말못해.

(16) 독궂레

독궂레 우리. 독궂레 내어그넝에. 보리갈젠 허민. 독궂레 내주게.

(17) 쉼 : 쇠삼

(18) 멍석, 덕석

이 멍석은 예염에 멍석하든 돈 쟁 살건데 기주게 예염에 곶아 밧 왕  
영 뜨여나지 못허게 먼 디 뜨여봐도 영하면 걸을거 아니파 멍석은.

(19) 속박

(도깨로 영 털엉으네 도깨로 털면 뭇로 영 담아살거 아니파). 거사계  
속박, 속박으로 담아. 나무로 판 박세기가 이십주게.

(20) 근대

몰리젠허든 좌좌 널어사 할거난 예 뭇로 패윗수파?). 근대가 이시메.  
나무로 넓적하게 멘들엉으네.

(21) 클

조나 보리나 클이랜 해신가 조 고구리나 보리 고구리나 클로 잡아댕  
경 탁탁 털어지게들 흡니다. 그걸 도깨질허게 됩니다. 보리 흘뜰때  
보민 클 가정오라 경 궂릅니다.

(22) 돌빌레

(밭디강 보든 돌들이 허끔 많앙으네 못 심그꼭 허는디 뭐 영 심그지  
도 못하고 돌들 영 행으네). 돌빌레. 돌빌레 기레 이신덴 출을 낮으  
로 못 해주게. 돌빌레 이신덴 호미로 메주게.

(23) 머들

머들이 빌레주게. 머들들 이서노난 돌들 이서노난 그 말이주게.

(24) 묵계미

(출 행오든 묵어사될거 아니파. 묵을 때 출 몇 개 영행 삭 행으네 묵  
어나지 앗앗수과양. 출 조그맣게 행으네 감앙 묵으게 만든 거 뭇랜

안 굴아냈수과). 기거게 이녀양으로 영영 멘들엉 묶는거난 목계미엔 굴아.

(25) 늘

(소 메기젠흐른 누러살거 아니파. 거 뭐랜흡니까. 누르는거). 늘.

(26) 설피

(늘 늘젠하든 밑에 2냥 땅바닥에만 땅바닥에 영행 논게 아니잖아예. 풀 짓으카부덴 돌생기 2튼거 영행 해놓고). 아래 맨 땅에 하민 알로 습기창 씌으카부덴 경 2는거랜 굴으주. 게고 설피 2튼 거라도 해당 끌아주고. 설피엔 나무 가쟁이덜 물이 습기차지 말랜흐는 거난에.

(27) 노람지

(늘든 위에 영 덮어야 될 거 아니파. 어욱해당 영 잇었으네 덕는 거 이서나지 안해수과?) 아 덮으는거. 노람지. 게 이 저 노람지엔 혼건 큰 우리에 스용흡니다. 혼 오십 발이나 육십 발이나 노람지 몇 개 들 걸 미리 단도리행 놔둬주게.

(28) 추쟁이

이 추쟁이 이 저 우위에 덮으는 거 말하는 거 아니파. 싹허게 노람지로 허민 또로 이 추쟁이엔 혼건 혼어시 덕이지 안읍니다. 추쟁이엔 혼건 감저 씨 문을 때 조지락허게 허영 추쟁이주. 우린 기저 영행 물 민허게 건 저 술당으로 속속하게 물 흐치주. 흐리게토록 멘들어붙니다.

(29) 산태

무사 거 옛날에 걸림낼 때 보든 침으로 영 엮었으네 행 들렁댕기게 혼 거.

(30) 굴채

(혼자 영행 양쪽에 잡앙 딱 들리는거 이신디예). 굴채.

(31) 쇠스렁

(이 쇠가 막 거름한 것도 불라노난 푹푹 내려가실 거 아니파양 걸름 낼땐하든 그 저 영 행으네 땡겨야 될 거 아니파. 뿔로 걸러내낫수

과). 쇠스럼. 쇠스럼으로 딱딱하민 핏핑 오라집니다. 겹질 짚아 놓고 허난 이거 영 걸름 아니과 걸름 탁허게 지금 영허민 짹짹 몰아집니다.

(32) 지대/지계

(33) 돌사들

등그렇게 노를 꼬아서 만드는 거여 돌치우고 하는거 이서. 골채말고.

(34) 팽이, 목팽이, 석팽이

양편이 빨 돌은 목팽이, 돌도 치우고 땅도 파는 거.

(35) 갑빠

곡식 타작할 때 밑에 깔아서 하는 거.

(36) 갈래죽

끓어그냉 푸는 거.

(37) 산태

두 사람이 앞이 들르고 뒤에 들르고 초가집 지시는 흠을 막 띠어서 바르잖아. 흠도 들르고 발디 강 큰 돌 일어나민 그 것에 들어냥 들러당 비와불고.

(38) 작딴

출씨는거.

(39) 남태

요만큼 통글랑한것에 낭에 요만큼씩한 몰발굽을 만드는거라. 남태랜 헌건 요만한 큰 통나무에 저 발을 딱딱딱 그 구멍 뚫영 다 만들어 놓주게 발통 요만씩 행으네 박양으네 양 쪽 고리행 몰로 꺾게끔 마차식으로 행 발을 불러났주.

(40) 췌괴/지렛대

동글랑 쇠로 돌 일르는 괴.

#### 4) 기타

(1) 헝주리 : 겹질

(2) 검질 : 잡초

(3) 출

이 출은 기자 목작허게 졸랑 영 캐어당 소나 주고.

(4) 새

새는 이만이 건거. 건거 기껏 곶앙 새엔 곶앙. 새 해당 집 올립니다.

(5) 낭태

이런 통나무를 말 발굽까지 축 박아가지고는 이제 둥그러서 쫓는거야  
몰태우리랜 하거든 겐디 낭으로 만들어서 낭태랜 하는 거여.

## 6. 어업 관련 어휘

### 1) 수산물

(1) 메역 : 미역

(2) 툄

툄. 툄이랜. 요새 툄이랜 허는다. 툄잇지? 툄. 여름에는 바다에. 이  
바다에도 툄이 그렇게 많이 나서.

(3) ㄱ매기.

(4) 무릇

태풍이 심해 낫수다게. 게갯바위 용석에 용석이 영 아니되어 또로 제  
국시대난 공술로 몬 가져가비여. 거난 무릇이엔 한 게 이서. 그걸 구  
웁들 먹엇수다게. 이 식량이 열 가마 썩 수입을 올렸다 집의 가져오  
랏다면 혼가미쓸되니 몬 털어가벼.

(5) 문게 : 문어

(6) 보들락

(7) 우럭

(8) 객주리

객주리도 보든 요만이한 오린세기가 있고 회색 거무스름하게 큰 거

있고 경칩니다.

(9) 남태

남태로 중간에깎진 하당 이제는 조 불리는 사람이 잘 어서. 이제는 발로도 불량합니다게. 옛날에는 몰로 불령으네 막대기로 영 찍어뵈 탁하게 들어가민 아이되고 막대기가 아이 들어갈 정도로 이 몰로 불 립니다.

(10) 구쟁기/소라

(11) 생복/전복

(12) 해섬/해삼

(13) 우미/우뭇가사리

(14) 갯뚝

(15) 에리

(16) 복쟁이/복어

(17) 생뻥이/작은 고동

고동 존존한 것 곶양 생뻥이 생뻥이 허주.

(18) 거꾸메기/전복 새끼

전복 새끼 곶양은 거꾸메기.

(19) 오분제기/오분자기

(오분제기가 작은 전복 아니짜?) 아니 오분제기가 죽은 전복 아니 오 분제기는 딴 디 영 또 먹는 거주. 그거가 쉘 맛 좋은 거라.

(20) 말뚝성기/말뚝성계

말뚝성기엔 현 건 훑은 것 곶양 성기. 거멍현 성기 어서계.

(21) 몰망이(뭍)

뭍. 옛날엔 몰망이 몰망이 헤낫주게.

(22) 긴저리

긴저리렌 현건 바당에 긴 긴 허게 버슨 거 걸름허는 거.

(23) 솔래기/옥돔

요즘엔 옥돔 옥돔 허는 솔래기. 옥돔 잡아당 옷부락에 강 쌀도 바팡

먹고.

## 2) 해녀 관련 어휘

(1) 속곳

해녀옷

(2) 적삼

우이 또 적삼 닳은 거 만들지이. 영 샷스뒹게 영 알 풀아지게 해영헌 광목으로이.(물질 할 때 위에 입는 옷)

(3) 눈

물안경. 이제난 안경 안경 허주 옛날엔 눈이랜 해났저. 이제사나 큰 거 남쭈 쪼끄만한 거 눈에만 꼭 허게.

(4) 망사리

(구쟁기랑 전복이랑 따그네 담아놓는 통 있잖아예?) 아. 망사리.

(5) 태왁망사리

(거 한꺼버넝 들렁 다니는 건 뭐랜 해수파?) 태왁 망사리. 태왁도 돌아지고 망사리도 돌아지고 헌 건 태왁망사리.

(6) 태왁(꼭태왁)

지꾸는 거. 사람이 지꾸는 거. 꼭 심거그넝 꼭 박새기 열앙 그 놈을 반씩하게 딸랑 그 속읍에꺼 헤여비동 고망 잘 막앙 그 놈을 막 열거 그넝 태왁 멘들안. 망사리는 이제 남총 거죽 벨경 그 놈을 노 짜 그 물로 짜그넝 아니면 두레가민 헤영한 민부쟁이 빠다 말리와그넝 그 놈 속읍 다 빠동 폭삭 두드렁 그 놈을 깨여그네 막 노짜 그걸로 망사리를 몬나. 모자그네 이제 볼래낭 불에 구멍 오그렁 창창하게 마주하게 요만하게 만들앙 망사리를 도라.

(7) 비창

(전복 ㄱ튼 거 막 돌멩이에 붙영이시민 막 떼야될 거 아니예?) 비창. (예?) 비창으로. (비창으로?) 어. 췌로 된 거 만드는 거 비창 이시네.

- (8) 소살  
물고기 잡는 거.
- (9) 골래기, 쉼가죽 골래기  
태왁 받치는 거.
- (10) 호미  
미역할 때.
- (11) 호맹이  
굴갱이 째는 거.
- (12) 양밭/양말  
양밭 울으레 째 신잉으네 요래 고물 딱 담앙 저디 갈 때나 올 때나 이  
돌바꾸만 밟는 따른 (물질할 때).

### 3) 어업 관련 도구(배 포함)

- (1) 주낚  
낚시 도구. 솔래기 주낚 땡기곡. (주낚이 뭐마썸?) 주낚. 주낚도 모  
르는구나. 고기 잡는 거. 주낚. 고기 잡는 건디. 낚시. 훈발가웃에 낚  
시 하나씩 메어. 줄. 이거 줄이면은 이? 훈발가웃에 낚시 메어 그냉.  
해그네이. 그걸 상자 이마니한 상자에 다 사려와그네에. 낚시 나오면  
은 그 우에 꼭 짚르곡 또 사려노타그네 또 짚르곡. 짚르곡. 팽돌아가  
민 120가락이라이? 낚시만이.
- (2) 풍선  
바람을 타는 배. 돛단배. 풍선으로 가민. 돛대가 두 개주게. 허난 큰  
것. 허난 적은 거. 계면은 큰 초석은 째 뇌뵤. 죽은 초석만 돌앙. 바  
람에 싹싹 배가 가.
- (3) 터배  
자리 거리는 거.
- (4) 나무배  
(배에 크기별로 다른 이름은 어서난 마씨?) 큰 배, 죽은 배, 구멍이.

어선에 한건 큰 배 (몇자짜리 배)

(5) 등미리/뉘시 미끼

오징어 종류데 오징어추룩 된건디 발이 짧아.

#### 4) 기타

(1) 개마

항구. 옛날에는 사람 혼 몇호만 살 적에 갯머리. 갯머리해나서. 갯머리. 갯머리 왜 갯머리라고 했냐. 개마. 개마시 무싱거라. (항구) 그렇지. 개마시. 항구 배 메는 데라.

## 7. 축산업 관련 어휘

### 1) 가축

(1) 소

① 검은쇠

② 노른쇠

③ 어력쇠

(이상 색에 따른 분류)

④ 금송송애지 : 1살

⑤ 다간 : 2살

⑥ 사릅 : 3살

⑦ 나릅 : 4살

⑧ 부랭이 : 수소

⑨ 암쇠 : 암소

⑩ 숙쇠

숙쇠도 이서.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숙쇠 많이 생산험성게. 숙쇠는 어떤 쇠나쁜. 검은 줄로 영 굿어지곡 노린 줄로 굿어지곡 또 검은 줄로 굿어



지고 노린 거 잇곡, 또 검은 줄로 굶어지곡. 금이 작작 굶어지주게 그 것보고 속쇠렌 헤여.

(2) 물

- ① 일가라
- ② 이청총
- ③ 삼적다
- ④ 스월라
- ⑤ 오육마
- ⑥ 육거울
- ⑦ 칠(...)
- ⑧ 팔백매
- ⑨ 구(...)

(이상 색에 따른 분류 : 그러니까 물이 말이여, 검은 물을 일초로 알아  
쫓거든. 겐디 왜 검은 물을 일초로 알아주냐면 겨울에는 풀만 먹으니까  
피부가 거칠고 색이, 피부색이 기름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깨끗이 곱게  
안보이다가 이 그 말이 봄 되어서 들판에 가서 새싹이 돋앙 움트는 풀  
을 먹으면 한 일 월만 먹으면은 그 물이 막 술져서 털 빛이 말이여 거기  
에 햇빛이 비치면 반짝반짝 빛이나. 그 검은 색이 그렇게 곱게 보인다  
고 해서 일가라해서 처음 택허기를 검은 물을 택한 거라.)

- ⑩ 금승 몽생이
- ⑪ 이수 몽생이
- ⑫ 삼수 몽생이
- ⑬ 사수 몽생이

(이상 나이에 따른 분류)

- ⑭ 움메 : 수말
- ⑮ 즈메 : 암말
- ⑯ 청총 몽생이

청충 몽생이는 햇도록 허곡 거무룩허곡 헌거고. 청충이. 희곡 검곡 영  
헌 거 보고 청충 몽생이랜 허곡.

⑰ 월나 몽생이

또시 월나 몽생이. 월나몰. 월나몰은 요런디는 노랑허곡 요런디는 또  
희양허곡. 요 중간에 희양허곡. 요 주름드렌 또시 노랑허곡. 것보곤 월  
나몰이랜 해여.

⑱ 황골

또 눈틀린 물이 잇주게. 거 무신 눈이랜. 황골. 황골이랜 허주게. 황골굴  
이 눈이 사무랍덴 해. 눈이 그추룩 황골진 물이 이서. 누리름헌 물.

⑲ 화댕이진 물

화댕이진 물이랜헌 거 알아져? 화댕이진 거. 응. 화댕이진 거는 물이  
영가당 영 오모록하게 들어간 걸 영 행. 영헌 걸. 화댕이진 거랜 허곡.

⑳ 꼬부랭이 물

또시 물이 요건 야가지면 영 강. 영 곱췌모양으로 영 튀어난 물은 꼬부  
랭니 물이랜 허곡. 정해 낫는다.

(3) 기타

① 돛/달

② 장돛(수돛)

③ 도세기: 돼지.

2) 축산업 관련 도구

① 쇠막

집집마다 쇠막이라고 해서 움막을 메엿어. 초집으로.

② 물막

③ 독수렁

낮에는 독을 집에 그대로 내비연. 방사이. 그러니까 낮에는 방사되고  
밤에는 야수덜이 족제비나 고양이 골은게 물어가니까 집 안에 놓는데

집 안에이 독수렁이라고 해서 선반을 메여, 그걸 보고 독수렁 독수렁 허주.

④ 몽덩이

긴 막대기를 손에 잡거든, 그 몽덩일 들렁 '황~' 허믈 쇠가 이쪽으로 여렇게 가곡.

## 8. 신체명칭

- (1) 대가리 : 머리
- (2) 귀마리 : 발목
- (3) 귀마리 뼈 : 복숭아 뼈
- (4) 볼딱싸니 : 뺨
- (5) 발꼬랙이 : 발가락
- (6) 눈터럭 : 눈썹
- (7) 오야지 유비, 상손가락 : 엄지손가락
- (8) 어금손가락 : 검지손가락
- (9) 구스리유비 : 4번째 손가락
- (10) 콧잔등이 : 코
- (11) 입주덩이 : 입
- (12) 배또롱 : 배꼽
- (13) 흘목 : 손목
- (14) 독지 : 어깨
- (15) 모가지, 야가지 : 목
- (16) 팔대기 : 팔
- (17) 뒷고개 : 뒷목
- (18) 팔꿈지 : 팔꿈치
- (19) 임덩이 : 이마

- (20) 등허리, 등어리 : 등
- (21) 뒷대가리 : 뒷통수
- (22) 가슴패기 : 가슴
- (23) 아굴턱 : 턱
- (24) 손콥 : 손뚝
- (25) 발콥 : 발뚝
- (26) 꿏자라기 : 꿏볼
- (27) 꿏고망 : 꿏속
- (28) 귀아지 : 귀
- (29) 갈빋대 : 갈비뼈
- (30) 배아지, 배때기 : 배
- (31) 니빨, 녀 : 이
- (32) 장지패기 : 엉덩이
- (33) 종에 : 다리
- (34) 불타가리, 불째 : 불
- (35) 입바이 : 입술
- (36) 동무릎 : 무릎
- (37) 엄지발가락 : 상발가락
- (38) 세 : 혀
- (39) 직깁이 : 겨드랑이
- (40) 향문 : 또꼬냥
- (41) 걸늬 : 송곳니
- (42) 허벅다리 : 허벅지
- (43) 물흙 : 쇠골

## 9. 기타

### 1) 식물 관련 어휘(나무)

#### (1) 구럼비낭

보리가 필 때 되민 저 구럼비가 열아그네 열앙 까맣게 막 여름에 지락지락 열아. 구럼비낭도 암코 잇고, 수코 잇어. 수코는 안 열고, 암코는 열아. 그 낭은 어디가 많으나허민 가름 안에 집 뒤에만 그런 거 많이 심겨. 이 어디 4·3 사건에 영 강보민 구럼비낭 흐나쫘 두 개쫘 이신디 '아~ 으던 엔날에 집 짓어 낫구나.'

#### (2) 동박낭 : 동백나무

#### (3) 숙대낭

#### (4) 수리대

대구덕이엔 대구덕이엔 헐 때 이 수리대 대구덕이 전신이주.

#### (5) 대낭 : 대나무

#### (6) 왕대 : 고기 나끄는 거. 바다에 강 고기 나끄는 거.

#### (7) 돛가레낭

### 2) 단위

#### (1) 훈칭

100근 60kg. 훈칭이 일곱 칭 요덥 칭, 보통 메역을 허주게. 훈 칭이 몇 근이라? 훈칭이 백근. 백근이든 몇 키로라? (60kg) 60키로지? 그추룩헌거 일곱 개, 요덥개 훈 집이 허주게. 마른거.

### 3) 혼례

#### (1) 대반, 우시

들러리. 그거 새신부 옆에 아즌 대반이렌 허주게. 옆에 아즌 사람이 이. 들러리. 요즘 곱으믄 이. 거 웃각시 들러리렌 허는다.

(2) 떼깨

가마. 엔날에는 시집. 장가 갈 때 색시가 탕으네 오는 걸 뭐랜 허느냐? 질문 허드라고. 딱 손들어. 그 엔날에는 거보고 떼깨엔 해서. 떼깨. 가마보고. 가마. 가마지. 가마. 그 떼깨 속음에 여자가 탄다 말이여.

**4) 놀이**

(1) 니끼름타기/썰매타기

아이들 나무 허여서 나무 이렇게 위디 조르륵 찢러서 못 박아서 자륵 찢러서 영 높은 동산에 가서 그 눈 많이 온 때는 그 니끼름 타는 거 자륵 심어서.

(2) 고불락/숨바꼭질

(3) 공기

공기치는 거. 돌맹이해서 이렇게 허는 거.

(4) 닉두빼기

나무가 요만은 질게 해서 확 데껴그네 이것저 뭐 패여 토여 허지 큰 일 밧디 선.

(5) 옷

자그마한 거 으만은 헌 거 해그네 찢끄마한 요런 종지에 담아서 영영 영해서 짝 놓고.

(6) 그 외 팽이치기, 연날리기, 자치기 등 표준어와 동일.

**5) 열매 : 여름**

(1) 탈

5월 장마에만 드르에 밧에 그 길 위에 다 나 그거 굴아 탈. 경행 그거 탈 타먹당 보민 쉼은 곧 맥이당보민 기어들어 도망 어드레 비어그네 좇고 경해낫주.

(2) 깃가시

가시 가작하게 돋은 거 잇주. 깃가시 여름 이제 드룻 강 보민 그거 열  
양 빨강에 열아잇어.

- (3) 유름. 도레
- (4) 돌또리 : 도토리

## 6) 바람

- (1) 셋벼름 : 동풍
- (2) 갈벼름 : 서풍
- (3) 마벼름 : 남풍
- (4) 하늬벼름 : 북풍

# 민요

## 〈 목 차 〉

- |             |             |
|-------------|-------------|
| 1. 발 밟는 노래  | 7. 해녀 노래    |
| 2. 발 매는 노래  | 8. 갈치 낚는 노래 |
| 3. 타작 노래    | 9. 차장가      |
| 4. 마소 모는 노래 | 10. 성주소리    |
| 5. 맷돌 노래    | 11. 행상 노래   |
| 6. 방아 노래    | 12. 동요      |

## 1. 발 밟는 노래(땃 불리는 소리)

① 조사일자 : 2003년 8월 8일

제 보 자 : A(앞소리)-현봉화(여, 76세)

B(후렴)-고경하(여, 79세), 오순옥(여, 71세), 송오생(여, 72세)

조사장소 : 세화 2리 노인회관

A: 어러러허 어러러러 어호오 덜덜 어러덜덜 어어어웅 어으흐 덜덜

B: 어러러허 어러러러 어호오 덜덜 어러덜덜 어어어웅 어으흐 덜덜

A: 어혈덜허 오오흥 어러렁어 더렁

B: 어러러허 어러러러 어호오 덜덜 어러덜덜 어어어웅 어으흐 덜덜

A: 요놈의 망아지<sup>1)</sup>들아 으흥 유월절 전후 삼일을 몰랐구나 어흐렁 어  
응 흥 어 덜덜



B: 어러러허 어러러려 어호오 덜덜 어러덜덜 어어어응 어으흐 덜덜

A: 어어려 으응 어러려 어허허 얼더엉 으을 으을덜 돌돌돌

B: 어러러허 어러러려 어호오 덜덜 어러덜덜 어어어응 어으흐 덜덜

A: 요놈의 적다 뭇생이 이히이 말 아니 들엄구나<sup>2)</sup>으응덜 어얼돌

B: 어러러허 어러러려 어호오 덜덜 어러덜덜 어어어응 어으흐 덜덜

A: 어허러어 어허령헐 오오홍덜 월월 월월 어러러려

B: 어러러허 어러러려 어호오 덜덜 어러덜덜 어어어응 어으흐 덜덜

A: 이이러나 으흐으 어얼덩오 어얼동 어얼덜헐 오오홍 으으으 러러려  
으어어워 얼월월 어러려

B: 어러러허 어러러려 어호오 덜덜 어러덜덜 어어어응 어으흐 덜덜

A: 어허러얼 어러령 어허허허 얼더엉을 얼덩어 헐덜덜덜

B: 어러러허 어러러려 어호오 덜덜 어러덜덜 어어어응 어으흐 덜덜

A: 테우리<sup>3)</sup>이 가는 데로 오호옹 들어서 보호홍 어얼덜 월월옹흐을응  
워얼 어러어려 어령

B: 어러려 어덜덜 테우리 가는더레로 들어서라 어덜덜

② 조사일자 : 2003년 8월 8일

제 보 자 : 김성준(남, 74세)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세화 1리)

어허라 어허라 으 어허야 어라 월도호 어허라하허어야 어러야 오호야  
일가라<sup>4)</sup>이 청중<sup>5)</sup>삼적다<sup>6)</sup>사월라<sup>7)</sup>오유마<sup>8)</sup>육구렁<sup>9)</sup>칠거을<sup>10)</sup>팔자

1) 망야지, '망야지, 뭇생이'라고도 함

2) 말을 듣지 않는구나

3) 주로 말과 소를 들에 놓아 먹이는 일을 하는 사람 또는 목동

4) 새까만 말

을11) 구고라12) 십백매13) 열빠리

한수룩이면은 요 밭은 넉넉히 불리고나14)

어아와아 어허라 어허라 으허야 허어라월도호 어허라 허어야 어러야 오  
호야

즈근년아 도15)에 강 어두레16) 셋망태기17) 아정오라 어허오오 초불  
불리고 두불 불려그네18) 나가게

에헤 에으하 하아으허 어어호어 어자아하 아하

③ 조사일자 : 2003년 8월 9일

제 보 자 : 강신경(여, 73세)

조사장소 : 세화 1리 노인회관

어려려허 어려려려 어려려려 덜덜덜 어려려려 아 호오 어려려어려려려  
송나게 말앙 뱅뱅 노다들고 오우 돌아그네 잘 둘러아 장통19)대영 몰자  
국에 물 끌르민 곡석이 잘 아니된다.

어려려허 어려려려 어려려려 덜덜덜 어려려려 어으아 어려려아

초불 설라그네20) 송나게 말앙 줍씨 빼어그네21) 두불 설라사 한다22)

- 
- 5) 까만 말에 흰털이 박힌 말
  - 6) 노르스름하면서 붉은 말
  - 7) 콧대가 흰 얼룩말
  - 8) 갈색, 노랑말
  - 9) 검은 갈색 말
  - 10) 주둥이 회고 배가 흰 말
  - 11) 흰색에 점이 있는 말
  - 12) 회면서도 총,갈기가 검은 말
  - 13) 흰말
  - 14) 넉넉히 잡아서 밟아라
  - 15) 밭입구
  - 16) 돌을 쌓은 것(점심 먹을 때 앉아 먹기 좋도록)
  - 17) 씨를 담은 망태기
  - 18) 한 번 밟고 다시 밟고
  - 19) 움푹 패어 들어가서 비가 내리면 물이 잘 고이는

어러러 잘 테우리 일해영 잘 이끄라

어려려허 어려허아 어려려려 어흐아 어려려 어려려려 덜덜덜 어려하

④ 조사일자 : 2003년 8월 10일

제 보 자 : 송자길(남, 66세)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세화 2리)

어려려허 어려려려 어허려려 어어려으

저놈의 몰들아 혼저혼저 붉으라 보게 어려려려 어려어려 어려려 어흐어  
려 오로로로

을로23) 뱅뱅 돌아라 아흐아아 아아아아 요 몰들은 으으으 어려어려 오  
로로로

## 2. 발 매는 노래

### (검질 매는 소리-아웁기 · 흥애기 · 사대소리)

① 아웁기 소리

조사일자 : 2003년 8월 8일

제 보 자 : A(앞소리)-현봉화(여, 76세)

B(후렴)-고경하(여, 79세), 오순옥(여, 71세), 송오생(여, 72세)

조사장소 : 세화 2리 노인회관

A : 허이야 도레 방아로구나

B : 아아양 에에양 헤에이요

---

20) 줍씨가 덜 뿌려진 곳

21) 뿌려서

22) 설라지 말아야 한다. 즉, 줍씨가 골고루 나아한다.

23) 여기로

- A : 검질 짓고<sup>24)</sup>            끝너른 밧되<sup>25)</sup>  
B : 아아양 에에양 헤에이요
- A : 앞명에<sup>26)</sup>            야들어나 오라  
B : 아아양 에에양 헤에이요
- A : 뒷명에<sup>27)</sup>            야나고나 가라<sup>28)</sup>  
B : 아아양 에에양 헤에이요
- A : 유월 종즈는            누워둡서로 바랜다<sup>29)</sup>  
B : 아아양 에에양 헤에이요
- A : 칠월 종즈는            서둡서로 바랜다<sup>30)</sup>  
B : 아아양 에에양 헤에이요
- A : 팔월 중에            돌아나오민  
B : 아아양 에에양 헤에이요
- A : 목내 피양            오거서나 진다.<sup>31)</sup>  
B : 아아양 에에양 헤에이요
- A : 구월 상강일에        돌아 나오민  
B : 아아양 에에양 헤에이요
- A : 추수 동장동            헤여나 간다.  
B : 아아양 에에양 헤에이요

② 조사일시 : 2003년 8월 9일

제 보 자 : 감신경(여, 73세)

---

24) 김이 무성하고

25) 이랑이 넓은 밧에

26) 앞쪽에 있는 밧머리

27) 등뒤에 놓인 밧머리

28) (밭을 가는 이를 중심으로) 앞명애가 오고 이미 간 뒷명애가 지나가라. 즉, 일이 빨리 진척되기를 바라는 상황

29) 조가 아직 자라지 않아 누워야 볼 수 있다

30) 조가 조금 자라 서서 볼 수 있다.

31) 조가 익으면 무거워서 고개가 수그러진다.

조사장소 : 세화 1리 노인회관

검질 짓고      끌 너른 밧디  
아아양 에야에요  
앞명에랑      들어나 오라  
아아양 에야에요  
뒷명에랑      들고나 가라  
아아양 에야에요

- ③ 조사일자 : 2003년 8월 10일  
제 보 자 : 송자길(여, 66세)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세화 2리)

아아아양 아헤헤양 허어요  
앞명에야      들어나 오라  
아아아양 아헤헤양 허어요  
칭천한 하늘에 존별도 많고  
아아아양 아헤헤양 어허요  
검질 짓고      끌 너른 밧디  
아아아양 아헤헤양 허어요

- ④ 사데소리(쯔른 사데)  
조사일자 : 2003년 8월 8일  
제 보 자 : 현봉화(여, 76세)  
조사장소 : 세화 2리 노인회관

어야 헤엥허야 사데로구나  
사데소리랑      느직아직  
검질소리랑      즈직즈직<sup>32)</sup>

훈 사데            두춤 반씩<sup>33)</sup>  
어야디아        사데로구나

⑤ 흥애기 소리

조사일자 : 2003년 8월 8일  
제 보 자 : 김성준(남, 74세)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세화 1리)

허허야 도오야 방아로구나  
아아양 아호으 아아양 으호어요  
앞명에랑        들어나 오라  
아아양 아호으 아아양 으호어요  
뒷명에랑        물러나 간다.  
아아양 아호으 아아양 으호어요  
할로산<sup>34)</sup>        언 중허리에  
시름이            든송 만송  
아아양 아호으 아아양 으호어요  
서귀포            앞바다에  
해녀가            든송 만송<sup>35)</sup>  
아아양 아호으 아아양 으호어요

---

32)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33) 두 춤 반씩. 김 매는 소리를 한 번 하면은 이에 맞추어 힘을 내고 김을 두 춤 반씩 힘껏 매어 가자는 뜻

34) 한라산

35) 보일 듯 말 듯

### 3. 타작 노래(마당질 소리, 도깨질 소리)

- ① 조사일자 : 2003년 8월 8일  
 제 보 자 : 현봉화(여, 76세)  
 조사장소 : 세화 2리 노인회관

에야 흥	어어 에야아 흥	에이야 흥아
앞가슴을	하늘에 배우고 <sup>36)</sup>	
생일 <sup>37)</sup> 에도	호사가 시냐 <sup>38)</sup>	
어여어 흥	에야아 흥아	
들어사고	나아사고	
요것이 생곡 <sup>39)</sup>	어여어 흥	
에야아 흥아	어야도 흥	
보리고고리 <sup>40)</sup>	꺼끄로옴허다	
애기에야	저래가라 <sup>41)</sup>	
도깨끗을	마지여는	
이마때기	대꼭시리 불린다. <sup>42)</sup>	
어어야 흥	아에여어 흥	아에야도 흥
양끗잡앙	체친듯 허라 <sup>43)</sup>	해애도 흥
양끗잡앙	궁뎡이를	
방에를 지고	긱쟁이를	하늘을 배우라

36) 보이고

37) 힘든 일

38) 예쁘게 하지 말아라

39) 生穀 타작이 덜된 이삭

40) 이삭

41) 보리 이삭이 따가우니까 애기야 저리 가라.

42) 도깨질 하다가 도깨 끝에 이마 맞으면 혹 생긴다.

43) 양끝을 잡아서 채치는 듯 하라. 멍석의 양끝을 잡아서 곡식이 잘 섞이도록 마무리를 해라.

에야도 흥	어이야 하야	하여허 흥아
요내상착	없어진들	
진명ㄱ지	도깨가	
어덜가서	엇일만가	
에야도 흥아	에야도 하야	

② 조사일자 : 2003년 8월 8일  
 제 보 자 : 김성준(남, 74세)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세화 1리)

에야도 흥	허어흥흥	
요레저레	때려나보자	어아 흥아
앞으로때령	뒤호로서라	
뒤으로사명	물러서명	때려나 보라
어어 호요	허야 호아	
올로으레 <sup>44)</sup>	때려나보자	
복삭복삭	므사나진다	
어허 흥 어허	웅 허야 지네	허어 흥 허야 흥
앞으로 때령	뒤호로 물러성	때려나보라 아하

③ 조사일시 : 2003년 8월 9일  
 제 보 자 : 강신경(여, 73세)  
 조사장소 : 세화 1리 노인회관

어야 흥	어야 흥	어야 흥아
어야도 흥	어야 흥	어야 흥아
앞드레	두드리라	

44) 요리로 요리



뒤드레	두드리라 <sup>45)</sup>
이어 다음	두들기라
어야 흥아	어야 흥아

#### 4. 마소 모는 노래(마쉬 모는 소리)

- ① 조사일자 : 2003년 8월 8일  
 제 보 자 : 김성준(남, 74세)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세화 1리)

어려려어 저려저어 어디로 나아 허져 어허오허  
 이 몰아 느 팔자 나 팔자 하로종일 길을 팔자로구나  
 허려려허 어려려려 허져오허 어허려어  
 나 요오 어디로 나아 어허호어 허려저하

#### 5. 멧돌노래(ㄱ래 ㄱ는 소리)

- ① 조사일자 : 2003년 8월 8일  
 제 보 자 : 현봉화(여, 76세)·송오생(여, 72세)  
 조사장소 : 세화 2리 노인회관

이연 이연	이여동 ㄱ래
산댕 허나	홍홍 만댕 허나 <sup>46)</sup>
붉은 양지에	지미나 보라

45) 앞쪽에 뒤쪽에 끌고루 두드려라.

46) 산다고 하나 못산다고 하나.

이연 이여동	허른 흥흥 이여동 ㄱ레
양반 거래에	첩으로 들지마랑 <sup>47)</sup>
산마목자 <sup>48)</sup>	아내로 들라
양반 거래에	첩으로 드난
훈달에 양식 <sup>49)</sup> 은	흐음 서말이로구나
훈달에 양식은	서말이고
서다 <sup>50)</sup> 보면	세불 <sup>51)</sup> 이여
이어 이어흥	이어동 ㄱ레
므신 것가	흐음 상덕이르나
진명 고지	도외남 막계 <sup>52)</sup>
나 손에 팽이가	흐음 상덕이로구나
ㄱ랑 줍쌀 <sup>53)</sup> 은	늑엇이 먹엉 <sup>54)</sup>
다슴 어멍 <sup>55)</sup> 은	말엇이 살라
이어 이여	이여동 ㄱ레
얘기야 훈저	자불라 흥
보리쌀 굴앙	저낙허게
이여이여동 허라	흥 이여동 ㄱ레
우리 어머니	날 설아올때 <sup>56)</sup>
어느 바당	메역국 먹읍데강
브름칠적마다	절고개마다 날 울리는구나

---

47) 양반 돈 거래에 첩으로 들지 말라.  
 48) 산에서 마소 모는 사람·목동  
 49) 양식  
 50) 서답·빨래를 뜻함  
 51) 세 벌  
 52) 복숭아 나무방망이  
 53) 자디잔 줍쌀  
 54) 늑엇이 먹으며  
 55) 의붓어미  
 56) 설 때(얘기 설다)

우리 아버지	날 술아올 때
어느 대왔57)	죽신58)을 먹읍데강
므디므디	날 올린다.

### 6. 방아노래(방에노래 · 남방에 소리)

- ① 조사일자 : 2003년 8월 8일  
 제 보 자 : 현봉화(여, 76세)  
 조사장소 : 세화 2리 노인회관

이여도 방에	이여도 방에	이여도 방에
방에지영	역들영보라	
치맏다리	다떨어졌져	
이연이연	이여도 방에	
세콜방에59)	새글러오나60)	
가스름61)에	강당장침의62)	
세콜방에	새글렀구나	
우리 삼형제	들어사니	
세콜방에	새마자진다.63)	

57) 대(竹)밭

58) 죽순

59) 셋이 찢는 방아

60) 그 사이가 어긋나서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 세 사람이 방아를 찢어서 박자가 잘 맞지 않아 작업 상황이 어려운 상태

61) 가시오름(지명.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소재)

62) 강당장 집에,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康堂長 집. 대부호였지만 지나친 물욕으로 풍수에 밝은 스님을 박대했다가 온갖 이변이 일어나 삼시간에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음.

63) 박자가 맞아 진다.

이연이연	이여도방에
방에지영	역들영보라
우리방에	몰방에여
공공지고	몰방에여
이연이연	이여도방에
방에지영	역들영보라
초신짜을	거꾸로 신고
이연이연	이여동하라

- ② 조사일시 : 2003년 8월 9일  
제 보 자 : 강신경(여, 73세)  
조사장소 : 세화 1리 노인회관

이어이어	이어동허라
이어이어	이어동허라
이어이어	이어동허라
남이영	질룬 <sup>64</sup> 아기
남이집에	가민
불쌍히 굶영	잘 살아야 한다.
이어이어	이어동허라
이어이어	이어동허라

## 7. 해너노래(해너 네 젓는 소리)

- ① 조사일자 : 2003년 8월 8일  
제 보 자 : 현봉화(여, 76세)

---

64) 남이 키운 아기

조사장소 : 세화 2리 노인회관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요넬젓고 <sup>65)</sup> 흥	어데나 가리	
진도바당 <sup>66)</sup>	젓고나가자	이어도사나
물로나 뱅뱅	돌아진 섬에 <sup>67)</sup>	
삼식끓엉	물질허멍	
한푼 두푼	모아논 금전	
서방님 술값에	다들어 감져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안여밧여	숨은여 <sup>68)</sup> 새로	
호향천리	감도라든다.	
이어도사나 히	이어도사나 히	
물때 점점	늦어나감져	
이물 <sup>69)</sup> 에는	이사공아	
고물 <sup>70)</sup> 에는	고사공아	
허릿대 <sup>71)</sup> 밧디	화장수 <sup>72)</sup> 야	
물때는 점점	늦어나감져	어서나 젓자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동히바당	썰물이어	
서히바당	들물 <sup>73)</sup> 이어	

65) 요 노를 젓고

66) 진도바다

67)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

68) 바닷가 바다가 얇거나 조수가 썰 때 나타나 보이는 돌 따위

69) 배의 앞쪽을 일컬음

70) 배의 뒤쪽 부분

71) 배의 허릿칸에 세운 돛대.

72) 화장수·화장이라고도 함. 배에서 불 때는 일을 하는 아이

73) 밀물

요네상착 <sup>74)</sup>	부서나진다.	
대마도 상착	곶은 남 <sup>75)</sup> 이	
어덜 가고	없을말가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요네야 상착	부서나진들	
부산항구	아사히노가	
어덜가공	없을말가	
이어도차라	이어도차라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여촌 영업 <sup>76)</sup>	네온눔아	
천년가도	원수로구나	
만년가도	원수로구나	이어도사나
두렁박 <sup>77)</sup> 은	원득질 메고	
흔골빗창 <sup>78)</sup>	구부레 차고	
천지소를	들어나가니	
나이 생명	갈곳없네	
히 쳐라 쳐라	이어도 쳐라 히	
한목을	갈 때 나가게	
늪이야 배는	솔나무 배고	
설렁설렁	잘도야간다.	
우리야 배는	석은 나무 덕더리어 <sup>79)</sup>	
이어도사나	헛 이어도사나	
막집이 <sup>80)</sup> 도	므루가 있는데	

74) 요 노의 상착, '상착'이란 노의 상반부

75) 나무

76) 해촌영업·해녀작업

77) 테왁

78) 바다밑에서 전복을 캐는 데 쓰는 도구

79) 모양이 정연치 못한 나무토막

요 네 상척      므루가 없나  
쳐라 쳐라      이어도쳐라

- ② 조사일자 : 2003년 8월 10일  
제 보 자 : 김세현(남, 67세)  
조사장소 : 세화 2리 마을 밖

술술가는      솔나무배야  
잘도 나간다      우리나라 배는  
요눗댕이      저눗댕이  
뿔을 먹고      살젓느나  
바람을 막고      살젓는가  
지름통<sup>81)</sup>을      마셨는가  
바람통을      마셨도다  
이어도사나      잘도나간다.  
이물에 가는      이사공아  
고물에 앉은      고사공아  
요네를 짓고      진주바당  
훈골로만      가고나가자  
이어도사나      잘도나간다  
우리나 배는  
쳐라쳐라      잘도나간다.

---

80) 부두 자그마한 집

81) 기름통

## 8. 갈치 낚는 노래(갈치 나끄는 소리)

① 조사일자 : 2003년 8월 10일

제 보 자 : 김세현(남, 67세)

조사장소 : 세화 2리 마을 밖

갈치야 갈치야 요놈의 갈치야

이발에 징긱 저발에 징긱

물어나보라

## 9. 자장가(애기 구덕 흥그는 소리)

① 조사일자 : 2003년 8월 8일

제 보 자 : 송오생(여, 72세)

조사장소 : 세화 2리 노인회관

우리애기 재와도라

느네애기 재와주마

아니 재워주당

늑애미영 늑애비영

질긴질긴

총총베<sup>82)</sup>로 걸려다가

지핀지핀<sup>83)</sup>천지소<sup>84)</sup>에 디리쳤닥<sup>85)</sup> 내쳤닥<sup>86)</sup>한다

앞뱃더레 밀려보니

앞집 고녕이<sup>87)</sup>도 훈적

82) '총베'. 말의 갈기나 마소의 꼬리털로 드린 참배. '총총베'의 맨 앞의 '총'은 운울을 위한 접두사.

83) 깊고 깊은

84) 大地沼

85) 들이질렀다가

86) 내쳤다가 한다.

87) 고양이



뒷밭더레 밀려보니	뒷집 고냉이도 흔적
올려가는 가마귀도	저녁반착 내려오는 가마귀도 조반반착
웁이자랑 뽁이자랑	웁이야 자랑아 뽁이야 자랑아
웁이도 자랑아	웁이도 자랑아
우리 애기 자는 소리	놈의 애기 노는 소리
어진이도 자랑아	신선이도 자랑아
금즈동아 자랑아	옥즈동아 자랑아
웁이야 자랑아	웁이야 자랑아
웁이자랑	웁이자랑
어진 날뽁 웃은애기	든밥 든물 맥여그넹
든즘으로 재와즘서	웁이도 자랑아 뽁이도 자랑아
우리 애기 자는 소리	놈의 애기 노는 소리
인기즘을 재운 소리	몰므시도 모는 소리
웁이자랑 뽁이자랑	일가방상 화목대이 <sup>88)</sup> 자랑하계
금즈동도 자랑이여	옥즈동도 자랑이여
흔저누웁 자블라	웁이자랑 뽁이자랑
나 흔저 일헐거 아니나	웁이도 자랑아 뽁이도 자랑아
웁이도 자랑아 자랑아	웁이자랑

② 조사일시 : 2003년 8월 9일

제 보 자 : 강신경(여, 73세)

조사장소 : 세화 1리 노인회관

웁이자랑 자랑 뽁이자랑 우리 애기 잘도잔다.  
 할머니이 이 애기 고양고양<sup>89)</sup> 키워즘서  
 뽁이자랑 자랑 뽁이자랑 아기우이 구진티랑

88) 화목동이

89) 곱계곱계

저 올레 <sup>90)</sup> 뱃긔더레	다실어 방송하여 줍서
웁이자랑 뽁이자랑	이애기 하다
근심허게 말앙	잘키워줍서
할마님으로	못할노릇 이시릿가
웁이자랑 뽁이자랑 하다	감기들리게 말앙
할마님이 이 애기	고양고양 키워줍서
웁이자랑 뽁이자랑	웁이웁이 뽁이자랑

## 10. 성주소리<sup>91)</sup>

- ① 조사일자 : 2003년 8월 8일  
 제 보 자 : 현봉화(여, 76세)  
 조사장소 : 세화 2리 노인회관

성주로다	성주로다
성주본의에	어덜러나
경상도	안동땅에
제비원의	솔씨받고
허평대평에	던져주니
소부등이	점점자라
대부등이	되었구나
대부등이	점점자라
청장목이	되었구나
에라 만세	
영등산에	덕들낭 <sup>92)</sup> 베자

90) 거리 쪽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길  
 91) 성주 풀이할 때, 나무 벨때 불렀다 함

## 10. 행상노래(행상 소리)

- ① 조사일자 : 2003년 8월 10일
- 제 보 자 : 송좌길(남, 66세)
-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세화 2리)

영이기가(靈輻既駕)  
 왕즉유탉(往卽幽宅)  
 재진견례(載陳道禮)  
 영결종천(永訣終天)<sup>93)</sup>  
 오호호으 어어으러오 오호 허어어 호어아

## 11. 동요

- ① 조사일자 : 2003년 8월 8일
- 제 보 자 : 송오생(여, 72세)
- 조사장소 : 세화 2리 노인회관

㉠  
 혼다리 인다리 매우때  
 천지 오가리 매우때  
 너의 삼촌 어디가  
 지장 밧디 똥누래강

92) 큰 나무

93) '이미 영은 상여(영구차)에 오르셨으니 곳 유탉으로 가시는 예(제사)을 베풀어 영 원히 이별을 고하옵니다'라는 뜻으로 상여로 발인할 때 이별을 고하는 축(道奠祝)

무슨 땡

㉠

재 재            내려오라  
개똥범벅        하여주마

- ② 조사일자 : 2003년 8월 8일  
제 보 자 : 현봉화(여, 76세)  
조사장소 : 세화 2리 노인회관

훈다리 인다리 개칭 대칭  
버니 사성        구월 나월  
장장 밧딤        지등에 척

# 설화

## 〈 목 차 〉

### 1. 세화 2리

- 1) 매오름 이야기
- 2) 그신세 물각 1
- 3) 도채비 이야기 1
- 4) 행귀수 1
- 5) 영등하르방, 영등할망 1
- 6) 콩대기 팔대기
- 7) 도채비 이야기 2
- 8) 핑 이야기
- 9) 우렁이 이야기
- 10) 조개물
- 11) 그신세 물각 2
- 12) 거신샘물 이야기
- 13) 산귀신
- 14) 행귀수 2
- 15) 토산 뱀귀신
- 16) 일곱형제 이야기
- 17) 자청비
- 18) 이씨 성 이야기
- 19) 그신세 물각 3
- 20) 영등하르방, 영등할망 2
- 21) 뱀 이야기
- 22) 남선비
- 23) 가난한 집에 시집 간 색시

- 24) 당 이야기
- 25) 구르마 이야기
- 26) 신방질
- 27) 상여 도채비
- 28) 표선에 한 여자 이야기
- 29) 끝말잇기
- 30) 도채비/헛불/헛깨
- 31) 그신세 물각 4
- 32) 담팻당장
- 33) 왕꽃뽀디 장사
- 34) 매오름

### 2. 세화 1리

- 1) 사돈맞이
- 2) 도채비 이야기
- 3) 본향당 이야기 1
- 4) 본향당 이야기 2
- 5) 본향당 이야기 3
- 6) 아흔 아홉골
- 7) 저승 갔다 온 이야기
- 8) 설문대 할망
- 9) 개수물 이야기
- 10) 담팻당장

## 1. 세화 2리

### 1) 매오름 이야기

\*조사일시 : 2003년 8월 8일

\*조사장소 : 가마리 마을회관

\*제보자 : 고자길 (여. 79세. 소띠)

\*제보자 상황 : 처음에는 말을 꺼려하다 계속 이야기를 조르다 보니 기분 좋게 웃으며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가마리에서 태어나고 결혼하고 계속 살고 있다.

엔날 할망이 왕, 뉘게 산 할망이 그거 발로 쓱허게 혼 번 밀려 두 번 밀려 헤그네 그 모양 얘기여. 그 매오름. 경허난 그 매오름에 매 그디 살멍 그 비약이도 걸으민 그거 오랑 또여가고 독도 커가민 그거 오랑 또여가고 행 매오름에 강 뜰어먹젠 터럭 박박 뱃기멍 물어다그네 그디하믄 그거 비약이 질르민 우린 영 막대기 집고 행 내쳐불믄 우리가 영 지키는 것도 불구하고 그자 영 앞서서 비약이 집편 돌앙 껍씩 날아당 확 꿰아정 매오름더레 뉘주.

〈조사자: 자기 매오름 쪽으로 올라가마씨?〉

물어가 영 발로 영 확하게 꿰영 영 말아정.

〈조사자: 경헝 매오름 뉘는거 마씨?〉

거난 매오름. 매오름 하는거주.

### 2) 그신세 물각 1

\*조사일시 : 2003년 8월 8일

\*조사장소 : 가마리 마을회관

\*제보자: 현상수 (남. 72세. 원숭이띠)

\*제보자 상황 : 예비조사 때 여러 이야기를 먼저 들려준 분으로 다시 마을회관의

로 가니 여러 설화를 들려주었다. 나이에 비해 정정했으며 손으로 여러 동작을 취하며 열심히 설명을 해주었다.(자료 2), 3), 4) 제공)

〈조사자 : 할아버지 저희는 예. 그 옛날 얘기 날에 귀신 봤다거나 막 그런 얘기 예. 옛날 얘기를 그런 거를 듣젠 하는 거 예. 그런 얘기 좀 물어보쿠다 예. 여기 귀신 얘기가 경 많은데 옛날에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마씨?〉

옛날 귀신 나온 말은 저쪽 지금 할망덜이 연세가 우이난 잘 알주 나보단.

〈조사자 : 혼 번 하르방헌데도 들어보젠 마씨.〉

그 때 나 먼저 말해난 그신세 물각 그거 나 그거 그 말은 잘 알주. 나 그 말은 들어봤주만.

〈조사자 : 그거 다시 혼 번 말해줍서. 그 때 잘 못 들어부난.〉

그 저 도채비 영 그신세 영은 구분이 된덴허멍. 그 그신세엔 혼거는 사람 같은게 막 높으게 서메. 앞이 막 가령으네. 경행으네 옛날 혼 번 말 들으믄 그 강알로 넘어가믄 죽넌허메 사름이.

〈조사자 : 귀신 다리 사이에 있는데 넘어가믄 죽는덴?〉

어어. 앞을 막 가령으네 킴킴헝게 행으네 얹어정 혼덴. 게민 그걸 그 앞 일 지나가는 사름은 죽넌 헝는 그런 전설이 있어. 게네 어떻 모양 형용세 굶은건 잘 못보고. 겐디 가마리 그신세 물각이란 곳이 잇주게. 저 혼주정헝고 가마리헝고 사이에.

〈조사자 : 혼주정헝고 가마리 사이에는 어디마씨?〉

영 바다 내려가는 질이 있어. 그 넘어 세화리헝고 경계.

### 3) 도채비 이야기 1

\*조사일시 : 2003년 8월 8일

\*조사장소 : 가마리 마을회관

\*제보자: 현상수 (남. 72세. 원숭이띠)

〈조사자 : 할아버지 도채비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마씨?〉

도채비 나왔다는 얘긴 잘 못 들어 봐신디. 불 났덴 혼건 들어도 도채비 불은 나 못 봐부난.

〈조사자 : 도채비불은 보든 어떻게마씨?〉

불은 보통 그 불 색이 파랗다고 허여. 보통 영 불같지 않고 노란 불이 아니고 불이 파랗지. 켜디 그거는 주로 왔다 갔다하는 질이 잇덴허여. 어디 서 어디까지냐면 거 세 개로 나뉘어 엇어져부는거 완전.

〈조사자 : 도채비불이 세 개로 나뉘지면 엇어지는거예.〉

그 많이 커졌을 때는 또 모아지고 그 불이 막 커졌을 때는 하나로 모아 당으네 또 막 벌어지고 허는데 딱 세 개로 나뉘졌을 때는 엇어져분덴 허는 그런 말이 있어.

#### 4) 행귀수 1

\*조사일시 : 2003년 8월 8일

\*조사장소 : 가마리 마을회관

\*제보자: 현상수 (남. 72세. 원숭이띠)

저저 허나 생각남져. 여기 그 다리민던 들에가든 그 밑에 가든 행귀수 라는 곳이 있어.

〈조사자 : 행귀수?〉

응. 행귀수. 행귀수렌 허는 곳이 옛날엔 거기 혼 쪽은 막아가지고 혼 쪽 은 쉼 물 영 물 맥이고 혼 쪽은 사름이 음료수로 먹어나서.

〈조사자 : 예.〉

이제 용천수. 생수가 나는 곳이라. 지금은 변해부니까 막 자갈로 메와



가지고 헤가지고 흔적만 남아있는데 옛날엔 상당히 큰 물이여났어. 일 년 열두 달 물이 전혀 마르지 않는 곳이라.

〈조사자 : 아.〉

게난 그 행귀수란 이름이 옛날에 거. 도보장스 알지?

〈조사자 : 도보장스마씨?〉

도보장시. 도보장스. 그 깊어지고 걸어다니는 장사꾼. 도보.

〈조사자 : 아~ 예.〉

도보장스가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다 행귀라는 놋그릇이 잇거든 물 위예다.

〈조사자 : 물 위예다 놋그릇이 떠잇어 예.〉

응. 떠 잇으니까 아 도보장스는 그거 집어다가 장스라도 하켄 그거 행귀가 떠 잇으니까 그거 잡으레 갔다 거기 빠져 죽었다는 말이 잇어.

〈조사자 : 빠져죽엇던 예.〉

경해서 거기가 행귀수라고 이름이 지어졌다는 말이 잇어.

## 5) 영등하르방, 영등할망 1

\*조사일시 : 2003년 8월 8일

\*조사장소 : 가마리 마을회관

\*제보자 : 현봉화 (여. 76세. 옹띠)

\*제보자 상황 : 사전답사 때부터 말을 잘해 주었고 목소리도 좋아서 많은 이야기를 기대하고 찾아갔다. 역시 많은 이야기를 잘 해주었다. 현봉화 씨의 아버지가 원래 총기가 있으셔서 육남매에게 옛말을 많이 해주었다고 한다. (자료 5), 6) 제공

〈조사자 : 옛날에 들어난거 재미난 얘기 잇어마씨?〉

옛날에는 혼 오십년 되서 영등하르방 영등굿이라고 우리가 해냈주. 해냈는디 지금은 다 설러부러서. 안허여. 안허는디 영등 하르방이 정월 보름에 들어왕 이월보름에 나가는디 정월 열사흘 날 여기 들어와서 들어 올 때에 보름이 막 볼면은, 가도록 보름이 불고 비가 오면은 우장 썩 들어왔다고

가도록 비가 잘와.

〈조사자 : 아.〉

잘 오고, 이월 열사흘 날 나가는다 나강으네 보성강 열나흘 날은 구지게 잡아먹엉, 부두 가서 구지게 잡아먹엉 보름날은 나가불면은 옛댓 날은 혼다 해서 빗방울이 하날 흐다. 하날 해도 흐고 바당에 들엉 보면은 떼어 먹여난 전복 껍데기 소라 껍데기가 헤뜩 헤뜩 다 잇어 옛날에는.

〈조사자 : 예.〉

경허고 영등하르방이 들어오면 장을 담그는다 구데기 장들에 장을 얹어 담지 않으면 장이 고령으네 뒤질 안허여. 거민 그 구데기 장들에 장을 담으면 그것도 그 하르방 경 돼. 근데 할망이 들어올 때가 잇고 하르방이 들어올 때가 잇어. 하르방이 들어올 때는 모진 영감이 들어왔다 행으네 하르방 들어온 해에는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나고 아들만 나고 아들을 많이 나고, 할망이 들어올 때는 딸을 나면은 딸을 많이 나고 옛날에.

〈조사자: 아.〉

## 6) 콩데기 풀데기

\*조사일시 : 2003년 8월 8일

\*조사장소 : 가마리 마을회관

\*제보자 : 현봉화 (여, 76세, 옹띠)

옛날에 풀데기 우에 어멍이 잇고, 콩데기 어멍이 잇어이. 켜디 콩데기 어멍은 큰 어멍이고 풀데기 어멍은 작은 어멍이라. 콩데기 하나 낳으네 콩데기 어멍은 돌아나부렀거든. 세상을 버려불엇어. 풀데기 어멍은 풀데기하고 콩데기니까 이녁 난 애기는 풀만 맥이고 큰 어멍이 난 애기는 콩만 맥이 난애 콩만 먹은 아이는 윤기가 곱고 얼굴도 예뻐지고 사름이 마흐씨도 좋고 허난 선을 봐도 콩데기에만 선을 봤거든. 경허니까 이제 풀데기 어멍이 콩데기 선을 보는 건데 콩데기를 이젠 바파치길 헤가지고 풀데기를 선을

보게 행으네 시집을 보냈어. 경허난 그 신랑은 나가 본 신부가 아니거든. 나가 본 신부가 아니고 얼굴도 껌어지고 살결도 껌어지고 헤어 땡기는 행동도 껌어지니까 이제 풀데기 흐는 성씨가 어섯거든. 어시니까 이상하다 하는 중에 풀데기 어멍은 게나제나 그 못 살게 콩데기만 못 살게 항을 구녕을. 밑구녕을 툐라놔두고 이 항으로 물을 하니 질어놓고 기장을 빨래혜 탁 하게 이제 마당에 넣어놓고 이 기장을 다 이제 쏘로 까서 이제 쏘로 헤노라 행 명령을. 딸이거든 딸이니까 물을 만날 길어다 놔봐도 이제 이것이 길어다 노면은 어서지곡 어서지곡 물이 어서지니까 똑똑헌 천지가 도운 아이니까. 까마귀가 앞 담 우에 올라 아자가지고 구렁질락 구렁질락 허거든. 어. 소리가 그 항을 구렁질라고 구렁질락 구렁질락 허니까 이상하다고 헤그네 항 밑다리를 보니까 영 딱 구녕을 툐라부니까 그 이제 항을 구녕을 메꾸어 가지고 물을 길어다 놔두고 물을 길레 강 올적에는 참새가 빨래 년 그 멍석에 아자가지고 후러흐면 화씩 놀때는 새가 화씩 놀고 화씩 놀고 허니까 그 콩데기가 물을 다 길어당 채우니까 그 참새가 기장을 다 쏘로 까줘가지고 그 다슴어멍에 눈 베끼디 아니난에 경행 그 콩데기를 못살게 헤도 그거는 천지에서 도우기 때문에 콩데기가 잘 살고 풀데기 못 살았다. 게난 늬을 해치지 말아야지. 그런 엔말이 있어.

## 7) 도채비 이야기 2

\*조사일시 : 2003년 8월 8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송요생 (여, 72세, 원숭이띠)

\*제보자 상황 : 밤이 되어서야 송요생씨 집에 찾아가서 얘기를 들었다. 송요생씨는 손자 옷을 만든다고 하면서 실을 풀고 있었다. 손자 얘기를 우리에게 해 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었다. (자료 7), 8), 9) 제공)

엔날에 그 저 몰 하영 헤게되민 바쁘지 안허나 영 저 퇴로 몰앙강 묵과.

영 행 바령발디 그디 강 똥싸레 막 바령 큰 발 트목에.

〈조사자 : 바령발디?〉

바령발이라고이 옛날엔 몰히고 쉼하고 막 하영 질루고 하영 처나믄게 허영 행으네 영 큰 발디 왕으네이 사름이 밤 살면은 그기 똥싸고 오줌싸고 걸름되라고 옛날 걸름 흘 줄 모르니까 그런거 행으네게 경행으네 흘 때 강으네 바령발디 우리 막 애기 때라 가민 그디 강 아방네 강 바령발디 그거강 지켜영 늦나이.

〈조사자 : 아.〉

그 몰들 돌아나카부덴. 강으네 영 우장 그 이제 영 쇠 허당 우장 믹장으네 우장 영 쓰고 행으네 눅주게.

〈조사자 : 아. 우장 그 소 벗긴거 비웃 달믄거 마씨?〉

비웃 달믄거 영 행으네 남자들 행 만들영 씨. 옛날 하르방들 그거 행 썩 강으네 그 이제 드순 영흐 담 어염애나 모들 어염애나 뉘시민 도채비들이 왕으네 혼 코 두 코 세 코 혼 코 두 코 세 코 막 하여.

〈조사자 : 혼 코 두 코 세 코.〉

응. 혼 코 두 코 세 코 막 우장 코를 믹딱 요만석 요만석 행 다 모진거 주게. 걸 막 오랑 세여 가는거라. 세여 가면은 막 이제 고만쫘 저리 뉘시민 그 소리 나면은 그 도채비가 그자 몸이 벌경케 왕으네 경하믄 그땐 이제 막 이제 뭐냐 허멍 돌 갓당으네 그 돌은 닥닥 돌 코를 닥닥 모상 경허면은 도채비가 싹 어서져 분덴 헤라.

〈조사자 : 해꼬지는 안 당헨마씨?〉

해꼬지는 안 당허주게. 하르방 계난 마흠이 직성허게 시리 마흠이 어령으네 믹슴말도 7라나젠 허믄 그 해꼬고 무시거허주 마는 하르방은 직성허 마흠을 가지니까 경행 손이라도 피내왕 짝 헤불믄 도채비가 겁낭 도망간덴.

〈조사자 : 아. 손에 피 내완마씨?〉

어. 경도헌덴.

## 8) 평 이야기

\*조사일시 : 2003년 8월 8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송요생 (여, 72세, 원숭이띠)

핑 핑 장스방.

〈조사자 : 핑 장스방.〉

어찌어찌 살암소

〈조사자 : 어찌어찌 살암소.〉

이 담내고 저 담내고, 담을 이 담내고 저 담내고, 발디 담을 이 담내고  
저 담내고 행 담을 몇 게 넘다 보니까 어떤 가슬낫이 잇언.

〈조사자 : 가슬낫?〉

가슬낫이엔 혼건 출랏달믄거이. 그 발딜 들어강 보니까 콩 세 방울이  
빼여져서.

〈조사자 : 빼여정 잇어마씨?〉

응. 그 콩을 혼 방울 먹고 두 방울 딱 주서 먹으니까 암핑 흐는 말이 낭  
군남아 낭군남아 죽지마소 죽지마소 얻어오민 죽어 얻어오민 죽어 경허난  
그 콩 혼 방울 먹고 두 방울 먹고 파닥 파닥 핑이 죽어가더라 흐니까 만날  
얻어다 노민 죽격 죽격 흐엿다고. 간 밤이 꿈을 보니까 끈은 바농 물어뵈고  
각이 동당흐여뵈고.

〈조사자 : 끈은 바농?〉

그건 낚시라. 끈은 바농 물어뵈고 각이 동당흐여뵈고.

〈조사자 : 각이 동당?〉

각이 동당 흐여뵈고 혼 것은 그것이 이제 걸려서 야가기를 각이 동당  
흐엿다고. 걸렸다고.

〈조사자 : 아.〉

끈은 바농 물어뵈고 각이 동당흐여뵈고 백모살도 흘려뵈고 혼건 백모살  
이엔 혼건 속웃. 간밤이 꿈을 보난 그 핑이 죽어가니까 장핑이 끈는 말이  
라.

〈조사자 : 아.〉

경행으네 백모살도 흘러뵈고 높은 산에 올라뵈고 문암제도 지녀뵈고 뜬  
놈한테 재산도 말아뵈더라. 흥영흥난 그 꿩은 오꼳 죽어불언.

〈조사자 : 아.〉

그건 계난 암꿩이 꿈꾼 말을 각시한테 해독흔거라.

## 9) 우렁이 이야기

\*조사일시 : 2003년 8월 8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송요생 (여. 72세. 원숭이띠)

옛날에 이제 물도 엇고 이젠 노래로 나온 말이라이.

〈조사자 : 이젠 노래로마씨?〉

응. 물도 엇고 산도 엇는 나가 이제 시집을 강 보난 물도 엇고 산도 엇  
더라. 물도 엇고 산도 엇는데 시집가서 삼 년을 살고 나니 시어머니가 흥는  
말씀이 이제 삼 년을 살아도 서방이 이렇단 말을 안흔거라이. 경흥난 이제  
시어머니가 흥는 말이 이제 아가야 메누리야 너의 낭군 보고싶으건 진주  
낭간에 빨래를 가라.

〈조사자 : 진주 낭간?〉

진주 낭간에 빨래를 가라고 흥거는 이제 빨래를 진주 낭간이엔 흥디 막  
물 좋고 흥디 빨래를 가보라고 며느리고라. 경행 이젠 흥 짐 정 간 빨래를  
흥집 정간 막 물도 좋고 산도 좋고 흥디 강 빨래를 흥난에 난데엇는 발작  
소리가 들각 들각 들각 나오니까 이젠 그달 이제 결눈으로 보니까 자기 남  
편이라.

〈조사자 : 아. 신랑?〉

응. 신랑이 이제 거시기 하늘같은 갓을 쓰고 이제 무시거 산같은 물을  
타고 건담 건담 못 본 듯이 지나더라고 지나니까 이제 그것을 본 그 사람

마흠은 이제 각시 마흠은 경홀거 아니라게. 경행 이제 검은 세답은 검게 빨고 흰 세답은 희게 빨고 헤가지고 이제 오둥둥둥 지고 집으로 온 거 아니냐. 집으로 왕 보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흐는 말씀이 아가야 메누리야 너의 낭군 보고싶거든 사랑문을 열고 보라.

〈조사자 : 사랑문을?〉

응. 사랑문을 이제 열안 보니까 이제는 기생년을 옆이 차고 못 본 듯이 서방님은 술만 먹는거 아니. 본 각시는 경 고생해도 내비된. 그것을 본 그 메누리는 이제 옆이 방으로 못 본 듯이 나와서 이제 목을 줄라 죽었더라. 죽어부는디 이제 그 남편신디 곶으난에 맨발에 풀짝하게 뛰어오라서 이제 보니까 이제 죽은거 아니. 이제 남편 흐는 말은 이제 어와둥둥 내사랑아 네 죽을 줄 내 몰랐네. 기생첩 사랑은 백일 사랑 본처 사랑은 백 년 사랑 이제 너를 생각 홀건디 나가 이제 기생첩 술상을 먹어도 널 생각을 홀건디 네가 죽을 줄 내 몰랐네 어와둥둥 내 사랑아.

〈조사자 : 할머니 막 재밌다 예.〉

응. 이제 경허난 이제 본처 죽어난게 뒷동산에 묻고 삼 년나고 보니까 이제 국화꽃이 피었더라 기생첩 죽어 앞동산에 묻고보니 삼 년만에 보니 메마꽃이 피었더라.

〈조사자 : 메마?〉

응 메마. 우럭삼춘 들어봅서 발락종게 들어보라 간밤이 꿈을 보난 곧은 바농 물어뵈고 각이 동당혀여 뵈고

〈조사자 : 각이 동당이 뵈 말이짜?〉

곧은 바농 물고 각이 동당혀여 뵈는건 이 야가기에 가시가 그 걸어져.

〈조사자 : 아. 각이 동당 혀여뵈고.〉

인달칼도 그어. 인달칼이엔 혼건 칼로 이제는 이것을 চে여서 이제는 그.

〈조사자 : 아.〉

백모살도 흘러뵈더라. 백모살이엔 혼 것은 소금을

〈조사자 : 아.〉

소금을 이제 꿩기를 소금을 허끈거 아냐 허꺼당 이제 제사상에 올리니까 이제 문암제도 맡아봐고.

〈조사자 : 문암제?〉

문암제엔 혼건 그 제 지낼 때 절하는거 이제 대패랭이 쓴거 쓴놈한테 문암제 맡아봐더라.

〈조사자 : 아.〉

어른들 절 하젠 호든 영 상건 달믈거 썩 절 안허나. 경호난 그런 사람들한테 맡아봐더라.

〈조사자 : 아.〉

우럭꿩기가 이 말을 그것이 나온 거라고. 전설

## 10) 조개물

\*조사일시 : 2003년 8월 9일

\*조사장소 : 제보자의 이웃집

\*제보자 : 김일생 (여. 72세. 원숭이띠)

\*제보자 상황 : 할머니께서는 고운 얼굴에 고운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교를 믿는다면 믿음이 아주 강한 것 같았다. 우리에게 고생한다며 시원한 음료수도 대접해 주었으며, 느리지만 재밌는 말씀씨로 이야기를 해주었다.(자료 10), 11), 12), 13), 14), 15), 16) 제공)

조개물이렌 허는 것은 요 근처인디 이제는 어서저부러서 다 메워져가지고 그 때는 바닷에 떼먹는 조개 잇지? 조개 모양으로 그 본으로 이렇게 멘들어진 그 조개에서 물이 항상 굴라가 아무리 7물어도 그 물이 항상 잇었제. 나는 그것에 몰란 헛는디 우리 옛날 오정시 할아버지가 옛날 할아버지 오정시질 허는 할아버지가 우리 시할아버진디.

〈조사자 : 시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마씨?〉

오정시. 오가인디 이름은 잘은 모르고 정시질 허더라. 게난 그 할아버



지가 조개물 조개물 하난 그 조개물이 어떻게 해서 조개물이 되었습니까?  
허니까 조개껍데기에 이렇게 생겨신디다가 물이 항상 2라잇기 때문에 아  
무리 고몰어도 물을 안 곱더렌 게난 조개물 허는거.

〈조사자 : 그 물 마시기도 하고 마씨?〉

어. 그 물 마시기도 허고 목욕도 허고 엔날에는 마시기도 허고.

## 11) 그신세 물각 2

\*조사일시 : 2003년 8월 9일

\*조사장소 : 제보자의 이웃집

\*제보자 : 김일생 (여. 72세. 원숭이띠)

〈조사자 : 할머니 그 그신세렌 허는 것은 뭐파?〉

그신세 물각이렌 허는 것은 질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신세 물각 물각 허  
는디 나는 그거는 잘은 모르지만은 그신세 모양으로 이렇게 영행이네 내려  
온 그 물이란 말여.

〈조사자 : 그신세가 뭐디 마씨? 그신세를 몰라부난.〉

그신세가 이 집을 많이 일고 일고 허당 보민은 집에서 불타 삼으면은  
막 연기로 세가 그실러지는거라. 세가 그실러지는 것이니까 그신세렌 하는  
거라.

〈조사자 : 그 연기를 가정 곱는거파?〉

막 검지러지고 집에다 저 집 이렇게 인거 싸이고 싸이고 싸이고 혼 십  
년 십오년 이십년 막 싸이고 싸이고 덕그다 보면은 추이만 네고 네고 허다  
보면은 밑이 막 불삼은 연기로 막 그슬러지는 지니까 그신세렌 허는거. 것  
보고 그신세.

〈조사자 :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신세 물각고라 귀신허고 도채비  
비슷헌거렌 고관계만은?〉

그신세가 그시러지니까 그신세라고 허는거지 세아니? 시에서 그 덕그

는 거가 세거든.

〈조사자 : 그신세 물각은 그 물각이 그신세 모양으로 생겼 마씨?〉

응. 그신세 모양으로 생기니까 그신세 물각이라고 허는거지 거기 그신세 물각이라고 허는 것은 저디 저 이십 오반에 양회장 다 헤짚주마는 그 이십 오반 가마리 양태에 이렇게 흘안경에다 세모양으로 요렇게 물이 바닷물이 이렇게 들면은 거기 바닷물과 돈물 땅으로 나는 물과 석어정.

〈조사자 : 지금은 어서마씨?〉

이제는 잘 어서 양어장도 막 헤붙고 물도 오염이 되불고 허영이네.

## 12) 거신샘물 이야기

\*조사일시 : 2003년 8월 9일

\*조사장소 : 제보자의 이웃집

\*제보자 : 김일생 (여. 72세. 원숭이띠)

일본제국시대에 일본 물구신이 와서 제주도 빙허게 물살을 딱 떠가는데 우토산을 딱 가니까 물구신이 나를 곱져달라 어떤 사람이 와도 가르쳐 주지 말아달라 허난에 밭 가는 사람신디 부탁을 헛어 어디다 곱져짚느냐 허면은 췌질메. 췌질메 잇지? 췌 영 질머지와서 췌 밭가는거 영 고딱고딱 다 나는거.

〈조사자 : 아. 쇠 뒤에 달랑 밭가는거?〉

췌 질메가 있어. 영 꼬부라진거 췌 우에다 영 오랑 닥 잘르고해서 짚어 지와서 밭 가는거 실르고 밭갈레 덩겨서 그것에 헛디 그 속에다 곱져서 안 골아줘서 그 거신샘물 물을 남아잇는거라 경허지 아니면 우토산 막 논밭이 돼실껀디.

〈조사자 : 거신샘물 거꾸로 나는 물? 그 때 물귀신을 숨겨줘부난 그 불이 나는거 마씨?〉

계난 서귀포는 논밭이 잇고 일로는 논밭이 없는 거지. 가시리 사름이여

강화 사름 다 그 물 먹언 그 전설을 내가 들은 기회가 있어.

### 13) 산귀신

\*조사일시 : 2003년 8월 9일

\*조사장소 : 제보자의 이웃집

\*제보자 : 김일생 (여. 72세. 원숭이띠)

한라산에 가면은 새소리. 새소리. 온갖 소리를 들려도 아무 말도 안하고 입을 딱 다물어. “아. 저 새소리보라. 저 가마기 보라” 신이 노헤가. 안개가 듬북 저가 몇 날 몇 일을 돌아도 질을 못 찾앙 칩이 못들어와서.

〈조사자 : 아. 산에 갔다가예.〉

응. 산귀신이 경혜. 산귀신 할로산 영이.

〈조사자 : 그건 언제 들은 거 마씨?〉

거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적에 우리가 몇 살적이냐 하면 일곱 으넝 살적에. 그때에.

〈조사자 : 누가 산에 갔당 경 땃덴 마씨?〉

응. 그때는 저 표선 백사장에. 모래판이 그대가 바닷물인데. 마구에 쇠가 멘 쇠가 쇠가 입지름이 질질하고 “헉헉헉” 쇠가 문 애쌍 쇠가 죽을 거 굴더레. 쟁 나중에 보난 백사장에 한라산 그 가시나무 생전 썩지 않는 나무. 발강한 나무 그 나무가 다 끈어다 다 메워졌더레. 한라산 영으로.

〈조사자 : 아 경혜부난 쇠가 경헛덴 마씨?〉

응.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곧는 말이 저 표선 백사장이 풍년이 들려면 모래가 메와져서 그 나무가 안보이고. 흉년이 들라하면 그 나무가 삐죽삐죽 나온덴헤.

〈조사자 : 아 가시낭이 영 많이 나오면 흉년이 지고 모래에 가려지면 풍년이 된덴 마씨?〉

응. 또 흉년이 질라하려면 거기에 게가 쟁이가 막 이만큼씩 이만큼씩

등구리당 무룩무룩

〈조사자 : 아, 모여있다고요? 영 마씨? (양 손으로 모아있는 모습을 그리며)〉

응. 둥굴둥굴 물. 물이라고 하여. 요즘에는 밭에 물이 많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밭에 물이 많아서 물이 이만큼씩 자라나서. 거기 쇠 놓으면 쇠가 그거 먹으면 쇠가 설사가 잘나.

〈조사자 : 물이가 무 아니 마씨?〉

무. 무. 물. 이만큼씩. 우리 그때에 흉년 들면 그거 주서다가 어명 숲아 먹느냐하면 육지 항아리에다 그거 잔득 담아 놓고 바당에 가서 피 네어다가 그 옷터레 놓고 물 놓고 해서 뭇뚱주서다가 뽕나무 불 때면 뭇뚱 불로다가 그거가 막 바글바글데고 해서 그거 익혀 익히면 그거 먹으면 막 독해여. 독해도 배가 고프니까 그거 먹었어. 배가 고프니까. 근데 그 물을 게가 그 물레 팡으네 쟁이가 둥굴둥굴 막 물 모양으로 모다노면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라면 산디방울 줍쌀장을 자자자자. 등그레 맨짜 물래팡에 너는거라.

〈조사자 : 물이 어떤거 마씨?〉

이제는 밭에 물이 없어. 하도 제초질 해부난. 다 죽어부러서. 쫓나무 뿌리 모양으로 둥굴둥굴한 거 잇었어. 풀 굵은거. 뿌리가. 이걸 틀림없는 말.

〈조사자 : 아까 산에 강으네. 그 얘기 좀 해줍서. 산에 강으네 새 소리 들었덴 "아이고 저 새소리 보라"〉

응. 저 새소리보라 저 가마기 소리보라. 이상한 소리 험져. 새가 온갖 소리 다허거든 산에서 경허면 경 말하면 안개가 듬뿍져서 쌓여불면은 길여가 질을 찾지 못허는거라.

〈조사자 : 그러면은 산에 올라강그네. 그런소리 허지 말렌허는 소리 많이 들었겠네 마씨.〉

응. 입 딱 다물어야. 옛날에는 가래 영 갈려고 허며는 영 꼬부라진거 이렇게 고망에다 박는거 잇지. 이런 꼬부라진 나무가 그렇게 엇었어.

〈조사자 : 아. 굵은 나무가 없었대구요?〉

응. 이렇게 굽은 고래 자락. 산에 갈 적에 고래 자락 행읍서 허면 절대 보이지 안헌데. 아무리 찾앙 허나 찾을라고 해도 못찾는데. 할로산 귀신. 영이 잇기 때문에.

〈조사자 : 할로산 귀신 예.〉

응.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곤는 말 보면은 옛날 맹자 할망이 솟곳 그걸 만드러주면 부산가 제주도 사이에 다리놔준다고 헛었어. 만들다가 앞에 영 붙이는거 삼각난거 두 개가 부족해서 못만들어서.

〈조사자 : 아. 다 만들어신디 그거 두개가 부족 해서 못만들었덴 마씨?〉

응. 그거 못만들엉 제주도랑 부산 사이에 다리를 못만들었덴 그 전설이 그거 잇어.

〈조사자 : 한라산 귀신 관련된거 더 어서마씨?〉

경헌디 지금은 할로산에 집 다 짓고 다 질 멘들고 다 불이고 해부난 아무 귀신도 어서.

〈조사자 : 아 예. 그러니까 할머니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들 이수게. 그런거 더 어서마씨? 한라산 가서 뭐하면 안된다. 뭐 그런거 마씨.〉

응. 저 노리 보라 저 뭐 보라. 그런 말 절대 입을 싹 다물아야해.

〈조사자 : 아. 새소리 말고도 다른 거 뭐보라 뭐 그런 것도 안되마씨?〉

응. 경해서 요즘은 교를 믿으니까 구신이 엇어. 옛날에는 굿 잘했거든. 테레비 보면 굿하고 막 비나이다. 막 모자 쓰고 그런거 땡글땡글 허는디 요즘은 그런게 잘 엇어. 다 예수 믿고. 그래서 엇어.

#### 14) 행귀수 2

\*조사일시 : 2003년 8월 9일

\*조사장소 : 제보자의 이웃집

\*제보자 : 김일생 (여. 72세. 원송이띠)

<조사자 : 여기 옆에 행귀수 잇수게 그건 무사 행귀수렌 헨 마씨?>

아. 거기서 단물이나 밑에서.

<조사자 : 아. 그냥 경혜부난 마씨? 어디서 들으난 거기 누가 와그네  
놏그릇이 있어그네 그거 주스려 드러갓다그네 빠정 죽어났덴 행계.>

빠져 죽엇덴? 아. 고만십서. 우리 죽은 할아방한테 들어나서 그 행귀수  
가 지나가당 보니까 그 물 가운데 놏그릇이 영 떠있어그네 거 건지레 들어  
갓당 행귀수, 행귀수렌. 죽은 할아방한테 들어나서.

<조사자 : 그 놏그릇은 누가 갓다 놏수파?>

게난. 그 놏그릇이 죽은 할아방이 말하는게 돌이 비추와그네 놏그릇처  
럼 보여그네 주스려 들어갓당 죽어부러덴 행계.

### 15) 토산 뱀귀신

\*조사일시 : 2003년 8월 9일

\*조사장소 : 제보자의 이웃집

\*제보자 : 김일생 (여, 72세, 원숭이띠)

엔날에 알토산 바당에 헹 큰 볼래냥이 있어서. 볼래렌 헨거 잇지? 막대  
볼래. 그 나무에 그 밑더레 모셔서. 모시니까. 시내 사름은 이 남군 사름은  
메누리. 각시 아니혀. 뱀 귀신 쫓은다고 왜냐하면 일본에 가서 알토산 여자  
하고 결혼을 해서 일본에 가서 사는데 여자가 백 날을 아팠 방 안에서만 울  
더레. 아파가. 경허난 뱀이 자꾸 방에 이레 누니까 방 저쪽에서 멜롱멜롱  
멜롱 경 허더레. 경허난 그 남편이 물지는 허벅잇지예. 딱 놓고 오몬 잡아  
가지고 놓고. 오몬 잡아가지고 오는데로 잡아서 그 항아리에 담앗데. 백 년  
을 똥 보난 그 뱀이 먹지 못하니까 눈밖에 없더레. 눈만 헛득헛득헛득.  
경허난 그 시내 사름은 알토산 여자랑 결혼을 아니현데.

<조사자 : 경허난 토산에 밑에 뱀이 올라온걸 토산에서 모셔버리니까  
토산사람이랑 결혼 안한덴 마씨?>

응. 토산사람을 뱀이 쫓아가. 그 말이 맞은 말이다. 왜 맞은 말이나하면. 요기 우리 동서가 토산사람이거덩. 토산사람인데 뱀이도 말을 곧더레.

〈조사자 : 아. 뱀이 사람에게 말을 곱아마씨?〉

뱀이도 말 곧더레. 소소소소소소. 뱀이가 아광 영 방 안에 누워잇는데. 옛날 초집 창문을 영 열고 눕잖어. 여름에 열고 누워잇는데 뱀이가 집까지 와서 소소소소소 경 말 곧더레. 해서 막 아파서 남편도 죽어불고. 아들도 죽어불고.

〈조사자 : 그 아주머니는 마씨.〉

살고 있어. 지금 그런 말만 나가 들어서 뭐 그랬다고. 나도 아들 죽은 사람이지만은 경 내 아팠데. 나가 시집에 오니까. 우리 시어머네가 일 년 삼 년에 혼 번 돼지 잡고 지기 나무 강 빌고 신방 빌어다가 빌고 돼지 잡아서 올리고 돼지 혼 마리 잡아가 막 빌더라. 뱀의 당이라 허더라.

〈조사자 : 할머니도 토산분 마씨?〉

우리 할머니는 토산분은 아닌데 저 삼촌 우리 시어머니가 옛날에 어디 분이랬수가? 우리 시할머니네가.

〈옆 할머니 : 몰라 그디가 어디산디.〉

어디산디 모릅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삼 년에 혼 번 돼지 잡고예. 저 조개물에 당에 자꾸강으네 그거 뱀디다 예 그거가 뱀의 귀신이렌 행계. 김녕 김녕 김녕 뱀의 굴 아니파 예. 뱀의 굴이난 그 귀신으로 연결헤와그네 그 뱀의 당을 모셔그네 조개물 모셔그네 삼 년에 한 번 돼지 잡고 빌더라.

〈조사자 : 시어머니가 마씨?〉

시어머니가. 빌더라. 그거가 시어머니가 우리 시집이 그 귀신이 아니고 우리 씨어머니 조름에

〈옆 할머니 : 계난 그디 다 빌어서 다.〉

다 헤수과?

〈옆 할머니 : 우리 대에난 아니헛주. 다해서.〉

경해서 우리 집안도 망해지고. 막 아파그네. 우리 곳을 아홉 번 해서. 곳을 아홉 번히고 재산도 다 망해지고 나 아파그네 오늘 죽어지카 내일 죽

어지카 해나서.

〈조사자 : 뱀귀신 때문에 마씨?〉

어떻산디 막 아광. 누구 빌영 물으난 삼 년에 혼 번 뱀귀신한테 빌렌 형  
계.

## 16) 일곱형제 이야기

\*조사일시 : 2003년 8월 9일

\*조사장소 : 제보자의 이웃집

\*제보자 : 김일생 (여, 72세, 원송이띠)

엔날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는데. 아들을 일곱 형제를 낳아서. 할아버지가 아무레도 이 섬이랑 저 섬이랑 가까운 모냥이라. 가까우니까 할머니가 저 산에 가서 나무 캐다가 배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 경해서 아들덜이 막 큰 어른이 되도 할아버지가 안 돌아오는거라. 안돌아오니까 할머니가 아들들 보고 저 산에 가서 나무를 캐서 배를 만들어 주라. 배를 만드니까 내 가서 할아버지를 찾아서 오마. 찾으러 가니까 할아버지는 그 섬에서 작은 각시를 마누라해서 살아서. 그렛는데 어떤 아이가 논밭에 새를 다 올리더래. 나룩을 막 뜯어 먹으니까 “후어새 후어새 요데게 꽃간가에 대추집에 할아버지가 대추 집에다 여자 호탕에 들어서 굶고 살고 있다.” 허고 잇더래. 그래서 야 어디 사는데냐 가르쳐 달라허니까. “요집에 가서 보세요.” 해서 가서 보니까 할머니는 엇고 할아버지만 눈도 어둑어붙고 모욕도 아니허고 막 굶주령 수시나무 수시나무잇지. 수시나무 비어다가 집을 만들어서 만들고 할아버지랑 작은 각시랑 살고 잇는거 아니. 그 할머니는 동녕허러 나간거라. 어디 쌀 얻으러. 할아버지만 눈도 어둑고 목욕도 아니허난 몸이 시커멓 혈거아니 가만히 앉아서 할머니가 어디가 쌀 한 줌 얻어오면는 밥 해먹을라고 기다리는 중이라 계난에 할머니가 가서 “아고 나 문둥이나 좀 빌립서” 허난 할아버지가 “아고 우리 집은 아줄 자리도 안되고 문둥에도 아



줄 수가 어수다.” 허난 할머니는 “그래도 나 요 문둥더레 호끔 안즈쿠다.” 그리고 문둥더레 앉아서 야장 이시니까 작은 할머니가 치매에 쌀 혼 좀 죄고 돌렁돌렁 와서 “어떤 여자가 여기왕 아자서?” 허난 “아고. 저 나 넘어가 다네. 갈데 올데 어서그네 할아방신디 물영 문둥에 좀 아자수다.” 경행 그때는 할머니가 말해서. 아들 일곱 성제행 배 지서드렌행 나가 타고 할아버지 돌레 왔덴. 허난 작은 할머니가 “아고 저기 물에강 더우난 물에가그네 모욕이나 하게 읍서” 그래서 작은 각시가 큰할머니 추그리고 그 둥굴렁한 붓에강 “성님 나 등밀어 네쿠다” 행 등미는 추룩허면서 물더레 빠청 죽여부러서. 죽어부니까 할아버지신디 와그네. “나 그년 꽤씩해서 물에 빠청 죽여브러서” 경 그러서 “잘 헛어. 잘 죽였어. 나 이렇게행 고생 시키고 가지도 못 허게 고생시킨거 잘 죽여서” 그랬어. 이제 할머니 탄 간 배를 타고 집에 돌아오니까 저 큰아들은 띠벗어서 이렇게 다리놓고 두 번째 아들은 행경 벗어서 다리 놓고 세 번째 아들은 모자 벗어서 다리놓고 네 번째 아들은 옷 벗어서 다리놓고 다섯 번째 아들은 버선을 벗어서 다리놓고 여섯 번째 아들은 밑에 바지 벗어서 다리 놓고 일곱 번째 아들은 골목에 띠 영 치는 벗어서 다리놓고 집에까지 다리놔 온거라. 경행 오니까 할머니가 작은어머니니까 큰아들 앞더레 놔난 상은 작은아들 앞에 놓고 작은아들 앞에 놔난 건 큰아들신디 앞더레 놓고 아들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아니우다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아니우다 이거 상도 거꾸로 놓는거 보난 우리 어머니가 아니우다. 우리 어머니강 좃아 오쿠다” 그렇게 헛어. “아고 아니다. 나가 늙어부난 정신이 돌아부난 이렇게 뺏단다. 저 나가 막 아팜 죽어저그네 나가 정신없다” 하면서 할아버지신디 가그네 점만 빌어오렌 허는거라. 점강 청오렌. 내가 아프니까 어째서 아프냐고 점청오렌. “어디가서 점 치느냐” 하니 까 “요 담 넘고 뒷담 넘고 뒷골목에가서 보라” 헛거든. 뒷골목에 할아버지 바리지 못하난 더듬더듬 행 가는 트멍에 할머니는 할딱 넘어가서 거기 아자그네 “아이고 아들 일곱 성제 다 애 네 먹으면 좋겟이다” 흐는거라. 계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오는 통에 할머니가 확 뛰어와그네 아장 “아이고” 막 죽어가면서 “뭐라고 합디가?” 허난 “아들 일곱 성제 다 애 네 먹으면

좋겠덴” 허난 “아이고 아들 일곱 성제 어떻행 다 애 네 먹어” 게난 큰아들이 “우리가 큰형으로부터 조근조근 어머니 애 네어 오쿠다 어머니 가만히 누워 이십서” 행 아들 일곱 성제가 다 나가서 쥘 망녕이 아들이 여섯 성제 애 네어 오거드랑 마지막으로 애 네어 먹읍서 헛거덩. 막 올라가당 가다 보니까 산에 산돼지들이 막 두룽두룽 내려오는거 잇으니까 그거 막아사시 돼지 여섯머리 다 애를 네어서 어머니를 가져당 드려서 드리니까 “아이고 이 애를 어떻게 먹으나.” 허니까 “어머니 먹어그네 어머니 살아나고 나랑 이거 다 먹고 마지막에 나 애 네 먹읍서”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먹는추룩 허면서 다 이 초석 알러래 물어 놔나서 그 애를 먹는추룩 먹는추룩 허면서.

〈조사자 : 애 네가 머리 말허는거 마씨?〉

가슴에 애. 목숨. 마지막으로 작은아들이 “어머니 니 잡아내쿠다. 나 어머니 머리에 니 문딱 잡아내고 어머니 나 애 네어 먹읍서” 허난 “아고 내불라 어떻행 아들 일곱 성제 다 애를 네어 먹을 수가 이시니. 허나만 더 먹으면 나가 좋아질거 닥긴 한디” 헛거든. 경해서 니 잡는추룩 잡는추룩 허면서 초석 밑에 딱허게 얼얼 보니까 이거 나 어멍이 아니다 이거 왜 아니먹었느냐고 헤그네 그 어멍을 막 죽여그네 머리는 비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지축 물 되고. 바다에 헤초가 되고. 이제는 잘 엇주만은 바다에 머리 모양으로 영 잇는게 잇었어. 또시 손톱 발톱은 떼어서 던져브니까 바닷가에 굼 번되고. 보지안에 쪼꼬롭한게 잇어. 즈살뻥이. 그것은 던져브니까 저 바닷가에 돌트멍에 가면 그 모양으로 생긴 애호살이 잇어 경 되고. 보탱인 돌랑 던지니까 전복이 되고 또 또꼬망은 돌랑 데껴브난 바닷가에 가문 물만지리 잇지? 그거가 되고. 또 뭐라그러더라? 옛날 전설에.

〈옆 할머니 : 허리는 네다 던져브니까 디들팡이 뉘고 다린 해당 굼배 만들어블고 손은 해당 쇠스랑을 만들어블고〉

〈조사자 : 허리는 뭐 만들엇덴 마씨?〉

허리는 벤소간에 똥 이렇게 찰라고 허면 이렇게 두 개 놔그네 아장 똥 싸는거 그거 만들고.

## 17) 자청비

\*조사일시 : 2003년 8월 9일

\*조사장소 : 가마리 마을회관

\*제보자 : 현봉화 (여, 76세)

(자료 17), 18), 19), 20), 21), 22), 23) 제공)

즈청비는 여자고.

〈조사자 : 아 사람이름 따씨?〉

응. 문왕생인 문도령은 남자지 이 세계 각국 이제 그것이 옛날 전설에 즈청비와 문왕생인 문도령이 세경꾼에 들어간거라. 세경꾼에 들어가니까.

〈조사자 : 세경꾼이 뭐파?〉

세계각국 본. 본. 본에 그것이 사름이라도 그 즈청비는 여자고 문도령은 남자고 정수내미는 즈청비네 종이고 이러네헌디 자청비허고 문왕생인 문도령이 과거를 보레 갔어. 공부를 허레 갔는디 혼 방에 자고 혼 방에서 밥을 먹고 공부를 허여도 여자 남잘 몰랐거든. 여자 남잘 몰랐으니까 삼 년 동안을 급세를 밋쳐서 집에 돌아올 때는 이젠 목욕 여왕 거러 느리는 물통이 잇고 그 물이 위통이 잇고 알통이 잇거든 게니까 문왕생인 문도령은 알통에서 허라 날랑 위통에서 허마 그렇게 헤가지고 즈청비가 위통에 잡아서 문왕생이 문도령이 옷을 다 벗어서 목욕을 허젠 허니까 즈청비는 여산을 헛거든 남섰을 팔아서 삼 년 동안을 공부를 해도 여자 남자여 문왕생이 문도령아 허는 건에 흑허게 그 물을 껴아 부렸거든 물 아래로 내려가는더려야 년 즈청비는 어서져 부렸거든 어서져 부니까 그 남섯에 문왕생인 문도령은 확 갑양 보니까 삼 년 동안 공부해도 여자 남자를 모른 문왕생이 문도령아 허고 쓴 것을 발견을 헛거든 발견을 해 보니까 위통더레 바라보니까 벌써 위거든. 어시니까 이제는 문왕생인 문도령도 즈청비를 좇져. 즈청비도 문왕생인 문도령을 좇져. 경 이제 초승달은 반달이거든 초승달은 반달이라도 지 달은 세계 각국을 비추건만은 나는 이제 문왕생인 문도령은 못

비춘다고 또, 문왕생인 문도령도 저 달은 이제 반달이라도 세계 각국을 비추건 만은 나는 조청비를 못 비춘다해서 한탄을 막 허는디 경혜가니까 조청비 한탄을 그렇게 해가니까 정수내미가 눈치를 알아서 문왕생인 문도령을 보고 싶으면 나 곁는데로 허면은 고르쳐주마 이렇게 허니까 아 경허렌 어떻게 흘꺼넨 참고루에는 소금을 닷대를 놔서 범벅을 허고 미갱이 닷대에는 소금을 놓지말앙 범벅을 허영 이제 따로 나가면은 우리가 이제 문왕생인 문도령을 좇을수가 잇다 허니까 가다가 그걸로 이제 점심을 내방 먹젠 허니까 조청비 거는 소금을 닷대 노니까 빵 먹어지나게. 못먹으니까 난 못먹겠다고 니만 먹으렌 허니까 정수내미 미갱이 닷대에는 소금을 안놔거든 그것을 반찬 출리멍 그 쫄거는 반찬으로 허곡 소금 안놔거는 씨만 들러먹으니까 조청비는 애가 쾡쾡허거든 커 가지고 아이고 물을 먹겠다고 문왕생인 문도령이 손발 씻은 물이니까 그 물 못먹나고 그 정수내미가 허여튼 그 못살게 구니까 어간에 이제 이신물을 강 먹젠허난 아가리가 쾡쾡허고 강 먹영 어둑으니까 엇마글 주변에 이젠 그것이 좋이니까 허튼 마님신드래 손을 못 데거든 못 데니까 구녁을 이제 막으면은 영 돌담을 세워노코 밤을 세자고 이 짓을 해놔는디 밤을 이젠 사젠 허니까 피곤은 허고 구녁을 막으니까 그 구녁 아정 저구녁 막으라 저구녁 막으라 시키당 보니까 볏앗거든 볏으니까 집에 돌아오니까 이젠 이거는 조청비는 그것이 인간이 아니거든 인간이 아니니까 정수내미 닭진 앓으거든 경허니까 아 이젠 그 사람을 해꼬지를 한 너는 거짓말쟁이니까 이젠 집에 오니까 내쫓이거든. 도끼를 아정 이젠 산에 나무허레 갔다가 나무도 못 허고 강물에 오리가 기엄시니까 예이 저 오리라도 잡앙가젠 도끼를 들이치니까 오리도 못 잡고 도끼를 일러먹어거든 일러먹으니까 그것이 거짓말쟁이니까 경허니까 신령이 나타나 가지고 은도끼에 금도끼 아정 나오니까 어느게 니도끼냐 허니까 이녁은 은도끼 산지 금도끼 산지 그것도 모르거든. 오리잡젠 던졌는데 멍청한 거난에 종놈으로 사는 거난에 은도끼인지 금도끼인지도 모른거주게 어 그니깐 너는 삼년 동안을 이제 그 길을 연계를 닦아야 이제 인간 구실을 허지 돈을 받고 함부로 거짓말만 허면 못 얻어먹나 헌디 조청비가 흘 수 잇이 이젠 이

녀이 막 이제 그 도령을 찾젠 나간거라 나가니까 그 문도령네 어디 올래까  
 지 가네 나무 허리간 산에 이제 저 달은 곳 반달이라도 세계 각국으로 비추  
 건만은 문왕생인 문도령은 난 양론이라도 못 비춘다. 경허니깐 이젠 또 그  
 문왕생인 문도령도 그 즈청비를 좇자고 막 웬간히 애를 쓸데라. 경허니깐  
 그 말을 들으니깐 딱 나와네 즈청비를 만난에 데려단에 안방에 지 눕는 방  
 에 족지평풍을 둘러서 평풍 뒤에 세웠거든 세와네 그 종달이 밥을 앗저다  
 준 것도 전에 혼 사람 먹영 냉기던 거 두 사람 먹으니깐 다 먹어 불 건은  
 스실 아니. 경허니까 밥도 경허고 세숫물도 떠가면은 큰 대양에 떠가니까  
 전에 보다 되어불거든 아 이상허다 혼 사람 씨거난 물인디 두 사람이 씻으  
 니까 아 이제 더러워질 건 스실 아니. 경허니까 나타나니까 할 수 어시 이  
 제는 마당에 처난 숯을 불로 괜히 가지고 잔뜩 살라짜가지고 거 인간이 아  
 니니까 그렇지 칼선다리를 짹하게 놔서 그 숯불에 처난 숯에 그 칼선다리  
 가 벌겍게 쇠에 불붙으면 벌겍안허여. 벌겍게 붙은델로 이 칼선다리를 갈  
 수가 있느냐. 시부모들이 이렇게 시킨거라이. 경허면은 이 시험을 합격해  
 야 집이 들어온다. 문왕생인 문도령과 배후를 츠릴 수 있다. 행이네 이젠  
 그 숯불 살라네 그 칼선다리에 놓은거를 벌겍게 불붙은 위로 발도 허나 꼬  
 락 안허고 막 바랏거든. 들여노니까 흘 수 잇이 들여노니까 너는 이제 그  
 전에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나 요즘은 경허는데가 어서도 옛날집 허설  
 허는데는 허여 발일을 갖던 바당엘 갖던 밥을 아정 가만 이녀 먹기 전에 이  
 제 메주밥을. 거령 먼저 배주밥을 새우리 잇는 것이 메주라. 메주밥을 얻어  
 먹고 이 세상에 너는 살아라 영허니까 그 즈청비가 세경꾼 세경에 본풀이  
 허는디 메주밥 얻어먹는 옛날 유설이 잇어. 게니까 옛날 이제 그 즈청비들  
 이 세경에 메주밥 그 귀신이섯주게 귀신이니까 옛날에는 굶힐 때는 이 즈  
 청비 세경꾼에 즈청비 그 본풀이를 허여.

〈조사자 : 할머니 그 메주밥이렌 험니까?〉

이 메주 허영 이 베끼는게 메주.

〈조사자 : 그 사람들 먹는 것을 새우리라고 경허는구나.〉

새우리 잇는 거 그거를 먹고 너는 이 세상을 츠지허라. 경해서 이 메주

밥을 그 죽청비가 이 세경에 세경꾼이라 허주.

### 18) 이씨 성 이야기

- \*조사일시 : 2003년 8월 9일
- \*조사장소 : 가마리 마을회관
- \*제보자 : 현봉화 (여, 76세)

이씨 성이 사름 성이 아니렌 허여. 옛말에는 그 어떤 부인이 나무 아래 아자네 삼을 삼으렌 허니까 그 후로 넘어간 거는 씹. 그니까 씹이렌 허면은 너네 알아지나? 옛날 닭도 물어가 불고 산에 영을 살주 씹이렌 허면은 고냉이 늙은거 달근 여우 달근거 그거가 이제 우로 씹 허나 밖에 낭으로 넘어간거 밖에 어섯는디 그 부인이 잉태를 가져서 애기를 나니까 무신 성을 짓느냐 허니까 이가를 허라 이거지 이씨를 지었다 허여 옛날 그 전설이.

〈조사자 : 이씨가 나무목에 아들자자 쓰난 나무 밑에서 나난 경 된거 봐?〉

아니 그거는 나는 몰라 옛말에는 허는거는 그렇게 들었어. 옛날에는 사름 식성제가 어시니까 뭐 고량부 사름 식성제가 어시니까 제주도예 고량부 뭐 거시기 산정헌 것 때문에 고량부이렌 헨제 제주시렌 허지않나? 그니까 이 다른 성은 다 물게 그 맨들안 다 육지 성이렌 허주게 육지 성이렌 허는디 그 옛날에 사름 식성제가 없을 때에 그 부인이 나무 아래 아자서 그 삼을 삼는덴 허니까 이제 그 우로 넘어간거는 씹 허나 밖에 없는데 낭으로.

〈조사자 : 그 씹은 고냉이 보다는 좀 크고 여우보다 좀 작은 거예.〉

그거 밖에 넘어간게 없는데 그 부인이 잉태를 가져서 잉태를 허니까 너는 그러믄 이씨 성을 지어라해서 이가 성을 지었다허여 옛날 하르방들이 이젠 경 끝아라.

### 19) 그신세 물각 3

\*조사일시 : 2003년 8월 9일

\*조사장소 : 가마리 마을회관

\*제보자 : 현봉화 (여, 76세)

〈조사자 : 할머니 여기 저쪽에 그신세 물각 이렌 이수게 예.〉

그신세 물각 옛날에 한 오십년 전에는 그신세가 다 낮어.

〈조사자 : 그신세란게 뭐파?〉

그신세가 알은 엇고 그 귀신이거든 귀신이 누운 하늘 방 거둑허게 킁킁 허게 허영 허문 그것이 방법을 허문 왓싸허게 사가지고 그 그신세를 여기 물린 사람은 그신세로 강할허게 현덴 허문 그 사람이 죽사한덴 허주게 그 거 독한 귀신이라거. 킁킁 허늘광 거둑허면은 알은 없고 이제 옛날에는 나무떼기 동덕에 옛날에는 이제는 가스렌지가 나왔지마는 이제 밥을 김질로 송고 나무떼기로 송고행 헤먹어져이. 경행 헤먹었으니까 한방에 이렇게 동덕이라고 그 영 불떼영 치는디 동덕이라고 이 동덕을 영 도로르 예예멍 박아놓고 이디는 마린 없는 집은 놔도 경안한 집은 김질 빨았거든 마리도 어시 김질 빨면은 그 동덕이라고 이렇게 주섭는 동덕을 만들어 노면은 그 나무떼기를 해당 놓 저스면은 불을 치면은 그 재가 잇지. 그 재가 이시면은 무식한 사람은 그 재를 헤다가 광허게 불면은 와싹허게 그것이 사라지고. 경 안행이네 그 밧도 모르면은 그 그신세 강허를 냉기면은 쉰 해치는 그거를 눈에 안 봐와 약한 해치만 봐우거든 쥐띠나 지 양띠나 몰띠나 이렇게만 봐왔거든 개띠나. 요것에 안 배우는 거는 용띠나 범띠 이 쉰해치는 안 봐와 그딱이 나도 저 도채비를 보라 헤도 내가 본 역사가 없어 이제까지 몇 해 덩겅지만은 내 눈에는 안 봐와 아이고 저 도채비구나 허도 내 눈에는 안 봐와 직성이 여린 사람은 다 봐우거든 쉰디 내가 이 요디 아래 시집을 갖거든 열일곱 살에 시집을 가니까 그디는 물이 엇어 수돗물도 엇고 수돗물이 이제사 낮디 엇거든 하늘로 내리는 물, 빗물 받아먹고 그 내에 거렁에 넷물드레 굴린물을 빌어다가 먹다가 여름에는 영강 그물민 물이 그것도 엇어 엇이면은 저 가시방이렌 혼 저산이 혼가운디 가면은 한 혼시쯤에 가면은 그

물을 호끔 굴라 굴르민 그것이 차례대로 쇠덕에 걸어왔거든 그물을 굴른 때에 아무도 안간때에 강이네 할망 나까지 여섯이 갔어. 갓으니까 그 산밑에 가니까 저 손새동산으로 도채비가 나왕 확 호끔돌멩 보니까 아이고 저 도채비보라 저 도채비보라 해도 나는 안 뵈우더라.

〈조사자 : 아. 할머니 용띠라부난.〉

어. 어느거봐 어느거봐해도 안 뵈완 그 다섯할망이 다 뵈와도 나는 안 뵈와 안 뵈우니까 도채비귀신 모사가지고 그 노렌집을 내가 사단 지셔도 꼬딱 엇어. 그렇게 이제 나도 그 미신을 타파하는 도를 믿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해치도 세고 허니까 그거를 까딱을 엇어 다른 사름들은 다 그것이 범해서 그걸 살지도 못하고 다 범해서 그러는디 나는 그런거 엇어 무서운게 가 엇어. 난 겐디 엔날에 제국시대에 병정을 가지않어. 세다이라고 이제 곁으면 군인이거든 그거를 뽑양 갈때에 샌님발이라고 막작을 므치는 것가 나오데 요 우리가 사삼사건 뒤에는 태극기를 해가지고 헛지만은 엔날에는 일본국민에 우리가 돌아졌거든. 그때 당시에는 그 샌님발을 이렇게 바느질을 해 가지고 셋이 고쩍 덩기명 용띠나 범띠나 저기 나이데로 그걸 막작을 므쳐도랭헝 우리가 학교에 훈련을 갔당 그 어멍들이나 그 자식들이 왜간히 그걸 바치레 덩기더라 바치레 덩기면은 무슨 띠넨헝 용띠렌 허민 그걸 므쳐도랭 허민 연세가 몇이췌헝 그 연세대로 꼭 므쳐도라 가서 이거는 뭐허는거나 허면은 그것이 태극기 이렇게 감양가듯이 그렇게 감양 정성으로 그렇게 가니까 거 그렇게 험다고 허면서 샌님발이라고 험 때는 것보랑 샌님발이 샌님발이 헛주 샌님발을 므쳐서 그렇게 제국시대에 우리가 해난 게 난 후 그렇게 또 사삼사건 때는 이것이 내가 스물 혼 살에 사삼사건을 일으키니까 그 때는 태극기에 샌님발을 므치더라 그렇게 해서 그전부터 엔 하르방들이 무슨 띠 무슨 띠는 센 띠다 이제 그 힘을 좀 빌어서 그 막작을 므쳐 가면은 이녁이 힘이 잇어가지고 전투에 가도 뭐 험다허는 의미에서 그것을 해 가는 모양이더라고. 전투에 가도 그 이제 막작 므친거를 가정 가면은 이제 그 사름이 군인을 가도 어떤 그 보장을 우리 힘을 빌어서 가기 때문에 그 런 뭐다 잇다해서 그걸 가져가는 모양이더라고.



## 20) 영등하르방, 영등할망 2

\*조사일시 : 2003년 8월 9일

\*조사장소 : 가마리 마을회관

\*제보자 : 현봉화 (여, 76세)

옌날에 정육월달에 나면은 영등하르방 말을 들어봤나?

〈조사자 : 영등하르방 마씨? 이름만 들어봐수다.〉

이름만 들어봤지? 영등하르방이 정월 열사흘날을 들어오는 날이라. 육지에서 들어오는 날인데 그 날에 비오거나 바람이 불면 그 하르방 떠나도록 비바람을 잘 와 잘 오고 또 영등을 들어올 때에 날이 좋으면은 리장을 안 썩 들어오면은 돌고 바람이 안 불고 이렇게 허는디 할망이 들어올 적에는 그 해에 딸을 많이 나고 하르방이 들어올 때는 그 해에 아들을 많이 나아.

〈조사자 : 그럼 영등할망도 이신거짜?〉

응. 영등할망도 있고 하르방도 있어. 겐디 이제 이월 열사흘날 되면은 혼 달동안 살다가 학이 떠날 때는 이제 그 영등하르방이 들어오면은 가정에 장을 담는디도 그 장 밑에 구재기판물에 메주를 끓여놔서 장을 담구면은 그 장이 안 구리고 그 이제 그거를 안에서 물째로 장을 담으면 구리나 맛이 어시나 그렇게 돼불주. 그렇게 돼불고 그 이제 그 허르방이 들어올 때에 비가 왕은 우장썩 들어왔젠 허드룩 비가 잘 와 바람이 불면 영등살이 바람이라고 잘 불고 이렇게 헛는디 육월 열사흘날은 이제 혼 달 동안 살다가 정월 열사흘날 들어왔다가 이월 열사흘날 나갈 때는 소섬을 가서 열사흘날 구재기 전복을 다 잡아먹영으네 보름날은 떠나기불민 엿새날은 계시심비를 현다고 비를 혼 방울도 안와. 영등하르방 나가부렀다고 계시슴물 현다고 허영 계시슴비라고 현지에서 비를 혼 방울을 안와 겐디 그 구재기 잡아먹어분다 허는게 그걸 그 넘어낭 바당에 강보면 전복껍데기 소라껍데기가 헤뜩헤뜩 꼭 떼어 먹어난 껍데기들이 옌날에도 다 이것이 있어. 열엿새 날은

게시심비를 한다고 빗방울을 흔 방울을 해도, 구자기 영 먹어부난 강 보문  
겹데기만. 조개겹데기도 있고 전복 겹데기도 있고.

## 21) 뱀 이야기

\*조사일시 : 2003년 8월 9일

\*조사장소 : 가마리 마을회관

\*제보자 : 현봉화 (여, 76세)

〈조사자 : 귀신 어떻게 뱀뎀한 얘기 그거 말고 다른 거 또 들은거 어수  
광?〉

옛날에 육지서 무남독녀 외딸내기가 아주 무남독녀 외딸내기라 허면은  
이 바깥에 출입을 못허주 출입을 못허게 통안에서만 무남독녀 외딸내긴디  
흐루는 야외를 종허고 갓어 야외를 가노니까 이제는 이거는 집을 다 뒀  
다 못쓰허당이네 이런 나무쪽으로 궤작을 짜가지고 그 처녀를 길 몰아네  
물에 띄와부러거든 띄운건디 제주도에 오라네 저 김녕 개맛으로 오란 그  
궤작이 몰랐거든 몰르니까 즘수가 물레드레 가다가 이건 나봉근거라 느봉  
근거라 막 드투왓시난 문천숙네 아들은 손대들르고 뚫대기 뉘으레 가당이  
네 뭐 때문에 경 싸우넨 흐니까 이 궤작은 나가 봉근건디 이스람이 봉근거  
렌 헛뎀허난 경허건 산 것을 흐쉴 채와 노니까 소굽에 뭐 이신 줄은 몰르꼭  
궤작만 드투멍이네 험시난 이걸 열어죽영 궤데기랑 날 주고 알맹이란 너네  
앗으라 영허난 아 경허켄 경헤네. 그것을 열영보니까 처녀 죽은 귀신이 담  
아졌거든 이젠 담아지니까 그저 썩어부러네 또 그거를 문덕영이네 물어레  
띄우니까 온몸 흔 것이 저 토산 갓금대기로 들어 왔거든 들어오니까 그 때  
는 이젠 저 우토산 김씨부인이 이제 그디는 이젠 김씨부인이 산이리통 빨  
래를 허레 왔는디 하늘광 마주글 속에 막 가다가 세도 으슬로 오거든 그게  
귀신이니까 으슬로 오니까 그 김씨부인이 놀레가지고 서답을 다 건져방이  
네 질머정 집드레 우토산을 즘름에 즘른 것이 즘름에 바짝 쫓아오거든 즘

름에 바짝 쫓아오니까 아 이거는 좁아부런 이젠 고르수 어른네 가간밭으로 가간이렌 헌거는 너네 새 알아지나?

〈조사자 : 새 마씨? 초가집 만드는거 마씨?〉

새 다른 것이 가간이렌 허여. 가간밭으로 이젠 뛰어들영이네 매때기 머리로 올므니까 똥이 푸드득하게 날거든 똥이 푸드득하고 나니깐 똥굽어난디 나나 굽어보자 굽으니까 똥구냥도 좁고 대가리도 굽을 수가 없어. 경허니까 이젠 집에라도 돌아가니까 집에 간 보니까 벌써 안문점에도 독달나고 반문점에도 독달나고 집에 가니까 집이 다 독달나니까 집이 다 뱀이로 환생행이네 독달나니까 흘 수 없이 안치선으로 묵고 박치성으로 묵고 경허니까 토산땅 구렁이 엔날에는 허면은 무서와나서 이제는 농약 때문에 뱀이 허나 보젠해도 어려와 이만이 술진 구렁들이들이 여기도 막 많허나서 경헌디 그게 구렁이 귀신이 돼서 토산 땅에는 못 쓰니까 제주시강 학생들 집을 구경해도 토산리렌 허면은 집을 안쫓어. 토산땅 구렁이 귀신을 몬다고 범접한다고 토산땅 구렁이가 호술나면은 사름을 물어데껴불고 막 병을 행 죽게 멘들고 경허난 그 생살데에 걸령은 사름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주 경행 이제 그 토산이 그 전에는 그렇게 헛는디 이제는 그것이 제국시대에 다 철근해네 그 당 지서가지고 당곳을 막 헤낫어 헤낫는디 그디 이제는 제국시대에 다 철근해부나네 그디 사무실 짓고 그 귀신이 믿는 사름은 호술 해안가에 헤네 영 나무떼기에 뭐 줄마네영 호술 저 무상 텅검주. 이제다 거저 다들 교덜 다 믿어불고 아니허니까 아니해도 이제도 허는 사름이실꺼여.

## 22) 남선비

\*조사일시 : 2003년 8월 9일

\*조사장소 : 가마리 마을회관

\*제보자 : 현봉화 (여, 76세)

엔날이 남선비엔 헌거는 선비라이 남선비가.

〈조사자 : 남선비렌 허믄 성이 남씨렌 예기가 아니고 남자 선비렌 헌거 파?〉

어. 남선비가 모든 글도 대영주 모든 것이 으망 지게 잘해도 큰 어명의 아들 일곱 성체를 난 이 큰어명이 죽어버렸어 내일 죽은각시에 흘러가지고 죽은 각시가 나는 짐승등그라 해서 우니깐 맨날 이것이 어디강 짐승이 아니면 크게 못되는 행실머리 헌 그 미쳐가지고 남선비가 아들 일곱성체를 이제 엔 헤연 먹으면 간을 내어 먹으면은 켜히 좋겠다 허니깐 그러문 이제 아들 일곱 성체가 일곱 성체 중에도 죽은 아들이 똑똑하고 으망것어 일곱 형제 중에도 머리가 거 비상한거 아니? 크게 죽은아들이 예 그럼은 내가 해오겠습니다 일곱 성체 중에 죽은 아들이 이젠

〈조사자 : 죽은 아들이든 막내아들 말허는 거파?〉

막내 아들이 형들보라 다같이 먹으려고 다같이 먹으면은 나 허는데로만 들으라고 이젠 산에 올라간 토끼간을 여섯 개를 헛어. 이녁은 썰어두고 이걸 다 먹으면 나는 이젠 나 걸 드리면 될 꺼니까 경헨 토끼간 여섯개를 해다가 이젠 내 외수갱 이걸 다 다시면은 이젠 다음은 내 차례니까 그렇게 될 꺼우덴 경헨 드리니까 그 죽은아들이 곱아가지로 엔날에는 문창에 창호지로 붙랴거든 창호지로 붙니깐 먹는 추룩허멍 나 그레 나뉘 나가면 내가 먹 켜 허겟다고 나완. 그걸 창구멍을 뚫렁 창호지로 영 보니깐 먹는 추룩허면서 다 묶거든 묶으니깐 이제 다 잡았다 헤 가지고 어멍 자리를 치워야 허쿠덩 자리를 치워야겟다고 허니깐 자리를 치우젠 허니깐 허 짐승들이 자리를 안 치운다고 짐승들이 안 치운다고 허니깐 짐승이고 머시고 당신 이 알을 여섯개를 네어왔으니깐 그것을 안 먹고 초석까리에 물어시니깐 당신이 이제는 애를 우리가 네어 먹어야 허겟다 행이네 확하게 치우니까. 일곱 성체가 다 모여들라 다 죽연. 다 죽영으네 그것이 마지막에는 여자니깐 허문은 돌라다가 바당드레 던지니깐 전복이 되고 똥구멍은 돌라다가 바당드레 데끼니까 꼭 저 바당에 돌문질이라고 잇어 똥구멍 식으로 한 것이 바당에 잇어 각각이 지지멍 모기 몸에도 갈아 일곱 성체가 드러 살아 어억 몸에도 갈아 허니까 어억이렌 허는 거는 꺾새 거든. 이 저 산에 나는 꺾새. 꺾새 분리

해봐라 불긋불긋 이 피부ㄴ치 잊지. 제난 그렇게 허니까 만민에 이젠 허난 모기뵈에도 같아 이젠 다 어억 뵈에도 같아 허니까 그 피가 다 불라전 어억 에도 피가 불긋불긋 잇덴 허주 껍새에도 경허고 이 모기는 그 탄생이 내일 세대 그 할망이 너무 요망시러우니까 모기는 이젠 모기로 환생해서 남의 피만 빨아 먹게 뵈었다고 그렇게 이제 모기모뵈에도 같아 각개기 지지명 머 리깁 허나라고 다 이제 성제가 굴렸거든 이러니까 굴리니까 허문은 돌라당 데껴부니까 전복이 뵈어붙고 똥구멍은 돌라당 데껴부니까 머수리가 뵈고 또 이제 그 어억모뵈에도 술맹이는 다 이제는 어억모뵈에도 같아 모기모뵈에도 같아행이네 다 지지명 데껴부니까 제니까 그 껍새 밑에 불긋불긋 피가 있어.

### 23) 가난한 집에 시집간 색시

\*조사일시 : 2003년 8월 9일

\*조사장소 : 가마리 마을회관

\*제보자 : 현봉화 (여, 76세)

옛날에 울도 잇는 담도 잇는 아주 가난한 집이 시집을 가니까 그 신랑 이라고 허는 사름은 자꾸 바람쟁이라 삼 년 동안 자식도 못 가지고 삼 년 동안 그대로 정절부인으로 사니까 시어명이 허는 말이 아이고 아가 며늘 아가 진주 낭군을 보고 싶건 진주 남강에 빨래를 가라 진주 남강이 빨래를 가니 돌도 조코 물도 좋앙 오등동이 씻고 나니 난데잇는 발작 소리가 나거든 난데없는 발작 소리가 나니 옆면으로 술작 보니 하늘 곁은 말을 타고 구름 곁은 갓을 써서 신랑님이 못 본듯시 지나가거든 그것을 본 마누라는 흰 빨래는 희게 씻고 검은 빨래는 검게 시껴서 집이라도 돌아오니 시어명 허는 말씀 아이고 아가 며늘 아가 진주낭군 보고 싶건 사랑으로 들어가라 사랑 꼭 들어가 보니까 옥색가지 술을 노코 신랑놈이 기생첩을 옆에 차서 못 본듯시 술만 먹거든 술만 먹으니까 그것을 본 마누라는 눈썹이 사나와 불

수가 엇거든 사랑문을 헤쳐 나와 건넌방으로 들어가서 맹주 석자 수건을 목에 걸고 참배한 듯이 죽었거든 죽었다고 말을 하니 신랑이 맨보선에 뛰어나와 사랑사랑 내 사랑아 내 죽을줄 영 몰랐다 본처는 백년이요 기생첩은 석 돌인데 내 죽을 줄 몰랐다. 어화둥둥 내 사랑아 그것이 그 옛날 역사에 타령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옛날에도 가만히 의미를 생각해 보라.

## 24) 당 이야기

\*조사일시 : 2003년 8월 9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오순옥 (여, 71, 닭띠)

\*제보자 상황 : 얘기를 잘 모르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입이 열리자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자료 24), 25), 26) 제공)

홍씨, 김씨, 안씨 세 가지 성이 이제 그 저 터배를 낭 배혀다가 이렇게 지어서 낭으로 찢러가지고, 고망 똥랑 지어가지고 이제 그 뗏말을 타가지고 저디 퀘기를 낚으레 가니까 이제 그 퀘기 소리를 탁 들이치면은 아이 그 까망헌 곱닥헌 그 먹돌새기가, 돌이 낚시에 걸렁 올라오고.

〈조사자 : 돌이 마씨?〉

으응, 그러니까 이젠 또 이제 그 하르방이 이젠 도로 클러닝 낚시에 거 클러닝 던져부러터. 바당에, 도로 이제 퀘기를 낚을라고 바당에 탁 들이치니까니 또 그놈이 올라와서, 게 세 번 차엔 그 놈이 올라오니까 허 요거는 이상허다. 이거 갖고 가서 우리가 이제 미순(미신)으로 세와야 허겟다.

〈조사자 : 예.〉

허연에 이제는 여기 바닷가에 오란 집을, 돌집을 지어가지고 만들안 막.

〈조사자 : 아, 그걸로 헤그네 돌집을 만들안 마씨?〉

으응, 아니, 그 돌을 이만한 돌을 어디강 봉가다가, 어디가 주어다가

지어단 그걸로 이제 집을 영해네 만들아서.

〈조사자 : 예.〉

자기로 막 모시멍. 그걸 이제 그 집을 만들안 이제. 그걸 이제 그 먹돌 새길 모셔서.

〈조사자 : 먹돌새길 모셔마씨?〉

응. 먹돌새길 모시난 이젠 바다에 이젠 나갈 때는 할망님들, 할아방님들 (칭취불능) 자세히 모르쿠다만은 우리 바룩 감시매 소망 이루게 해줍서. 퀘기 많이 낚으게 해줍서. 경허난 이젠 아 경해그네게 이제 그 퀘를 지어오랑 허영강 바당에 강 먹멍 퀘기를 허민 막 퀘기를 혼 구덩 낚아온거라.

〈조사자 : 아, 많이 낚으는거라 마씨?〉

응. 많이 낚양 오면은 이젠 허허 요것이 이젠 미신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배 그 허는 사름은 이때꼬지 이 즈손에 막 허여 오는 거라. 이때 물려 오는거라.

〈조사자 : 아, 그거 물려 나온 사름이?〉

이제 바둑허는 사름이랑 이레 뵘해영 가면은 퀘기를 많이 잡는다 허니까 이젠 경해네 이젠 막 우리도 이제 제스 넘어나민 그덜가.

〈조사자 : 아.〉

제숫밥 아정으네게 강 영행으네게 뵘주 이제 밥이영 술이영 감저영 떡이영 아정강 꿀 아래 케차냥 이제 내조허여 우리도. 자꾸 땡겨. 여디 이제 지서서.

〈조사자 : 아, 그게 여기 당이 경행 생긴거 마씨?〉

응. 경행 생겼는다 이제는 그 낚시에 걸어져 온 하르방은 안씨 하르방.

〈조사자 : 안씨 하르방 마씨?〉

응. 안씨 하르방이니까니 그거는 제일 큰 당골.

〈조사자 : 예.〉

또 그다음엔 흥씨 하르방은 중당골.

〈조사자 : 중간에?〉

어어. 중간에 당골. 또 김씨 하르방은, 세 하르방이 가니까. 또 김씨 하

르방은 허당글.

〈조사자 : 아~ 예.〉

## 25) 구르마 이야기

\*조사일시 : 2003년 8월 9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오순욱 (여, 71, 닭띠)

〈조사자 : 산에 구르마 얘기 잇덴 헨게. 그 얘기 좀 해줍서.〉

구르마에 물을 메와서 저 시내 독새기를 많이 네와가지고 풀래 가니까.

〈조사자 : 예.〉

이제 오다가 그만 거리가 하도. 엔날엔 걸영만 덩길 때주. 거리가 멀어  
노니깐 이젠 산에 가그네 나가 주무섯당 가젠. 거기 눈겨지. 그자 사름허듯  
이 사름의 집에 가그네 “주인장 계십니까” 허듯이.

〈조사자 : 산에 가그네?〉

으응. 산에 가네 “주인장 계십니까? 날이 가다가 어둑어서 여기 흐루  
저녁 주무섯다 가겠습니다.” 그랬거든. 경행 산 안에 산 담에. 안에 가그네  
누워서.

〈조사자 : 아~ 예.〉

누우니까 꿈에 멧시에 갈 때랑 날 싣거다 도렌.

〈조사자 : 꿈에?〉

으응. 어느 부락을 날 싣거다 도렌. 꿈에. 경허난 후딱 일어나난 꿈이  
라. 아구, 이젠 안되켄헿 이젠 몰구르마헤영 그냥 오라서. 온디 그디 탄 온  
거 아니?

〈조사자 : 예.〉

예, 므을 들어와나네 세 번 짝 집에 오라네 날 이거 죄송허지만은 흐꿈  
세와도렌. 세와도렌허난 이젠 세와주난 이젠 그래 흐록허게 들어가레.



〈조사자 : 아. 구신이?〉

응. 구신이. 흐룩하게 들어간게. 들어가면서 허는 말이. 여기 당분간 잇당 혼 서너 시간만 잇당 날 또 그디 태와다 도렌. 공 갓으켄. 아 이젠 경허 난 막 고마운 사렘 허켄 헨거주. 이젠 서너 시간 기다리난 그 할아방이 서너 시간 안된 때에. 두어 시간 된 때에 오라네 허허. 에~ 날 좀 실러다 도렌. 아주 나쁜 놈의 새끼덜. 못 되어 먹었더라고. 오늘 저녁 제스난 제사 먹으래 와보니깐 뵈에 머리꺼락을 놔네 뵈를 지영 올려시니깐 즈손을 이제 불러네 괴씸해여서 불러네 이제 들이쳐녕 가노렌.

〈조사자 : 그니깐 뵈에 잇는 머리카락이 뱀으로 보이는거 아니 예?〉

아니. 아니. 머리꺼락. 이 머리꺼락을 놔. 머리꺼락이 들 수도 잇지게. 경행 허난 이젠 아이고. 것도 이상허다 헨. 산에 싣거당 세와다네 그냥 오라 비어서. 지네 집이. 지네 집이 갓당 이제 붉으난 그 집을 좇아 가서. 그 집을 좇아강 엇저낙 만일에 여기 제스나라수짜? 허난 예. 제스나라수다. 애기 불에 덴적 이수짜 허난 아구. 말도 많서. 식혜 헤여네 제 지네젠 허는디 애기 그냥 불 어레 기냥 들어가네 불에 데여네 이 개연국에 기냥 민짜 엇어정 데여네 이제 개연국 팔팔 끓으는거지게. 그것에 애기가 민짜 데여네 어둑어부난 병원에도 못가고 오늘 붉아사 병원에 싣깁 보네고 아. 그때는 병원이 엇엇어. 기냥 집이서 치료를 헨거라. 늑 허여나네 붙이고 막 허연. 이 노릇을 어뎡허민 좋을거짜 허난에 이디 하르방이 엇저낙 나 이레 오라가난에 그디 어둑어네 주인장 계시짜 몇엇당 오젠허난 이제 제스먹으래 갈거면 날 싣거다 도렌 허연에 이디 오난 세우렌 헤연에 들어간게 날 잇당 또 그디 싣거다 도렌 헤연에 이시나네 뵈에 머리꺼락 놔네 허여서레허멍 손저 불러네 들이쳐당가도렌 험디다 허난 아고 요건 미신이 엇덴 허당보난 미신이 잇구나 아고. 그렇구나. 쟁헤네 막 이젠 다음부턴 깨끗이 막 잘 헤엿젠.

〈조사자 : 그 제사 잘 모셨젠 마씨?〉

응. 머리꺼락도 안허고 막 정성허여네 잘 모셨젠.

## 26) 신방질

\*조사일시 : 2003년 8월 9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오순옥 (여. 71. 닭띠)

〈조사자 : 할머니, 날도 더운데 무서운 얘기 해줍서.〉

무서운 얘기? 으디 표선에 가는다. 그거는 오래지 안해서. 혼 오십년 댕지. 오십년 댕는다 이제 여자 어른이 죽으나네 막 신방질을 헤어나서이.

〈조사자 : 여자 그 죽으신 분이?〉

응. 죽은 분인다. 이제 신방질을 헤여났는다 그 질레에 붙었는다. 허 사름이 가가민 영 막아상 그냥 막 어징거리거든. 이래저래 어징거리멍 나 싯 거걸령 허멍 이젠 막 경허난 못가게 막으난 이젠 아고 무소완 이젠 밤이는 윈 당분간은 그디 이제는 시국이 영행 막 총소리 네와불고 스삼 사건 나네 막 사름들 죽어나고 허난 이젠 그 구신이 엇어졌주. 그 때는 사름이 밤질을 무소왕 걸지도 못해서. 그 때는 걸영 텡길 때만이난. 차도 어신 때난.

〈조사자 : 그 구신이 무서왕 걸지도 못해마씨?〉

응. 그 구신이 무소완. 머리 허쩌궁에게 그냥 나오라궁에게 아 경허단 그 산더레 들어가불고 허멍 이젠 하도 허난에 이젠 알아보나네 결국은 신방이난.

〈조사자 : 예.〉

이젠 신방 빌어단 막 신긱. 막 긱을 허여서. 긱을 허는다 긱을 허여불젠 허도 아 그디만 가가민 밤질을 걸영가가민 막 북소리나고 광광광 광쟁소리 나고.

〈조사자 : 긱을 헤도 그렇게 막.〉

으응, 긱을 헤여도 막 경해서라. 산을 이젠이 믱을에서가 처분해불렌 해서. 어디로 옮기라고. 산을 옮기라고. 경헤니까 이제 산을 옮긴 이제는 그런 일이 엇어.

〈조사자 : 아.〉

음. 산을 옮겨부난 그런 일이 없어. 구신 소리도 안나고 이제는. 이거  
훈 오십년 되서. 그게. 우리 돌일 때라. 우리 훈 스물에쯤.

〈조사자 : 표선에서지예?〉

응. 표선에 가는데 요 중간 질에.

〈조사자 : 아. 여기 가마리에서 표선가는데?〉

응. 가는 길에 중간 질에.

〈조사자 : 아.〉

## 27) 상여 도채비

\*조사일시 : 2003년 8월 9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강권양 (여. 83. 닭띠), 자료 27), 28) 제공

서쪽으로 가그네 그 불이 사라져. 경허민 언제나 그 불이 경 나그네 거  
본 사름이 그 사름이 비추민이 그 사름이 재수가 어서.

〈조사자 : 아. 도채비 불이 비추민 마씨?〉

응. 거고 사름 이제 그 사름이 죽젠해도이 그 도채비가 나그네 이제  
도채비산디 뭐산디 기자 막 불이 벌경헌거 뚜릿헌덴헤라. 뚜릿허게 나그네  
올로 나그네 저 쪽으로 가그네 거기도 그 도채비가 사라지는 데가 이서나  
서. 이거 진입로 밑에이 백담 행 둘러보고 무시거 헌디.

〈조사자 : 백담? 담이요?〉

어. 담. 담 밑에이 글로 가그네 사라져불고 엔날에.

〈조사자 : 아. 도채비 불이?〉

응. 도채비가. 경허민 똑 그 부근에 이제 발라그네 사름이 재수가 엇엇  
젠 허민이 그런걸 꼭 비추와. 어디 저 부락. 저 동네 사름이라도 죽젠. 엔날  
엔 죽젠 허민이 그런 도채비가 나그네 그디강 사라져나민 또 그 부락 사름

엔날에 죽어난.

〈조사자 : 할머니네도 그런적 이시 마씨? 도채비 왕 사름 죽은디?〉

응. 겁나그네. 요 엔날에 허시 이시네. 그 허시 아래 엔날에 그 저

〈조사자 : 허시 마씨?〉

이저 다리께. 요디 요 밑에 딱라 없나. (웃으며) 난 허시엔 헤지주게이.

〈조사자 : 예.〉

그 다리 밑에 그디 우물 파그네 우리가 영 두루박으로 물뜨멍 먹어났주게. 경헌디 그디 물 질레 강 가민 어둑언 새벽이. 엔날엔 김질메고 일만 일만 허당 보민이. 새벽이 일어남 보리쫄 술이 파그네 술아냥 물 질레 허벅이 저그네 물질레 가느네. 물질레 가민 가당 어떻 우린 안 비차도이 그런 사름 눈에 비추는 사름이 이서. 헤영허게끔 줄린 여칭이 허벅 흘러그네 수건행 칠게 수건 입어그네 기자 글로 지래 기자 환환환환 허게시리.

〈조사자 : 물뜨레?〉

음음음. 물질레 강 보민 이제 경.

〈조사자 : 물질허러 강 보면?〉

음. 강보민 그 밑에 경 눈에 보이는 사름이. 사름마다 안 보여 그런 것도.

〈조사자 : 아~ 그럼 그거 귀신마씨?〉

음. 그런 귀신. 엔날엔 경헤낫젠 헤라게.

〈조사자 : 아. 다리 아래.〉

음. 다리 아래. 다리 알 밑에 거기 그디 넷물이.

〈조사자 : 넷물이 이렇게 넷물 고여잇는데 마씨?〉

경헤그네 그것이 잘못허다그네 그거헌티 흘령도 텅기고.

〈조사자 : 아. 그거헌테 흘리믄 물에 빠정 죽는거파?〉

어. 흘령 어디까지 사름이 그 귀신. 도채비헌티 흘리민 이녁 밋음이 어서부는거주. 광질 사름 양으루. 이녁 밋음이 헛거져 비여그네. 그 도채비헌티 정신을 풀러부니까. 경헨 혼 깃지 그거헌티 흘러그네 어디가는 수도 있고. 엔날엔 경헤낫덴 헤라. 지금은 경 안헤도.

〈조사자 : 도채비헌테 흘러그네마씨?〉

음. 엔날에 경헤낫젠헤라게. 경허고 엔날에 생이도채비라고 우리 말만 들었주.

〈조사자 : 생이도채비? 상여도채비 말허는 거꽈?〉

응. 상여도채비. 자자자자자허멍 막 경헤그네 막 흘려그네 그거헌티 흘려그네 스몯 혼꼬지 뒷당보민 이 아랫도리가 다 가시덩굴로 무시걸로 이제 막 홀터지고. 엔날은 경 던져분도 허곡 그것에 흘려그네 혼꼬지 어디 흐끔씩 막 (칭취불능) 이녁 정신 남덴허민 그 사름이 이제 정신이 틀러버어. 경허나민 엔날엔 경헝 이상한 뱅들 하영 걸리고.

〈조사자 : 음. 상여 도채비한테 흘려그네 마씨?〉

응. 흘려그네 막 혼 낱. 그 사름이 혼 나불주게. 그거헌티 흘려그네 땡기다보민 경헤불민 사름 요새 치매병 걸린 사름 모양으로이 정신이 가락 오락헤네 엔날엔 그런 환자도 허영 나나고. 경헝젠.

〈조사자 : 상여도채빈 어느 쪽에서 많이 나타나 마씨?〉

이 속엔 그건 막 먼 그디에 가산디 사름 제한돼 잇는디 일로 나와그네 어디.

〈조사자 : 산에서 이쪽으로 나와그네?〉

응. 산에서 이쪽으로 나와그네. 경헝 엔날엔 차도 없고 무신거 헌 때 이제 술이나 먹영 뒷질로 땡기다그네이 집더래 오랑도 그거헌티 미쳐그네 경헝 그 사름 뱅도 나고. 경허주게.

## 28) 표선에 한 여자 이야기

\*조사일시 : 2003년 8월 9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강권양 (여, 83. 닭띠)

날 택일도 잘 허노랜 헤도 잘 안헤지는고라 사름헤다그네 묻으민 엔날에 사름, 엔날이멍 말멍 혼 삼십년 거기 되실거라게. 사름 죽으난이 죽으민

뭉어당 혼 부르지. 혼 부르는데 옛날에 그 사름이 혼사 안 불러나신디 저  
 헤다네 저 이제 오름에 군인들 사는데 이시네 그 저 오름에 헤다네 물어서.  
 묻으난이 그 여자가 나오라그네 항상 이 신작로에, 신작로에 나오라그네이  
 차 가는 사름이시민 막 손들르멍 이제 허당보민.

〈조사자 : 지나가는 사름한테?〉

음. 사름헌티 그 여자가 나와그네이 그 여자 죽은, 표선이 사름이라 그  
 사름. 경헌디 그디 헤다네 이제 물어.

〈조사자 : 어디 표선 사름 마씨?〉

으음. 그 표선이 여자가. 여잔디.

〈조사자 : 아, 표선리에 여자.〉

죽으나네 젊은 때 죽으나네 헤다네.

〈조사자 : 표선리에서 살던 그 여자를 여기 이 막을에 오름에 옮긴거  
 마씨?〉

아니. 저 쪽이가 표선이 지경이주. 이 오름 군인사는, 전경대 사는 저  
 쪽이가. 표선이 동네라. 계난 그 오름에 헤단 묻으난 영 밤이. 옛날엔 차가  
 막 드물지게. 이 촌 하루차나게 차 세 번 네 번쯤 신작로 걷는 사름이 엇주  
 게. 경행 차 넘어 가당보민 여자가 딱 오랑 탁 손도 들고. 경 사그네 탁허게  
 세왕보민 사름이 어서. 자꾸 이제 그 사름이 이제 경행 나오나네 몇 년 전  
 에 나오난 몇 사름이 겁나나서게. 겁나나네 이젠 그 산을 파단 다른데강 묻  
 어신고라 이제 그런.

〈조사자 : 쟁 그 묘를 다시 파서 다른데 강 묻으니까 그 산이 신작로 가  
 까이 잇엇던 거 마씨?〉

신작로 가깝지 안해도, 신작로에 와그네.

〈조사자 : 가깝지 않았는데도 신작로까지 와그네. 아~〉

으음. 신작로에 와그네.

〈조사자 : 산을 옮기난 귀신이 사라전 마씨?〉

으음. 그 산 옮긴 어떻 무시거 방치행강 다른데강 묻어신고라 그거 이  
 체 경 안헤여.

〈조사자 : 아아~〉

이 마을에서 표선리 가는 신작로서 잇었던 일이라.

## 29) 끝말잇기

\*조사일시 : 2003년 8월 10일

\*조사장소 : 가마초등학교

\*제보자 : 김세현 (남, 1936년생, 쥐띠)

\*제보자 상황 : 가마리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가마초등학교 나무 아래 앉아서 끝없는 이야기 재촉에도 불구하고 찡그림 한번 없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주었다. (자료 29), 30), 31), 32), 33), 34), 35), 36), 37) 제공)

밑에 깔고 넘어 사고 했어. 요즘에는 양말 신고 검질 메지.

〈조사자 : 예〉

양말이 어땀었어? 초신도 못 신었는다.

〈조사자 : 저, 막, 뭐파? 할아버지가 어릴 때 잇잖아 예. 할아버지가 어릴 때나 젊을 때 어른들이 예. 할아버지 영 겁주젠 해난 얘기나 뭐 옛날 얘기 닳은 거 예?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재미있게 해주젠 헨 얘기나 예?〉

너네 계난 이런 얘기 들어봤나?

〈조사자 : 어떤 거 마심?〉

저 산드레 고박고박 하는 거 무신거니? 미우쟁이여. 미우쟁인 흰다. 회민 할애비. 할애비는 등긴다. 등기면 쇠질메까지. 쇠질메까진 내 고망난다. 내 고망나민 시리여. 시린 검나. 검으민 가마귀여. 가마귀는 놀뜨다. 놀뜨면 신방이여. 신방은 두드린다. 두드리민 칠쟁이요, 칠쟁이는 붉나. 붉으면 역시여. 엇은 쫄난다. 쫄나면 그네기여. 그네기면 보리묵나. 어쭈어. 이런 말도 이서.

〈조사자 : 허허〉

의미를 모르지. 헉나도.

〈조사자 : 중간에 조금 알아지쿠다. 허허〉

조금. 조금 아는 것도 있지. 저 사람들이영 고박고박하는 거 모이나 허면 미우쟁이. 미우쟁이. 억새꽃 피어그넝영 허얀거 바람불민 꺼백꺼백 허잡어게. 저 억새 억새풀 가을들어그네 8,9월 산에 억새출 그런거 몰라? 어디냐? 집이.

〈조사자 : 제주시마씨.〉

허. 이거 다 성내구나. 성내 아이들만 와노난게 몰랍구나게. 성내 아이들 아니면 다 알지게.

〈조사자 : 할아버지. 할아버지 영 허멍 도채비 나왔다는 소리 들어본 적 어수파?〉

아 무사 우리 커 올때야 도채비야 무진장허게 많지.

〈조사자 : 할아버지의 어른이 예 막 영 도채비 봤다 허멍 예 하르방헌티 헤취난 얘기 이시면 예 그런 거 허나 헤줍서〉

게. 그런거만. 아. 아까헌거 의미는 ㄱ라주지 말고. 이?

〈조사자 : 것도 몇 개만 ㄱ라줍서. 몇 개만.〉

산드레 바람불면 꼬박꼬박 한단 말이여. 미뿌쟁이. 엔날엔 거보고 미뿌쟁이엔 헤놏어.

〈조사자 : 미뿌쟁이가 뭐파?〉

미우쟁이. 저 억새풀. 거 허양흐잡아이. 회민 할애비다. 할애비 시엽 나지? 시엽이 이렇게 나서 땡긴다 이거라. 등길며는 쉼질메까지여 쉼질메까지 몰라? 쉼질메 찍여그네 쟁기도 싯경 땡기는 쉼질메

〈조사자 : 아.〉

쉼질메까지는 네 ㄱ망 난다. 네 ㄱ망 나야 나무 이렇게 찢러가지고 만 들잡아.

〈조사자 : 네.〉

네 ㄱ망난다. 네 ㄱ망나민 시리여. 시리. 떡 치는 시리 잇잡아. 시루. 시루는 검나. 꺼멍허지. 검으면 가마귀다. 가마귀는 놀뜬다. 말이여 논다말이여



〈조사자 : 아. 논다.〉

놀뜨면 신방이다. 신방들이 막 놀뜨멍이.

〈조사자 : 아 예. 게고 신방은 두드린다.〉

어. 신방은 또 두드린다. 두드리민 철쟁이다.

〈조사자 : 철쟁이? 저 대장쟁이?〉

그렇지 대장쟁이. 그거 불에 구우면 빨경지?

〈조사자 : 네〉

그건 붉나. 붉으면 엿이여. 엿이 빨경허지. 엿은 쫄난다. 쫄랑허게 늘어 나. 쫄나면 그러기다. 그러기. 그러기도 몰라?

〈조사자 : 아. 기러기〉

응 기러기. 어. 기러기다. 기러기는 보리묵나. 어저 겨울에는 이 제주도 에 여기 눈 아니오는데 와그네에 그 보리 딱 묵어버렸지이. 보리묵나. 보리 먹언 그 다음에 허쭈어 헤가지고 날라분다. 그 얘기라. 옛날 어른들 그런 이야기가 있어 쭈 말허면은 쭈 닳아.

### 30) 도채비/헛불/헛끼

\*조사일시 : 2003년 8월 10일

\*조사장소 : 가마초등학교

\*제보자 : 김세현 (남. 1936년생. 쥐띠)

그리고 도채비는이 우리 저기저 산 세화 1리 목장산. 가세오름이연 현 세가 있어.

〈조사자 : 아. 가세오름 마심.〉

가세오름이라 혼 디서 도채비가 나면은이 어디 오는 줄 알아? 저 매오 름 꼭대기 매봉.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높은 디 우리집 옥상에 가면 보 여. 그 꼭대기에 똑 매닭게 시리 되잇어. 놀개 모양으로 딱 되고 그 매봉 꼭 대기에 가그네 잇다가이 저 바닷가에 너보름코지. 너보름코지민 바다라.

바다에 그 쪽짜 나오니까이 엔날에 배들 큰 발동기들 넘어가당 거기 걸려 그넝 거기서 뿌서져나트주게. 뿌서져나니까 그 도채비가 나와그네 또 그데 들어가부러 너부름코지까지 놀아강.

〈조사자 : 아. 날아가그네 예. 매오름에서 너부름코지까지?〉

어. 이마니한 불이 나와. 또 글로도 나와그네 이디 영 놀아오고.

〈조사자 : 아. 게민 도채비가 불이파?〉

헛불, 헛불. 거 진짜이 직성이 센 사름헌티는 안 보여. 거고 밤에 놀레 다닐 적에. 요새는 밤에 가로등도 잇고 다 이시니까 흰허난 무섭지 않지마는 엔날에는 깜깜해. 영 주먹 들러도 안 보여. 이추룩 허는데 갈 적에 그런 거 딱 보인다 말이여. 헛거. 헛구신이구나 헛깨. 엔날에는 많이 나와났어. 그런 거 나오면은 머리거죽이 파작 허면서 눈물이 짜르륵 한 사름은 직성이 센 사름이라. 이런 사름헌티는 그 헛깨 이런 거 안 달라붙어. 없어져부러.

〈조사자 : 아.〉

경허지만은 저것들이 무섭지 않다 현 사름은 직성이 안 세니까 달라붙어.

〈조사자 : 헛깨비영 도채비. 달라붙으면 어떻 돼 마씨?〉

아니. 게난 도채비는 말고 또 헛깨 헛깨.

〈조사자 : 아. 헛깨랑 도채비는 다른거우파?〉

헛깨는이 우에는 사름 닳고 비슷하고 밑에는 엇고 헤가지고이 사름 흘리는 거주게. 사름 보면이 혼들흔들 가그네잉. 오 사름은 죽이겟다허면 바닷물로 막 흘렁 들어간다고. 갱 바닷물에 빠지면은 그 사름은 죽지게. 그러는 수도 엔날에는 이서나고. 그 헛깨는 사름을 흘려가.

〈조사자 : 헛깨가 영 달라붙는다는 얘긴 헛깨가 영 사름 흘려그네 바닷가에 빠져분다는 얘기우파?〉

어. 물에다 빠치든. 어디 산에 가민이 막 깊은 고랑챙이 데령가 허 저거 사름이니까 같이 따라가야겠구나. 직성이 엇이면은 그런거에 미쳐그넝 따라가. 따라가당 보면 흠뻑 빠진 데에 딱 빠지면은 그건 엇어져불고, 거기서 그 사름은 이 닢 나가가주고 오래 못 살아.

〈조사자 : 그 자리에서 죽는 건 아니고 마심?〉

안 죽어. 경혜그네 그추룩 헤나면 워낙 무당병이 옛날에는 무당빌어그네 막 굿허고이 워 어떡허고 허민 경허는, 좀 허는디. 그추룩 안 허면은 정신 돌아비아. 여기 현재 또 그런 아이가 이서.

〈조사자 : 아. 아이가 이서마심?〉

또 저 정신이 똑 멀쩡한 아이인 거 닳아. 닳아도 누계가 오랜험뎌 헤넌 산에가 하루 밤 잤어. 사람 애먹영 좇당 보니까 어디 산에 강 좇아왔신디 가이가 차 운전수주게. 이젠 차도 못 타고, 기자 담배만 입에 물영 탕기고 바닷가에 시는디 바다에 찌끄래기 올림시믄메 그거 강 태우고 막 젊은 아이라. 지금 한 서른 일곱? 으넝?

### 31) 그신세 물각 4

\*조사일시 : 2003년 8월 10일

\*조사장소 : 가마초등학교

\*제보자 : 김세현 (남, 1936년생, 쥐띠)

경허고 허나 얘기는 이. 가마리 다리 딱 지나가면은이 표선허고 가마리 허고 경계라. 경계선이 그딩가 뭐라 허면은 그신세 물가라 헨다.

〈조사자 : 그 말 많이 들었수다.〉

왜 그스샘 물가게냐. 옛날에 거기 그스새가 나났다고.

〈조사자 : 그스새가 뭐파?〉

그스새라 허는 것은 여기 가마리 사람이 표선이 옛날에는 걸영뎡겼지. 뭐 차가 잇었나. 나 군인다닐 때도 자갈밭으로 뺱허게 돌아그넹 휴가 나올 적에 제주시에서 거기서 헤그네 차탕 여기 가마리 오면은 3시간 4시간 걸렸어. 도로로 허면 막 먼지나고 덜트락 덜트락 덜트락 덜트락 헤그네 와그네 헨디. 여기서 표선이 제사 먹으러 가는데 딱 거 그스샘 물가 헨디. 옛날에는 경계선이랜만 헤낫주게

〈조사자 : 아 옛날엔 경계선이런만 해난 마씨?〉

응. 그 그순새가 나나니까 그순새물가라 허는거주. 그 그순새가 뭐냐하면. 허늘허고 크쟁허게 산 시커멍 헌것이 혼짝은 저 매오름 매봉 딱 걸치고 혼 짝 다리는 바다를 딱 걸청 딱 벌렁 서 잇는거라.

〈조사자 : 아 사름 서 잇는 거봐?〉

응. 사름 서 잇는 것이 아니고. 뭐 구름 형치 닳은 것이 시커멍 헌 것이 영헨 싹 다리벌렁 이 알로 넘어갓다 허면 사름 죽는 거. 게난 그 사름 그런 줄을 들었기 때문에 안 넘어간거라. 옛날에는 그런 헛깨비가 많이 나났지 게.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멍 기다리멍 해도 그놈의 것이 잊어지지 않아여. 이제 헛깨는 이 딱 세시에 둠이 울어. 둠 우는 거 나오지? 꼬꼬오 꼬꼬 허는거.

〈조사자: 예예〉

요즘 둠은이 양계둠이니까지 열두 시두 울고 두 시두 울고. 초저녁 열 시두 울구 영 허지만은 옛날에는 시간 정확히 지켰어. 이 둠들이 딱 세시 되서 울면은 신이 잊어져 버렸어. 그 전에는 가만히 땡기당이 세시 넘어 둠만 울어가면 신들이 다 잊어져부러. 게니 그 사름 선에 강 표선리 사름헌티 그 말을 허니까 이 말이 다 전해진거라.

### 32) 담팻당장

\*조사일시 : 2003년 8월 10일

\*조사장소 : 가마초등학교

\*제보자 : 김세현 (남. 1936년생. 쥐띠)

〈조사자 : 할아버지 게면 어디 뭐 힘센 장사 나냈다는 소리 못들었수꽂?〉  
나났지게.

〈조사자 : 예. 어디마심?〉

담팻당장이라고 이서. 토산리에.

〈조사자 : 그 얘기 좀 해줍서.〉

그 사람 옛날에 집을 짓젠 허니까 이 소를 빌려 주어야 산에 강 나무를 끈어그네 쇠에 헤영 신경 올건디 집집마다 가도 쇠를 안 빌려준단 말이여.

〈조사자 : 무사마심?〉

자기네가 허고게, 쇠 잘 안 빌려 줘. 그 나무 심꺼나면 쇠가 이 나무가 거딱거딱 헤가면 쇠가 빨리 이래저래 돌아뎡기고 헤난 버릇나그네 밭갈젠 허면은 좀 뭐허고 사람에도 잘 안 심지도 거뎡에 잘 안 빌려주거든. 쇠를 안 빌려 줘난에 요놈의 자식들 좋다 헤가지고 자기가 간 거라. 요즘에는 산에 나무가 어섯지만 옛날에는 산에이 나무가이 굴무기연 헤난게 이서. 굴무기 알지?

〈조사자 : 굴무기? 몰라마씨.〉

비자나무 몰라?

〈조사자 : 아. 비자. 예. 알아마씨.〉

그거 비슷한 거 있어. 관상용으로 많이 심어. 그런 굴무기 그거 굴은 거 숙대낭 굴은 거 막 비어냉 것을 아정 탁 짚어졌단 말이야. 짚어 전 동네 오니까 동네 우자담 울담을 몬딱 헐어버렸어. 얼마나 힘이 시어야 그렇게 허겠냐게. 거 집 서리엔 현 건 집 서리 딱딱딱딱 노아야 그 위에 밭 헤여그네 쪼아난 그 위에 역새 오나난 그 틀에 또시 새 피어다그네 우이 덮어그넹 즐노아봐그네 딱 묶어놔지. 초가집 성읍리 있는 거 닭은 거이 경헤거난디 짐지여가지고 인제는 동네 안에 들어오난 기자 이런 울담을 다 헐어버렸어. 가로게 현 7.8m 된 거 딱 지어그네 이런 담 딱 다 헐잖아

〈조사자 : 예예.〉

또 옛날에는 집 있는데 나무 흐나도 엇엇어. 전부다 담만 쌓여 잇엇지. 지금 잇는 거 다 박정희 대통령 때 심은거라.

〈조사자 : 아. 근디 담을 다 헐어부난 어뎡 됐수파?〉

담을 다 헐어부난 아이고 일루저래랑 넘어다니지 마서. 우리 다음에 헐적에는 우리 쇠도 빌려주쿠다. 우리 쇠도 빌려주쿠다. 허멍그네 아 그럼 좋덴. 그거 다 헤네 어깨에 탁 둘러맨 집에 깡장 갓주게. 그렇게 힘이. 계난

담팻당장이 그 담 다 헐어뻐다 헤부난 담팻당장.

〈조사자 : 아. 담을 다 헐어 부러다 헤부난. 담팻당장.〉

담장이 힘 세단 말. 장군이런 현 말해주게.

### 33) 왕꿀뻐디 장사

\*조사일시 : 2003년 8월 10일

\*조사장소 : 가마초등학교

\*제보자 : 김세현 (남. 1936년생. 쥐띠)

지금도 그리고이 지금도 저 가새봉 가세오름 앞에 가면 큰 산이 되게 크게시리 헐. 담 이추록 쌍담으로 헐 이마니 넓게 헤놋어. 엔날에는 순 완력적이지. 요즈음에는 선생. 학생들 때려도 집에 강 어멍신디 헐 말 헤볼면 은 선생신디 영 전화가 몇 번 오고가고 헐지만은 엔날에는 선생도 무섭고. 또 완력적이고이. 힘센 사람이 다 살았고. 법이 잘 엇엇단 말이야. 아주 엔날에는 힘센 사름 허고 방상도 싱싱해야 돼고 혼디가 권력을 많이 잡았어. 왜 나 이런 말을 허나허면은 그 왕꿀뻐디엔 허는 데가 있어. 저 세화리에.

〈조사자 : 왕꿀뻐디? 그 뭐허는데봐?〉

왕꿀뻐디엔 허는 건이 구멍이 조금 잇구 그 속에 심굴. 뭐가 들어가도 무한대로 들어가는 디라. 비 와그네 물이 들어가도. 그니까 왕. 왕은 큰 거 보고 엔날에는 헐거지. 병디. 막 너르다는 병디란 말이며. 그 옆에 산을 힘센 집안에서 묻엇는디 그 옆에 산터가 좋으니까 또 지금 오침이 그 오침에서 그 옆에 쓰젠 허니까 그 산에서 완력적으로 절대 못쓰게 한단 말이며. 와그네 딱 지키영 너네들 이 근처에 산 쓰면 안 된다. 요즘에는 으디 쓰고 으디 쓰고 다 허지만은 엔날에는 못쓰게 헐어. 자기네 운을 빼가분다 헤가지고 아 경헐는데 아 경허면은 어디래강 써야 합니까 좀 저 쓸디라도 좀 알려줘야 될거 아니우까. 아. 당장 영장은 헤야 될건디. 그러면은. 엔날에는 이 영장허젠 허면은이 뵈. 뵈 아나? 쇠뵈. 쇠망치. 쇠 이마니한 거. 돌 깨

고 영허는 거.

〈조사자 : 아 네. 알아지쿠다.〉

그 힘 센 놈이 나가 이 뒀을 던져그네 던진 자리 밖으로 쓰라는 거라.

〈조사자 : 아. 〉

그 밖으로 쓰면 좋고. 그 안에는 절대 못쓴다. 겐 이 뒀을 가져오랜헨. 그 영장허러 가니까 그 뒀을 아정간거지. 둘 헤영 담이라도 허젠. 그걸 아정가네 아정 차밭 동쪽으로 데겼는데 하늘 턱 옷트래 놀뜬다 말야. 근디 그디가 한 이백 미터. 한 백오십 미터가 넘어. 그렇게 멀리 던져버렸어. 던지니까 저 밖으로 강 너네들 실컷 쓰라고. 게난 어쩔 수 엇이 자기넨 몰르니까 이제 딱 그거 완력 좋은 산은 윈 미뿌쟁이 으맨씩 헨 것들 뿐 지금도 엇덴헤여. 그디 쓴 사람. 그렇게 잘되고. 그디는 안땃젠헤여. 엔날에는 힘이 그렇게 장수라 낮어, 요즘 사람들 쇠뒀 쇠덩어리 딱 이마니한건데 잡아그네 십 미터나 이십 미터나 던져지나?

〈조사자 : 예.〉

엔날 그 사름 백오십 미터, 이백 미터던졌단 말이야.

〈조사자 : 그 사름 명 같은 거 어서수파?〉

그건 들어본 적 엇어. 아 게난 그 산도 잇고 그 현재 잘 된 산도 잇어. 그 산에서 그디까지 던졌다헤그네

〈조사자 : 지금도요?〉

암. 지금 잇지께.

### 34) 매오름

\*조사일시 : 2003년 8월 10일

\*조사장소 : 가마초등학교

\*제보자 : 김세현 (남. 1936년생. 쥐띠)

〈조사자 : 아. 할아버지 게면 뭐 으 동네에 전설 닳은 거 어수파?〉

이 동네 전설은 엇어.

〈조사자 : 그럼 그냥 할아버지 아는 전설은.〉

이는 전설. 그럼 무사 매오름이라 한 줄 아나? 여기서 보면은 여기 셋 오름 때문에 안 보이지만은 저쪽에 가민 바로 영혜그네 똑 매 느는 거 모양으로 되어있어. 매봉. 매봉. 요새 표준말로 매봉 허지. 매오름 매오름 허주게. 옛날 하르방이 산터 좋텐 그 매 영현 딱 으디 가그네 산을 셋어.

〈조사자 : 매의 목 될 차례파?〉

매의 눈 잇는데 할아버지가 계속 눈 아팠다그네이. 험벅하르방이라 헤넛어. 험벅으로 게나 제나. 험겘 몰라?

〈조사자 : 아.〉

험겘으로 헤그네 눈만 자꾸 닦아나니까 험벅하르방. 우리 그 하르방은 알아져. 험벅하르방 험벅하르방 헤넛다고. 그렇게 그디 쓴 사람은 눈 멀고 또 그 밑으로 내려와네 염통이 염통 닳은데. 이 디 쓴 사람은 그렇게 잘 됐어. 염통에서 모든 게 일어나오잖아. 생각 곱은 거 무신거 다.

〈조사자 : 아. 눈에 쓴 사름 눈 멀어 불고.〉

어. 눈 아파그네 눈물만 짜잔. 눈꼽만 짹혀. 경헤넛다고

〈조사자 : 염통에 쓴 사름 잘도 잘되고.〉

앞이 강 보면 현재 그 사름 다 잇어.

### 35) 불싸는 할망

\*조사일시 : 2003년 8월 10일

\*조사장소 : 가마초등학교

\*제보자 : 김세현 (남. 1936년생. 쥐띠)

〈조사자 : 산 잘 싸그네 잘 뗏다는 얘기 들어 본 적 어수파?〉

왜 엇어. 옛날에는 다 경헤넛주만은 요새사 그런거 잇나.

〈조사자 : 아.〉



경허고 동티. 동티 몰라?

〈조사자 : 잘못하면 동티.〉

그렇지 그렇지. 잘못하면 동티. 변소간에 동티 걸렸다 허면은 병신 되 부렀어. 엔날엔.

〈조사자 : 동티라는 게 정확히 뭐파?〉

동티. 거 잘못 건드리면은게 직접 현 사름 아니고 그 옆에 본 사름 아파. 얼굴에 막 부풀부풀 허멍허고 눈꼽 찌고 막 얼굴에 허물딱지 막 영 일어그 네 허고 경허주게. 그것이 동티라. 엔날에는 이 이렇게 큰 나무 잇잖아.

〈조사자 : 예.〉

이것도 암상 엿이나 못 끈엇어. 끈은 사름 어떻 안 허는디. 그 옆에 본 사름이 당작 그 죄를 받아그네 뭐 헐다고.

〈조사자 : 아.〉

그것을 어떻해서 고치느냐 불씨는 할망이 영 잇어. 불씨는 할망. 그 무 당허는 할망. 그 할망 빌어다그네 거기와그네 촛불 싸와그네 막 빌면 뭐 2·3일에 싹 엷어져 버려. 그 동티가 게 경 힘든 거라고.

〈조사자 : 그 불씨는 할망이 촛불 싸난 헌덴허영 불씨는 할망이우까?〉

촛불 싹 막 빈단 말이여. 아 잘못했습니다허고 헤가지고. 경허고 법에서 허라 이것은 절대 동티가 없어. 법에서 허라 현 거.

〈조사자 : 아. 나무 자르면 원래 동티가 나는데 국가에서 나무를 잘라 불라 현 건 동티가 안 난단 말이지.〉

응. 또 화장실 엔날에는 제주도 퉁돼지엔 헤났지, 변소간 고치는데 절대 아무상 엿이나 고치면 틀림없이 동티 걸려. 100%. 경허지만 법에서 헤야된다 허세요 헤영은 절대 동티가 엷어 게니까 신이 없엇덴 말도 못허고 잇덴 말도 못헤여.

### 36) 도채비 이야기 3

\*조사일시 : 2003년 8월 10일

\*조사장소 : 가마초등학교

\*제보자 : 김세현 (남, 1936년생. 쥐띠)

아침이 더운밥 그 고팡 항에 모셔 항아리 알지? 옛날에는 식은밥 먹었지 더운밥 일체 안 먹었어. 보리밥 식은 밥 거렁 행나뫓당 먹었주. 요새추룩 밥통행이네 더운밥 어디이시난 더운밥 먹나. 또 점심 때 더운 밥 거기 강 올리고 저녁때 허영 올리고 허는디, 그 날 집에 밭을 갈고 있어. 늦 빌영, 겐디 점심을 행이네 깜빡 잊어버런…… 그 도채비 귀신 아시는 않헤놓고 밭가는데 인부헌티 점심을 지와정 간거라. 확 생각을 행 보니까 그 고팡에 점심을 아니 뇌정 와졌구나. 이제는 막 뛰어난거라. 뛰어왕 보니까 벌써 그 도채비 귀신이 나왕이네 속항아리에 심술 부렸젠. 자기는 안취두고 가 빌거 아니네 속 항아리에서 불을 푹푹 붙엿덴 이거라 불 붙여불젠. 그 집이 이 도채비 귀신은 잘 위허면은 신산도 도채비 귀신이 많이 잇잖아 경허난 막 교를 믿어부럼주게. 요즘 그거 방지허젠. 근디 세화리는 잇어 지금도 막 위허면은 어묵어묵 부자가 돼영이네 막 그렇게 고래부자가 되고, 이것을 박대허면은 곧 망헤버려. 즉시, 아 왕 보니까 불 붙여불젠 술아래 푹푹 붙엿시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더운 밥 그 즉시 허영이네 올렸주게.

### 37) 물귀신 이야기

\*조사일시 : 2003년 8월 10일

\*조사장소 : 가마초등학교

\*제보자 : 김세현 (남, 1936년생. 쥐띠)

〈조사자 : 할아버지 표선에서 종달까지 왜 물이 안나오는지 이야기 해 줘서〉.

옛날에는 요즘은 이런 사람이 엿주만은 친이 잇거든 친이 뭐라?

〈조사자 : 친마시? 귀신 닳은 사름 마씨?〉

그렇지 귀신 닮은 사름이라 모든 거를 척척 다 알아내는 거 그런 사름 우리 제주도에 가서 물을 다 떠볼라 했어.

〈조사자 : 일본 사름한테 일본사름 신이.〉

응. 일본서 보냈다 말여 그것이 경허난 나룻보도 어디 성산 물 조금 나오는 이섯주만은 그 종달리에서 내령이네 성산으로 이래만 떠오기 시작한 거라 조곤조곤 물 못나오게 여기 매봉 앞에도 논도 이서 낫주게 근데 이제는 물이 하나도 안 나와. 켜디 조곤조곤 떠오는다 저 토산 딱 가니까 운세를 딱 보니까 곧 자기 잡으레 따라 온단 말여 사름이.

〈조사자 : 누가?〉

고새 같은 친인디 이 사름을 못 뜨게 시리 이제는 것이 물귀신이지 이게 물 떠가니까 자기를 잡으러 오기 시작한다 말여. 경허난 현재 현재 새로 새로 나타나는 그 문서라. 딱 보니까 곧 자기를 죽이래 왓신가 허니까 이젠 나는 살아야 허켜 어떤 남자 어른이 발을 갈고 잇는거라 확 거기 뛰어강 나를 좀 살려달라고 허니까. 요즘에는 낭 잊지만 옛날에는 낭은 하나도 잊고 민작한 데랏주게 경허난 당신을 어떻게 살리느냐. 허니까는 그렇지 말고 쉼질메 쟁기 신그는 쉼질메 아래에 옛날에는 낫그릇이 많이 잇었거든 그 낫그릇에 물을 부엿 그 안에 들여 놔주면은 자기가 살 수 잇다 이거라 아 그것은 헐 수 잇지게 자기 발 갈레 강이네 물 길르고 그릇 그 낫그릇이영 가정 갓으니까 물 비워 놓이네 쉼질메 아래 놔 주니까 확 허니 엇어져 부러어 아 엇어져부니까 이상허다 그래도 발만 갈았어. 근데 딱 사름 저기서 오더니 여보시오 딱 부르니까 왜 그래요 허니까는 여기 지나가는 사름 봤어요? 허니까는 못 봤다고 자기가 감추아도렌 헐 사름 여기잇젠 허면은 뭐 허카부덴 얘기 안헤 쫓거든 아무것도. 아 그런 사람 못봤습니다. 분명케 사름 일로 지나갔는데 왜 모르냐고해도 절대 안봤습니다. 그 사름 딱 문서를 내노앙 봐가지고 고부랑나무 아래 행기물이렌 헌디 숨어 잇는데

〈조사자 : 행기물은 뭐파?〉

그 낫그릇에 물잇는 것이 행기물이라. 그러면은 근처에 고부랑나무 아래에 행기물이 어딴느냐고 물었어 그니까 이 하르방은 고부랑나무 아래 행기물

이란 거는 들어본 것이 처음이란 말여 경허난 그 사름헌티 나 지금까지 여태까지 이 동네 살멍 농사지으멍 살아도 고부랑낭 밑에 행기물이렌 허는 것은 처음이라고 허니까는 틀림없이 이 문서 안에 고부랑낭 안에 잇는데 왜 없느냐고 나 그런 게 처음이라고 토산에는 그런 물이 었다고 허니까 이 사름 허허 이것이 허맹이문서다.

〈조사자 : 허맹이문서. 안맞는거?〉

어 그렇지. 아니 맞는 허맹이문서다 해가지고 불을 딱 뿌런 불을 붙여 부러어. 아 근디 갑자기 그 사름 었어져 부러어. 신이니까게 아 켜디 조금 잇으니까 사름 싹 허게 나와가지고 나를 살려주어 가지고 고맙습니다 게든 나도 일로 저래로는 물을 뜨지 아니허겟습니다 물을 없애지 아니허겟습니다 다허는 그 말만 ㄱ르고 싹 었어져 부러어 사름 신이니까. 아 케니까 이상허다 이상허다 해가지고 헌디 날 생 보니까 그 위에는 종달리 쪽에는 물을 싹 떠부니까 물이 흐나도 었고, 그 아래로는 촌물이 창창창창 나고 이것이 전 설이라. 북군 사름 잘 모를꺼라 남군 사름이 거의 다 아는 거라.

## 2. 세화 1리

### 1) 사돈맞이

\*조사일시 : 2003년 8월 8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현만아(여. 78. 범띠)

\*제보자 상황 : 표선에서 세화로 시집을 왔고 딸3, 아들1을 두었다. 우리에게 커피도 대접해 주었고 기분 좋게 맞아주며 천천히 얘기를 풀어갔다.  
(자료 1), 2), 3) 제공)

친정아방이 사돈집이를 가거든 사돈집이를 온덴 허민 메느리 시아방.

메느리 시아방이 사돈님하고 무시거를 행으네 사돈님을 안내주 둥새기나 허영 행 멧개 숲양 안내주 그런 말이 있어. 둥새기를 멧개 숲아서 메느리 아방 친정아방이 오민 안내주 허난 메느리가 "아방 둥새기를 허면은 둥새기 다섯 개 숲으면 둥이 다섯마리 (웃으며) 둥새기 다섯 개를 숲지 말고 둥은 혼 마리 잡아서 먹는 것이 좋다"고 경해서 시아방이 경허난 둥 다섯 마리보단 둥 혼마리 잡는 게 낫덴. 경해서 친정아방을 드렸다고 혼 말이 있어. 건 농담으로 그렇게 하르방들이 엔날 하르방들이 그렇게 해서.

## 2) 도채비 이야기

\*조사일시 : 2003년 8월 8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현만아(여. 78. 범띠)

표선 가서 술을 잘 먹는 아저씨데 여기 노꽃무루 (옆에 할머니가 다른 데로 가서서 그 할머니와 얘기를 허시다가 이야기를 계속함) 저 술을 먹영 올라오다 보니 오월장마이라고 요전고치 막 비가 오거든 비오ندي 오당 보니까 도채비가 막 많이 있어. 별경. 질이 별경허니까 콧 그 사름 둘을 잡아서 요디 그 우에 친정어멍네가 있는데 여름인디 강 보니까 이거 뭇 도채비 엔 헨. 내가 잡양 오고랜 영 심영 보니까 돌맹이를 심영 앓어. 돌맹이가 별 경했어.

〈조사자 : (웃음)아~ 허허.〉

돌맹이를 도채비로 알아서 심영 오라서 앓양 데껴분 그런 역서는 잇는 데 그 외엔 몰라.

## 3) 본향당 이야기 1

\*조사일시 : 2003년 8월 8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현만아(여. 78. 범띠)

큰 동산. 당신므루라고. 당신므루. 동산이 있는데 그디 하르방이 담뱃대를 이만치 현 진 담뱃대를 물고 거기 허영게 옷. 모자. 모자가 아니고 거 테레비에 나오지 어.

〈조사자 : 갓마씨?〉

아니 갓 마랑 몰총으로 만든 모자.

〈조사자 : 몰총머리 마씨?〉

어어. 옛날 제사지내는 거. 그런 모자 쓰고 7만이 하르방이 동산에 아 자시니까 여기 옛날 할아버지가 땡기당 봐네 어떻게 여기 이릅디겐 허난 여기서 마을을 어떻게 되는거 후망허레 안고렌. 마을이 어떻게 되는걸 후망을 헐려고 아쟈는디. 안고렌 허난 이제 집일 가십주 헤네 집이 으 집인디 사무실 옆쪽에 거기 집인데 그디 할아버지를 모성 오라나난 무신 반찬을 자시쿠겐 허난 소주에 계란 안주. 소주에 계란안주를 허여서 7만이 담뱃대를 이만치 현거 물영 영 아즈니까 소주에 계란안주를 헤서 (웃으며) 드리니까 거 자시고 7만이 아자시겐 행 보니까 하르방이 었어. 하르방이(다른 할머니께서 현만아 할머니 댁으로 놀러오셔서 얘기가 잠시 끊김) 그래서 그 하르방이 었어졌거든. 담뱃대는 영 잇고 담뱃대만 잇고 그 계란안주에 소주를 헤서 먹으니까 담뱃대는 잇고 하르방이 었어. (그 할머니랑 잠시 얘기)

〈조사자 : 하르방은 어디 간거 마씨?〉

하르방이 녹아져비었어. 녹아져부니 그 하르방을 마을에 이 마을에 현 씨라고 헤서 본향을 만들엇거든. 미신을 안져서 집을 자그만허게 허나 지어서 그기 하르방을 가만이 아져서 나무토막 으만이 현 하르방을 그 성만 쓰고 "현" 현가니까. 현만 쓰고 본향이라고 부락에서 그기.

〈조사자 : 경허난 저기가 현씨 본향당이파?〉

경해서 본향을 모셔서 마을에서 이 뉘 일이 이시민 그 본향에 가서 밥

히고 딱히고 그 안주 계란 안주하고 몬딱 가서 기도를 올리거든. 무당 빌어서. 그렇게 해서 세화리 본향은 세다고 해서 세화리에서 예수, 예수 믿는 사람 이 세화리 부락에 오라도 안되어. 예수가 성공이 안되어.

#### 4) 본향당 이야기 2

\*조사일시 : 2003년 8월 8일

\*조사장소 : 세화 1리 리사무소

\*제보자 : 김채현 (남)

\*제보자 상황 : 조상때부터 쪽 세화리에 살았다. 2남 3녀를 두었고 느린 말투로 진지하고 침착하게 얘기해 주었다.

세화리 본향이 처음 이제 이 구신을 모셔야 된다는 그 하르방이 현우화 징조라고 하여 징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백년 전 이백 오십년 전인가 아마 그렇게 될거라. 그러니까 그 하르방이 바로 여기 살았어(마을회관 뒤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기 근디 지금에는 여기가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부니까 안보이는데 요 뒤에 가면은 우리집 바로 뒷머린다 당신머루라고 있어이. 그 동산이 있어. 그 동산이 서남 쪽으로 향한 동산인데 거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거기에는 말여 깨끗한 잔디가 말여이 쪽 깔려있고 그저 봄이나 여름 같은 때는 말여 어린애들이 가서 놀기 아주 저 알맞은 데라. 근디 그 하르방이 어딜 살았냐면은 바로 요기를 살았는데 요 앞에 저 딱 이제 북쪽을 향해서 쳐다보면은 그 동산이 바로 보이는데라. 보이는던디 그 하르방이 자주 이렇게 말이며 밤에 나와보면은 그 동산에 허얀 노인이 말여 앉아잇는 것을 보인다고 헛거든.

〈조사자 : 허얀 노인마씨? 백발노인예.〉

어. 백발노인이 거기 아진 것을 이땅 나와보면은 보이고 보이고 허니까 거 이상허다. 이렇게 해서 그 하르방이 아주 엄숙허게 말이며이 옛날 예복을 차려입고 이제는 그 동산 그 하르방 앞에 가서 엎드려 절을 허고이 어떤

영감이 여기 이렇게 오밤 중에 나왔습니까. 허난 허는 말이 나는 이 부락을 직허기로 나온 말이여이 직허는 중이라고 이렇게 허니까. 직허는 사름라고 이렇게 허니까 그러면은 무엇 무엇을 먹읍니까 이렇게 그 하르방이 물은거라. 물으니까 이제 백돌레에 자소주에 이제 흰 계란을 말이여 숲은 계란을 말이여.

〈조사자 : 백돌레는 뭐짜?〉

백돌레라는 건 흰 쌀로 만든 동글랑헌 떡을 백돌레라고 허는거주. 소금을 놓지 안허는거. 이제는 사라졌다고 헤여. 하르방이 와서 이제는 그 구신이 얘기허는 대로 그 자리에서 이제는 거기 이제 그 당으로 헤서 이제는 모섯겨든. 모시다가 그러니까 모시다가 하루는 그 꿈에 나타나기를 그 하르방한테 설명허기를 이거 너무 민가가 가까워서 개소리가 들리고 말이여. 뉘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우니까 자기 이제 다른 디로 자리를 옮겨달라고 헐다고 말이여. 그러니까 이제는 저 서쪽으로 말이여 자리를 옮겨.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는 당신므루 당신므루 헤서 지금도 이름을 그 동산을 당신므루랜 불러.

〈조사자 : 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기는 이제 그 당이 잇어난거지.

### 5) 본향당 이야기 3

\*조사일시 : 2003년 8월 9일

\*조사장소 : 김이진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김이진 (여. 80. 쥐띠), 강내유 (여. 89. 토끼띠)

\*제보자 상황 : 김이진 제보자는 처음에 우리를 존댓말로 맞이주며 웃음이 많은 할머니였다. 강내유 제보자는 천식기운이 있어 기침을 자주 했지만, 재미있게 얘기를 잘 해 주었다. (자료 5), 6), 7), 8) 제공)

이디 마을 본향은 다른 마을 닳지 았어여. 그자 초하루에 가고픈 사름



초하루에 가고 무시거 허는다. 이 하르방엔 허는다 하르방이 막 수염이 이 만큼 허고 긴 담뱃대 물고 요 당신므루라고 헤여. 당신므루렌 현 동산이 이서. 여기. 나무로 막아져부난 안보염주. 그 동산에 이제 그추룩 담뱃대를 물고 허영게 출린 하르방이 아자서. 아즌디 이제 현집이 하르방이 이제 엔 날엔 므실 많이 허지 않아여.

〈조사자 : 모실마씨?〉

몰. 조랑몰. 물을 혼 집이 백 므리도 허고 쉰 므리도 허고 쇠도 경 많이 지루는다. 집집마다 물을 경 짓나. 그 물을 보레 강 오당 보니 현집 하르방이 수상헌 하르방이 당신므루렌 현 동산에 아자시난. 윈 보도 쓰도 아니헌디 이상허덴. 이 할아버지한테 말을 물어야켄. 그 현집 하르방이 몰 보레 강 오다가 이제 하르방은 어디 계시고 어떤 어르신인디 여기 아자시넨 물엇주. 물으난 그 하르방이 허는 말이 난 돌아댁기당 산으로 이디 내려오는다. 내려오당 여길 아장 보난 여기 므을에 청년들이 막 이제 구진 일을 닥 칠테니 그것을 막아주켄 내가 여기 안고라. 경허난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허난 이 므을에 내가 아장으네 이제 므을 청년들을 도와칭으네 잘 이제 맹과 목을 잇어주겠다. 계난 무신 음식을 자십니까 허난 계란, 계란안주에 자소지 소지, 소지, 소주만 그거만 택헌다. 도야지 고기도 말고 이제 그걸 그 음식을 택헌다. 허난 계민 어느 날에 어느 날에 구헤드립니까 경허난 초하루, 보름날 이제 주고프건 들령으네 드라. 경허난 이제 므을 사름신디 오랑 그 하르방이 이 므을에 이상헌 어른이 나타났져 허난 어떻 현 노인이파 허난 사실이 그만저만 행 고라동 그 하르방이 윈 어디 간 곳이 엇어부니까. 거기서 경 고라동. 이제 초하루, 보름날 계란안주에 자소주 이제 도라 해도네 이제 므을을 청년들을 구허여주마 해도네 그만 간 곳이 엇어비연. 어서 비연에 경 헤렌 허난 개건 우리가 집을 지었으네 조그만허게 집을 지었으네 그 하르방이 그추룩 고른대로 우리가 음식 헤영으네 올리고 이제 술만 올릴 수가 어시난 밥 혼 그릇 허고 술 허고 헤영 강으네 이제 올령 경행 허난 이제 우리냥대로 고를 수가 어시난 무당을 빌었으네 허게 행으네 무당을 빌영 그걸 설개행으네 헤서.

## 6) 아흔 아홉골

\*조사일시 : 2003년 8월 9일

\*조사장소 : 김이진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김이진 (여. 80. 쥐띠), 강내유 (여. 89. 토끼띠)

제보자1(김이진 할머니) : 이 산 앞도 아흔 아홉 골

〈조사자 : 이산.〉

제보자1 : 이이 이거 산 앞이게, 저 산 앞도 저 산이엔 험 건 북군 산 앞도 아흔 아홉 골이다. 그건 뭇산디 모르긴 허곡 경 ㄱ르난 뭘.

〈조사자 : 아흔 아홉 골!〉

제보자1 : 응. 이 산 앞도 아흔 아홉 골, 저 산 앞도 아흔 아홉 골 혼 골이 없어서

〈조사자 : 계난 이 산 앞이렌 허민 남군 말허는 거고, 저 산 앞이렌 허민 북군 말허는 거과?〉

제보자1 : 어. 계난 한 골만 더 잇어시민 .

제보자2(강내유 할머니) : 한 골만 더 잇어시민 제주도서 큰 인물이 날 건디 그 때문에.

제보자1 : 그렇지. 장군을 날 건디. 한 골이 부족해서 장군을 못 낫다.

〈조사자 : 계민 무사 아흔 아홉 골만 생긴줄은 몰라마씨?〉

제보자2 : 글썸 그걸 알아점서게……

〈조사자1·2 : 허허허〉

## 7) 저승 갔다 온 이야기

\*조사일시 : 2003년 8월 9일

\*조사장소 : 김이진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김이진 (여. 80. 쥐띠), 강내유 (여. 89. 토끼띠)

제보자2 : 사름 이제 질도 잃고 강생이만 따라헤네 헤영헌 강생이만 따라헤영 가당보난 윈 바닷물도 아니고 그 무신 물더레 산디 당 허게 강생이가 떨어져부난 이 죽은 사름 놀레연 깨난게 죽엇당.

제보자1 : 이승을 살아난

〈조사자 : 아~ 저승갓당 살아난 거네 예.〉

제보자1·2 : 어게. 저승을 갓당 살아난.

## 8) 설문대 할망

\*조사일시 : 2003년 8월 9일

\*조사장소 : 김이진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김이진 (여. 80. 쥐띠), 강내유 (여. 89. 토끼띠)

〈조사자 : 설문대 할망이렌 들어봐수가?〉

제보자2 : 가달을 혼 착 한라산에 놓고, 혼 착은 일출봉. 신산오름더레 거기 혼 가달 놓고, 경행 삼으로 흑을 영영영영 문드려부난에 산 오름들 다 댓젠

〈조사자 : 흑을 흘치난 오름들이 되부런. 잘도 큰 사름여예……〉

제보자2 : 팬투를 만들젠 허난 맹주가 아흔 아홉 동 들어네.

〈조사자: 옷을 입젠 허난?〉

제보자2 : 팬투!

〈조사자 : 아~ 팬티〉

제보자2 : 아흔 아홉 동이렌 허난 그것 뵈산디 윈. 아흔 아홉 동을 들 영 그 할망 팬투를 만들영 입엇다. 옛날엔 팬투를 팬투렌 안허고 소중이렌 헤신디 그게 그거. 속곳.

제보자1 : 근디 그거 누게 본 적도 엇고 경행 들어서게. 신방 무당 역사에 다 그런거 나오라.

## 9) 개수물 이야기

\*조사일시 : 2003년 8월 9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현계평 (남. 74. 닭띠)

\*제보자 상황 : 평상에 앉아 있었다. 나이가 90이 넘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제보자 어머니에게도 조사를 하고자 했으나 눈이 거의 멀다시피  
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

몇 년 된건지 그거 ㄱ장은 잘 모르고 개수라는 물이 이서신디

〈조사자 : 개수마씨?〉

어 개수. 개수라는 물이 이섯는디 아마 그 눈에 보기에 항상 개가 나와  
이섯다 이거야.

〈조사자 : 멍멍 개파?〉

멍멍 개지. 그거 물 잇는 곳에. 그 어떤 사름 아마 걸썩헌 사름 모양이  
라. 물을 타가지고 다올렸다고 허여. 개를. 쫓기니까 저쪽 가사봉 거기가니  
까 거기서 다올리니까 지금 저 물영아리라고 거기 갓다는

〈조사자 : 물영아리마씨?〉

물영아리. 전설이 이서. 물영아리엔 허믄 시방 우리나라 저번에 많이  
방영허더라. 자연보호 모 식물이 많다고 허는 곳. 그런 전설이 이서.

〈조사자 : 그쪽으로 개가 갓덴 마씨?〉

응

〈조사자 : 다올려부난?〉

응

〈조사자 : 계난 거길 개수란 허는게 개가 이서부난 개수웁 허는거파?〉

응 계난 개가 잇고 그때는 항상 물이 안 불더섯던 모양이라.

## 10) 당팃당장

\*조사일시 : 2003년 8월 9일

\*조사장소 : 새화1리 지환슈퍼 앞 평상

\*제보자 : 강필성 (남. 72. 개띠)

\*제보자 상황 :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얘기를 조르게 되었다. 장사 얘기를 물었다니 토산에서 유명한 장사 당팃당장 이야기를 해주었다.

옌날 어데가서 집나무를 시경 오거든

<조사자 : 집?>

집. 집 짓을 나무. 쇠에 싣그는디 쇠를 동네 사름이 아니 빌려주니 그 영감이 가서 어데가서 집 짓을 나무 서리 육십 개를 짚어진거라. 육십 개. 나무

<조사자 : 나무 육십 개를 당팃당장 그 하르방이 짚어진거라마씨? 쇠를 안빌려주난?>

어. 짚어정 토산길로 내려오는디 왜 길게 논지니 토산 밭담이 먼 헤싸 지거든.

<조사자 : 하르방 저기 때문에 잘 못 들언마씨.>

나무가 존 와가니까 담이 나무에 걸려서 다 담이 자빠지거든. 자빠지니까 토산서 난리가 낫거든. 계난 토산 어른들이 이젠 이녁 쇠 밖으레 아정강 그 나무를 싣거당 그 하르방신디 집을 지어줬다구.

# 신 앙

## 〈 목 차 〉

1. 개관
2. 공인종교
3. 민간신앙
  - 1) 포제
  - 2) 당 신앙
  - 3) 가신신앙

## 1. 개관

세화리는 행정구역상 세화 1리, 세화 2리(가마리), 세화 3리(강화동)로 나누어져 있다. 이 세 마을은 행정구역상으로만 '세화리'로 묶였을 뿐, 주민 간에 생활습관과 종교생활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세화리의 공인종교로는 기독교 교회가 세화 1리와 세화 2리에 한 곳씩 있을 뿐 절은 없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절에 다니는 불교신자였으며, 세화 2리에는 삼천교나 천지대안도 등 다른 지역의 신흥종교에 다니는 주민도 약 1/3 가량 되었다.

세화리의 민간신앙은 남성중심의 마을 포제와 여성중심의 당 신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세화 1리, 세화 2리, 세화 3리 모두 관청의 보조 아래 지금까지도 포제가 행해지고 있으며, 마을이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지기 훨씬 오래 전부터 포제를 따로 지내고 있었다.

당 신앙은 역시 세화 1리와 세화 2리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세화 1리

는 본향당이 있고, 아직도 당에 다니는 주민이 많았다. 또, 현재 다른 마을에 살긴하지만 본향당에 메인심방도 있었다. 세화 2리에는 남당과 요드렛당이 있었다. 그러나 세화 2리 주민들은 공인종교나 신흥종교로 개종한 사람이 많아서 요드렛당은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고 터 역시 깨끗이 정리해 버려서 옛 모습이 남아 있지 않았다. 남당은 현재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세화 3리는 공인종교와 당이 없어서 마을신앙만 조사했다.

## 2. 공인종교

### 1) 기독교

#### (1) 세화 1리

- ① 명칭 : 제주 형제 사랑 교회
- ② 종파 : 대한 예수교 독립 교회로 종파가 따로 없는 연합교회이다.
- ③ 위치 : 남제주군 표선면 세화 1리 105-2번지(홈페이지 : <http://www.jejuccall.net>)
- ④ 건물 : 총 255평, 예배당 20평, 사택 17평, 별채 15평. 별채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있다. 대지는 아직까지 '애향숙 재단'의 재산이다.
- ⑤ 연혁 : 1970년 7월 21일, '대한 예수교 오순결 성결회' 소속의 '세화교회'가 세워졌다. 2001년 교단이 해체되면서 독립 교회로 바뀌고 명칭도 '세화교회'에서 '제주형제사랑교회'로 바뀌었다.
- ⑥ 신도 : 교단이 해체되기 전에는 신도가 13명 정도 있었으나 교단이 해체되면서 신도들이 대부분 표선으로 옮겨가 버려 현재는 8명 정도 남아 있다. 대부분이 무직이거나 농사를 짓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다.
- ⑦ 대표자 : 김태권 목사. 충청남도 출신으로 대한 예수교 오순결 성결회 전도사 자격으로 1992년 교회를 맡았다. 7년 동안 교회를 운영하다가

생계가 어려워져서 직장생활(택시기사)을 하다가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목사 고시를 보고 목사가 된 후 2001년 '제주 형제 사랑 교회'를 만들게 되었다.

⑧ 운영 : 주일 헌금(십일조)이 월 10만원 정도이다. 신도들이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 사비(예전에 직장생활을 해서 번 돈과 사모가 회사를 다니면서 버는 돈)로 운영되고 있다.

⑨ 예배 : 매일 새벽 4시 30분, 수요일 저녁 8시, 금요일 저녁 8시,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오전 11시와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린다.

⑩ 행사 : 제주성교회, 서울삼육교회와 함께 마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발 마사지, 지압 등을 한다. 여름에는 서울삼일교회와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운영하고, 성탄절과 부활절 행사를 한다.

⑪ 금기 : 덕(德)이 들어있지 않은 것(술과 담배, 제사 등)을 금한다. 특히 우상숭배를 하지 말 것을 강조하여 제사와 당에 다니는 것을 금한다.

⑫ 주민들과의 관계 : 교회 사정으로 교회가 몇 년 동안 문을 닫아서인지 몇몇 노인들은 '교회가 없어졌다'고만 알고 있을 정도로 주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세화 1리의 기독교 신자들은 대부분은 표선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단이 다른 이 교회를 이단시한다.

## (2) 세화 2리

① 명칭 : 가마 그리스도의 교회

② 위치 : 남제주군 표선면 세화 2리 287-1번지

③ 건물 : 총 대지 88평, 예배당 15평. 사택은 없고 마을의 집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④ 연혁 :

1975년 말콤 선교사, 초대 목사인 김영진 전도자가 표선면 세화 2리 주민들을 모아 놓고 리사무소와 노인정에서 전도 캠페인을 하여 가마교회를 개척.

1975년 12월 12일 1대 김영진 취임.



1977년 11월 세화 2리 287-1번지에 대지 127평, 건물 15평으로 예배당 준공.

1985년 6월 23일 성결교회로 명칭을 바꾸어 헌판식. (표선면 세화 2리 287-1번지 기존 예배당)

1989년 서울신학대 출신 박명목 전도사 성결교회 재단에서 기존교회로 파송.

1990년 제주 신품 성결교회로 이적.

1984년 2월 2대 김경환 전도사 취임.

1986년 7월 3일 3대 이길운 전도사 취임.

1991년 8월 성결교회 퇴진하고 그리스도 교회로 환원.

2001년 6월 30일 예배당 실내 공사 완공.

⑤ 신도 : 장년 23명, 학생 2명, 어린이 36명으로 모두 세화 2리 주민이다.

⑥ 대표자 : 이길운 목사

⑦ 운영 : 실천 목회로 선교사역을 하여 운영비를 마련한다. 때로는 보조금을 받기도 한다.

⑧ 예배일 : 주일예배(오전 11시), 주일 저녁집회(오후 8시 30분), 수요일 밤 집회(오후 8시 30분), 어린이 주일모임(오전 9시 30분), 학생회(일요일 오후 2시 30분) 모임이 있다.

⑨ 행사 :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봄과 가을에 야유포배, 의료활동, 경로잔치가 있다.

### 3. 민간신앙

#### 1) 포제

세화리는 행정구역상 세화 1리와 세화 2리, 세화 3리로 나뉘어지기 전인 일제시대 때부터 세 마을이 포제를 따로 지냈었다고 한다.

(1) 세화 1리

① 제명 : 포제

② 제신 : 토지지신위(土地之神位)

③ 제일 : 정일(丁日), 해일(亥日)에 지낸다. 마을에 상이 나거나 하면 정·해일 3일 후에 치른다.

④ 제장 : 마을 위쪽에 포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⑤ 제의 관리 : 마을회의에서 제관 등을 결정한다.

⑥ 제비 : 마을운영자금을 사용하고, 동별로 10만원정도 낸다. 마을 외부로 나갔던 사람들은 따로 부조를 하기도 한다.

⑦ 제관

㉠ 제관자격 : 나이가 들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삼헌관을 맡으며 특히 대축과 집례는 글을 잘 아는 사람이 맡는다. 주로 전에 제관을 맡지 않았던 사람을 위주로 돌아가면서 뽑으나 친족 중에 상을 당하거나 몸이 비린 사람은 제관이 될 수 없다.

㉡ 제관의 종류 :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전사관, 집례, 대축, 찬인, 찬자, 알자, 봉향, 봉로, 봉작, 전작, 사준 등 14명. 전사관은 마을책임자(리장)가 맡아서 한다. 요즘은 간소화해서 찬인과 찬자, 알자와 봉향, 봉로와 봉작은 겸하는 경우가 많다.

㉢ 합숙 : 초헌관의 집에서 합숙을 한다. 집이 작으면 마을회관에서 하기도 한다. 제관들은 합숙 가기 전에 각자의 집에서 몸을 깨끗이 씻으며,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향물로 씻는다. 3일 동안 초헌관의 집에 금줄을 쳐 놓고 지낸다. 제관들은 한복을 입고 있다가 제를 지낼 때는 청의로 갈아입는다. 합숙하는 동안 제관의 부인들이 밥을 짓는다. 제관끼리는 따로 방을 구분하여 지내지는 않고 한 방에서 같이 지내는데, 식사 때에만 삼헌관들의 자리와 아랫 제관들의 자리를 구분한다.

⑧ 제물

㉣ 메 : 도량서적을 올리나 쌀-기장-피-쌀의 순서로 쌀을 2개 올린다. 모두 산메<sup>1)</sup>로 올린다.

㉠ 희생 : 뜨거운 물로 털을 뽑은 돼지를 날 것인 채로 동두서미(東頭西尾)에 따라 올린다. 발톱과 내장은 올리지 않는다. 털은 제사가 끝난 후 불에 태워버린다.

㉡ 채소류 : 미나리나 근자(무)를 날 것으로 올린다. 양념하지 않고 소금을 따로 올린다.

㉢ 어류 : 옥돔 말린 것과 바닷조개 날 것을 3~4개씩 올린다.

㉣ 육류 : 녹포(노루고기) 대신 쇠고기를 날 것으로 조금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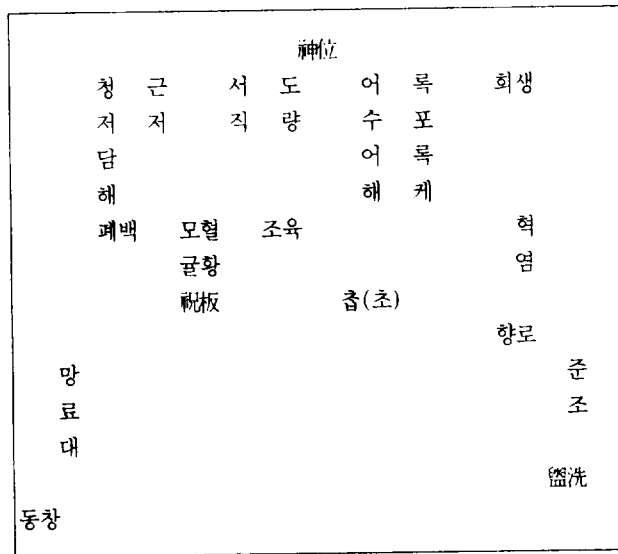
㉤ 실과류 : 귤과 사과를 올린다.

㉥ 제주 : 누룩으로 만들어서 올린다.

㉦ 폐백 : 창호지보다 작은 크기의 종이 한 권을 올린다. 시령목은 올리지 않는다.

㉧ 모혈 : 돼지의 피와 털을 올린다.

㉨ 제물진설도와 제관 위치도



1) 사발에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서 중탕으로 지은 밥

⑨ 제차 : 제사 전날 마을 노인회에서 포제단 주변의 풀을 베고 청소한다. 제사 준비는 당일애 하고, 돼지는 전날애 잡는다. 오후 11시 30분 경 제관들이 제장으로 출발하여 12시에 제를 지낸다. 제사가 끝나면 초헌관 집에 모여서 음복을 한다. 고기는 각각 분배하여 나눠먹는다.

⑩ 축문과 흘기 : 축문과 흘기는 매년 새로 쓴다. 축은 대축이 쓰고, 흘기는 원래 집례가 쓰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써 주기도 한다. 제보자 현용석 할아버지께서 자신이 쓴 축문과 흘기를 보관하고 계셨다.

㉠ 흘기

謁者引獻官以下俱就門外位謁者引祝及諸執事入就位增南拜位四拜祝以下皆四拜。平身詣盥洗位 盥洗各就位 謁者引獻官入就位謁者進獻官之左白有事謹俱請行事四拜諸位者及獻官皆四拜。平身奠幣禮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北向立搯笏盥洗執笏引詣神位前北向跪搯笏三上香獻幣執笏復伏與平身引詣樽所西向立酌酒引詣神位前北向跪搯笏獻爵執笏復伏與小退跪搯笏讀祝祝以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執笏復伏與平身引降復位行亞獻禮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搯笏盥洗執笏引詣樽所西向立酌酒引詣神位前北向跪搯笏獻爵執笏復伏與平身引降復位行終獻禮謁者引終獻官詣盥洗位北向立搯笏盥洗執笏引詣樽所西向立酌酒引詣神位前北向跪搯笏獻爵執笏復伏與平身引降復位四拜獻官皆四拜平身飲服授俎執事者以爵酌福酒祝以持俎進感神位前俎肉謁者引初獻官陞禮飲福位西向跪搯笏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以受爵飲卒爵獻官以授虛爵執事者執事者受虛爵執事者以俎授獻官以受俎獻官授俎執事者受俎降自東階出門執笏復伏與平身引降復位四拜獻官皆四拜平身行徹籩豆祝以進徹籩豆四拜諸位者及獻官皆四拜平身詣望燎位謁者引初獻官陞禮望燎位西向立祝以取毛血於祝阪及幣燎蓋燎謁者進獻官之左白禮畢遂引獻官出謁者引祝及諸執事俱伏增南拜位四拜祝以下皆四拜平身禮畢以此出

㉡ 축문

維歲次西紀一九七〇年庚戌正月丁巳朔初七日癸亥細花上洞里民等代表□□□□

敬昭告于

土地之神伏以 於赫明靈 鎮此一域 司地斯命 與天合德 鎮我資生 獻神所格 值此新正 菲薄將誠 謹以醴粢 敬獻祝帛 籩豆清潔 載浴載沐 伏以明神 歆顯分明 三災八亂 九厄露散 興來萬祥 服役諸軍 無事萬了

月居日諸 感此微誠 俾我一隅 安堵如昨 五穀豐穰 六畜蕃盛 如此陰佑 獻神所賜 庶品式陳 明薦于神 尚

饗

㉢ 제복과 제기 : 제복은 마을회관에서 보관하나 제기는 따로 마련하지 않고 초헌관의 집에서 쓰는 제기를 사용한다.

⑫ 금기 : 여자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⑬ 기타 : 4·3 사건 당시에 포제를 2년 정도 지내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 포제를 다시 치르기 시작하였다.

## (2) 세화 2리

① 제명 : 포제

② 제신 : 포령지신(醕靈之神)

③ 제일 : 입춘이 지나고 정해(丁亥)일. 흑정, 흑해라 해서 정일이나 해일 중 하나를 택한다.

④ 제장 : 마을에 '팽풍물(병풍물)'이라고 하는 곳에 포제장이 있으며 정확한 위치로는 279번지이다.

⑤ 제의 관리 : 매해 12월말에 마을총회(리민총회)를 열어 제관을 선출하고 합숙일, 제일 등을 결정한다.

⑥ 제비 : 이전에는 가구당 일정한 양의 쌀을 내고 그 쌀을 팔아 제비를 마련했으나 1970년대부터 가구당 3만원을 냈다. 반장이 제비를 견어서 집례가 그 내용을 기록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초헌관을 방문할 때 들고 간 술, 담배, 돈도 모두 기록했다. 오늘날은 마을돈과 군이나 면에서 나오는 찬조금을 합해서 마련한다.

### ⑦ 제관

① 제관 자격 : 초헌관은 보통 나이가 50세 이상인 사람이 맡았으나 올해부터는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총각이거나 상을 당하거나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제관을 할 수 없다. 대축, 집례 등은 고졸 이상으로 장가를 든 사람을 선출한다.

② 선출 방법 : 매해 12월 마을총회 때 제관을 선출한다.

③ 제관 종류 :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례, 알자, 대축, 찬인, 찬자, 봉향, 봉로, 봉작, 사준, 전서관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즘은 13명 모두를 지정하지 않고, 축소해서 지낸다.

④ 봉로, 봉작 - 잔대를 나르는 등 집사질 하는 사람

- ㉑ 집례 - 흘기를 읽는 사람
- ㉒ 대축 - 축을 읽는 사람
- ㉓ 찬인 - '배(拜)'를 외치는 사람 (동쪽에 선다)
- ㉔ 찬자 - '흥(興)'을 외치는 사람 (서쪽에 선다)

㉕ 합숙 : 포제는 천제(天祭)이기 때문에 부정을 막기 위해 합숙을 한다. 합숙 기간을 입제(모이는 날), 정제(제물을 만드는 날), 파제(제를 지내는 날)라 하여 포제 지내기 전 3일 정성을 들인다. 예전에는 초헌관의 집에서 합숙하였으나, 3년 전부터는 마을회관에서 합숙을 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에는 마을회관 앞에 금줄을 치고 제관들은 외출을 금하며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 집사와 제관들의 방은 따로 두었고, 삼헌관이 있는 방에는 집례와 대축만 출입할 수 있다. 합숙 기간동안 제관들은 향나무를 달인 물로 목욕을 하고 몸을 정성스럽게 한다. 식사는 제관 부인들이 준비하고 개고기와 말고기 같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리고 2일간은 제행 연습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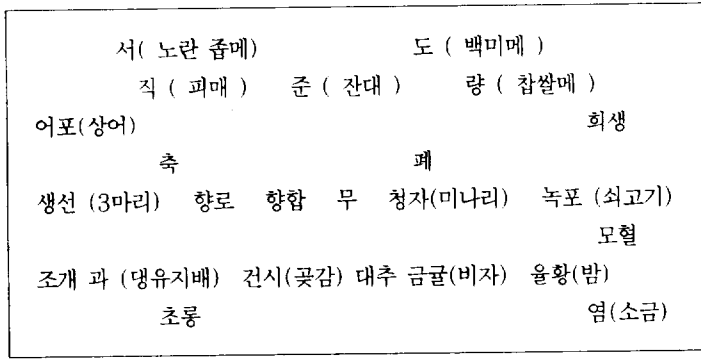
⑧ 제물

㉖ 메 : 도량서직으로 올리나 요즘은 피를 구하기 힘들어 피 대신에 쌀을 올린다. 메는 산메로 올린다.

㉗ 회생 : 제하기 전날, 검은 돼지를 잡는다. 돼지털은 불로 그슬리지 않고 뜨거운 물로 제거하고 내장을 빼서 통째로 올린다. 이때 내장은 바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 지내는 곳에 함께 가지고 가서 제를 지낸 다음에 버리며 모혈(毛血)도 올린다.

- ㉘ 생선 : 옥돔 3마리. 날것으로 올린다.
- ㉙ 채소류 : 미나리를 날것으로 올린다.
- ㉚ 포 : 어포는 상어를 올리고, 녹포는 쇠고기를 올린다.
- ㉛ 제주 : 생감주(청감주)를 올린다.
- ㉜ 폐백 : 종이 20장짜리 1권을 올린다.
- ㉝ 모혈 : 피와 털을 각각 조금씩 준비해 올린다.
- ㉞ 조개 : 조개를 올린다.

- ㉔ 실과류 : 땡유지, 배, 꽃감, 대추, 비자, 밤을 올린다.
- ㉕ 제물 진설도와 제관 위치도



대 축  
 집례  
 초헌관 이헌관 종헌관

⑨ 제차 : 당일 날에 축은 대축이, 홀기는 집례가 쓴다. 당일 날 아침, 제관들은 상가지물로 몸을 씻고, 깨끗한 속옷으로 갈아입는다. 제 지내기 30분 전에 제관들은 제물을 모두 가지고 포제장으로 이동한다. 집에서 지내는 제사와 비슷하지만 집례의 진행에 따라 진행하며, 축을 읽고 4배를 하는 차이가 있다. 축은 잘못 읽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3번을 읽는다. 집례가 홀기를 읽어서 진행하며, 집례가 읽는 대로 알자는 삼헌관을 데리고 나와 절을 시킨다.

⑩ 축문과 홀기 : 마을회관에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 요즘에는 옆에 한 글로 음을 달아 놓는다.

㉖ 홀기

謁者引獻官以下俱就門外位。謁者引祝及諸執事 入就壇南拜位。四拜祝以下皆四拜。平身引詣盥洗位。北向立。盥洗。各就位。謁者引獻官 入就位。謁者進獻官之左白有司謹俱請行事。四拜。在位者及獻官以皆四拜。平身。行尊幣禮。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北向立。措筭。盥洗。執筭。引詣神位前。北向跪。措筭。復伏與平身。引詣樽所。西向立。酌酒。引詣神位前。北向跪。措筭。獻酌。執筭。復伏與

小退跪。祝以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復伏興平身。引降復位。行亞獻詣盥洗位。北向立。拈筭。盥洗。執筭。引詣樽所。西向立。酌酒。引詣神位前。北向跪。拈筭。獻酌。執筭。復伏興平身。引降復位。行終獻禮謁者引終獻官詣盥洗位。北向立。拈筭。盥洗。執筭。引詣樽所。西向立。酌酒。引詣神位前。北向跪。拈筭。獻酌。執筭。復伏興平身。引降復位。四拜 獻官以皆四拜。平身。飲服受俎執事者以爵酌福酒。祝以進滅神位前俎肉。謁者引初獻官降詣飲服位。西向跪。拈筭。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以受酌 飲卒酌。獻官以授虛酌執事者。執事者受虛酌。執事者以俎授獻官。獻官以受俎。獻官以授俎執事者。執事者受俎降自東階出門。執筭。復伏興平身。引降復位。四拜 獻官以皆四拜。平身。撤籩豆 祝以進徹籩豆。四拜在位者及 獻官以皆四拜。平身。謁者引初獻官詣 望燎位。西向立祝以就毛而於祝板及幣燎柴。蓋燎。謁者進獻官之左自禮畢遂引獻官以出。謁者引祝及諸執事俱伏柎南拜位。四拜 祝以下皆四拜。平身。禮畢以此出。

㉠ 2002년 축문

維  
歲次 西紀二〇〇二年陰癸未正月乙巳朔初日辛亥  
加麻里民等 初獻官 金世現  
敢 昭 告 于  
醜靈之神 伏以 於赫明神 司我一域  
上應天道 下察民德 隣我昌生 家家和平 官訟無邇 盜賊防遮 雨順風調 五穀豐登  
國防鄉軍 統一成就  
青年活動 對外宣揚 學生進學 優秀卒業 風以驅疾 雨以消病 海不揚波 漁夫般安  
海採滿谷 潛城安渡  
向上鄉民 交通安全 地方產業 日益番榮 然則神功 永世不忘 敢竭致誠 茲蔣非具  
伏願神明 敢以順通  
謹以牲幣 醴齋紫盛 庶品式陳 明薦于神 尚  
饗

① 음복 : 희생한 돼지의 앞부분을 삶아서 먹고 남은 것은 제관들이 나누어 가져간다.

② 제복과 제기 : 제가 끝나면 제복은 세탁 후 마을회관에 보관한다. 제기 또한 마을회관에 보관하여 노인회가 이를 관리한다.

③ 금기 : 일체의 비린 행동을 삼간다. 상을 당한 사람은 제관이 될 수 없고, 동물 죽은 것을 보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④ 기타 : 예전에 포제를 지낼 형편이 어려워 희생으로 돼지 대신 닭을 잡아 제를 지낸 적도 있었으나 그 해에 큰 비가 내려 마을이 수해 피해를



입었고, 그 뒤로는 희생으로 반드시 돼지를 올린다고 한다. 세화 2리는 4·3사건 때에도 포제를 지냈다.

(3) 세화 3리

- ① 제명 : 포제
- ② 제신 : 토지지신(土地之神)
- ③ 제장 :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 제단을 만들었다. 3년 전부터 시멘트로 만든 포제단을 사용하고 있다.
- ④ 제일 : 정초 입춘 지나서 정일, 해일(혹정, 혹해)에 지낸다.
- ⑤ 제관 : 원래는 16명이었으나 지금은 7~8명으로 축소해서 제를 지낸다.
- ⑥ 제물 : 도량서직 - 맷쌀·기장 대신 찹쌀을 사용하고, 조·피 대신 맷쌀을 사용한다.
- ⑦ 축문과 홀기 : 노인회관에 보관되어 있다.

㉠ 홀기

癸未正月初七日細花 二里酬祭笏記

謁者引獻官以下俱就門外位謁者引祝及諸執事俱伏壇南拜位四拜祝以下皆四拜平身詣盥洗位盥洗各就位謁者引獻官立就位謁者進獻官之左伯有司謹俱請行事四拜諸位者及獻官以皆四拜平身行尊幣禮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東向立措笏盥洗執笏引詣神位前北向跪措笏三上香獻幣執笏復伏興平身引詣樽所北向立酌酒引詣神位前北向跪措笏獻酌執笏復伏興小退跪祝以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執笏復伏興平身引降復位行亞獻禮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東向立措笏盥洗執笏引詣樽所北向立酌酒引詣神位前北向跪措笏獻酌執笏復伏興平身引降復位行終獻禮謁者引終獻官詣盥洗位東向立措笏盥洗執笏引詣樽所北向立酌酒引詣神位前北向跪措笏獻酌執笏復伏興平身引降復位四拜獻官以皆四拜平身飲福授俎執事者以酌爵福酒執事者持俎進感神位前俎肉謁者引初獻官降禮飲福位西向跪措笏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以受爵飲卒爵獻官授虛爵執事者受虛爵執事者以俎授獻官獻官以受俎執事者執事者受虛俎執笏降自東皆出門復伏興平身引降伏位四拜獻官以皆四拜平身徹籩苴祝以進徹籩苴四拜諸位者及獻官以皆四拜平身詣望燎位西向立祝以取毛血於祝板及幣燎柴蓋燎謁者進獻官之左伯禮畢遂引獻官出謁者引祝及諸執事俱伏壇南拜位四拜祝以下皆四拜平身體畢以此出

㉡ 축문

土地之神 伏以 於赫明神司我一境有祈有應

人賴以生感應至靈何不仙敬克禱克祀禮在月令茲直神正載沐敢謁微誠謹具菲薄蠶蚩無狀神鑑香燭千怨萬赦特垂蔭佑節穀豐登經濟回榮交通秩序無事運行人材養盛大願仰祝俾我一村掃除疾疫山樵水魚老少安樂普願明靈庶幾欽格人誰至愚敢忘恩澤謹以酒果牲幣醴齊茶成庶品

式陳明薦于神 尚

饗

## 2) 당신앙

### (1) 세화 1리

① 명칭 : 세화리 본향당

② 당신 : 돈오름 문국성상오보름웃도, 그믐할망

③ 제일 : 한 달에 두 번, 초하루와 보름. 주로 1월, 3월, 7월에 간다고 한다. 보통 새벽부터 오전 10시까지 제를 지내고, 저녁에는 지내지 않는다.

④ 위치 : 세화 1리 당산마루 부근 송장의 터

⑤ 당의 모습 : 시멘트로 당집이 지어져 있으며 제단 가운데 위패를 모시는 함이 놓여 있다. 바닥에는 스티로폼이 잘 깔려 있고, 물색(한복)들이 잘 정리되어 줄에 걸려 있었다. 제보자의 말과는 달리 함 안에는 위패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세화리본향수호신지위(細花里守護神之位)', 하나는 '문국성상위발음우도수향대신지위(文局省常衛撥隆祐都守鄉大神之位)'라고 쓰여 있었다.

⑥ 제물

㉠ 삶은 계란 3개, 소주 1병.

㉡ 소주와 계란은 꼭 가져가야 한다. (나머지는 있으면 가져가고 없으면 안 가져가도 된다.)

㉢ 생선 : 옥돔(솔라니)이나 어랭이를 구워서 (되는 대로 가져감)

㉣ 과일 : 배, 사과, 귤

㉤ 떡 : 돌레떡

㉥ 메 : 사발메 2, 보시메 2 (백발노인과 그믐할망에게 사발메 1개씩

올리고 보시메는 잡귀들에게 올린다.)

㉞ 고기 : 쇠고기 (돼지고기는 안 됨), 액막이를 할 때는 닭도 가져갔으나 지금은 가져가지 않는다.

㉟ 생쌀 한 움큼

㊱ 시렁목 1통이나 2~3마, 명실 한 단.

㊲ 메와 술을 올리면서 오천원이나 만원 정도 올리는데, 심방은 돈만 가져가고 제물은 사람들에게 나눠 준다고 한다.

㊳ 당의 유래 : 유명한 할아버지(문국성을 말하는 것 같음)의 자손으로 송당에서 4형제가 났는데 셋째 아들이 세화리에 들어온 것이라 한다.

어느 날 당산 마루에 백발노인이 하얀 옷을 입고 앉아 있었는데, 그 때 현씨 하르방이 누구냐고 묻자 백발노인이 세화리를 지키러 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백발노인을 짐으로 데리고 왔는데, 무엇을 먹느냐고 물으니 계란안주에 소주만 먹는다고 하였다. 대접하려고 하니 긴 담뱃대만 남기고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현씨 하르방은 그 담뱃대를 근거로 하여 본향을 만들어 '현'씨라 하여 모시게 되었고, 현씨집을 상단궐로 모시게 되었다. 그 후 마을에서 당집을 지어 모셨다. 언제부터인가 그믐할망도 함께 모시게 되었다고 하나, 그 유래는 전해지지 않는다.

㊴ 메인 심방 : 신씨 집안이 메인 심방이었다. 그러나 신명옥 부부가 죽고, 그 딸인 신문선씨 역시 죽어서 그 동생이 하려고 했으나 마을에서 의논을 한 끝에 신문선씨의 동생은 욕심이 많다 하여, 토산리의 현계춘 심방에게 본향당을 맡겼다. 현계춘 심방은 세화리 출신으로 토산리의 심방 밑에서 식모살이를 하며 심방일을 배웠으며, 현재 세화리와 토산리 당을 맡고 있다고 한다.

㊵ 신도 : 상단궐이 현씨, 중단궐이 강씨, 하단궐이 김씨로 단궐들만 당에 다녔었는데, 현재는 단궐이 아닌 집들도 상관없이 당에 다닌다고 한다. 현씨들은 제주시나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가서도 본향당에 다니러 온다고 한다.

㊶ 비념 : 가족 건강, 집안의 안녕. 옛날엔 정월 초하루에 큰 굿을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⑪ 금기사항 : 돼지고기는 절대 가져가선 안 되며, 당에 가기 3일 전부터 돼지를 잡거나 먹으면 안 된다. 예전에는 설달 보름이 넘으면 돼지를 잡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

⑫ 기타 : 일제시대 당을 없애라고 해서 본향당도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그 때 면서기가 본향당에 불을 질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면서기는 '데불다, 데불다(뜨겁다, 뜨겁다)'하면서 이유없이 죽었다. 그리고 면서기에게 본향당을 가르쳐준 사람도 벌을 받았다고 한다. 또 몸이 깨끗하지 않았을 때 당에 갔다가 나중에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한다. 본향당을 믿는 주민들은 세화 1리에서 교회가 잘 안 되는 이유도 본향당이 세워서 그렇다고 믿고 있으며, 본향의 기가 세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한다. 세화 1리에서 가마리(세화 2리) 당을 다니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 (2) 세화 2리

세화 2리에는 당이 2개 있다. 남당은 예전에는 큰 곳을 했었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있으며, 어부와 해녀만이 주로 다니고 있다. 으드렛당은 토산에서 갈라져 모신 당으로 지금은 신앙민이 거의 없으며, 당의 형태 역시 옛 모습이 남아 있지 않았다.

① 생걸포구 남당

㉠ 명칭 : 생걸포구 남당

㉡ 당신 : 남당 게할망, 게하르방<sup>2)</sup>

㉢ 제일 : 보통 초하루와 보름이나, 좋은 날을 받아서(택해서) 간다. 당에 잘 안나가는 사람은 정월 첫째 주 쇠날(소날)에 간다고 한다. 명절 후나 제사를 지낸 후에도 찾아간다.

㉣ 위치 : 세화 2리 생걸포구 가기 바로 전 길 왼쪽

㉤ 당의 모습 : 생걸포구 입구 왼쪽에 시멘트로 지은 당집이 있고, 당집 안에 돌로 만든 신케가 촛불에 그을려 있으며 그 안에 지전물색을 담아 두고 있다. 나무로 된 미달이문에 신케 앞에 열려 있었는데 신케 양 옆에는

2) 게 : 포구, 갯가를 뜻하는 말

위패(1)와 위패를 넣는 함(5)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다. (미달이문 때문에 안이 감감해서 위패의 존재는 사진을 봐서야 알게 되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㉔ 제물

㉔ a 매 : 5개 (사발매 2, 보시매 3). 사발매는 남당 계할망, 계하르방을 위한 매이고, 보시매는 상단궐, 중단궐, 하단궐인 안씨, 홍씨, 김씨 조상을 위한 매라고 한다.

㉔ b 떡 : 돌레떡, 보시떡

㉔ c 생선: 옥돔

㉔ d 제주 : 감주

㉔ e 채소류 : 고사리, 미나리, 콩나물을 소금만 간해서 올린다.

㉔ f 과실류 : 배 (형편에 따라 올린다.)

㉔ g 지물 : 종이 2권

㉔ h 삶은 계란 껍질을 벗겨서 올린다.

㉔ i 물색(빨강, 노랑, 파랑)을 걸기도 한다.

㉔ j 실 : 명실

㉔ k '소지'라고 해서 자식 숫자만큼 종이를 태운다.

※ 명절이나 제사를 지낸 다음 날에는 차례상이나 제사상 음식을 갖고 찾아간다.

㉔ A 당의 유래 : 안씨 하르방이 바다에서 갈치를 낚으려고 했으나 갈치는 낚이지 않고 돌만 계속 낚였다. 이를 괴이하게 여겨 안씨 하르방은 그 돌을 갈치 구덕에 넣고 집으로 가지고 왔다. 그 후 안씨 하르방은 몹시 심하게 앓았고, 집에 우환이 계속 생기자 그 돌이 심상치 않은 돌이라 여겨 그 돌을 따로 모시게 되었고, 그 뒤 홍씨, 김씨 하르방이 돌을 모신 곳에 집을 지어 함께 모시게 되었다. 이렇게 '남당'이 생겨나게 되어 배를 타는 사람의 무사안녕을 빌고 마을 전체가 용궁을 하게되었다. 후에 이 곳에 오창수씨 어머니가 건물을 지어 놓았다.

㉔ B 비념 : 바다에서의 풍요로운 결실과 해상안정. 예전에는 마을 전체

가 용굿을 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는 집안의 무사안녕 기원한다.

㉘ 금기사항 : 상을 당하거나 개가 죽은 것을 보거나, 개고기·돼지고기를 먹은 사람과 몸이 비리고 부정한 사람은 가서는 안 된다.

㉙ 기타 : 요즘은 해녀들을 중심으로 하여 개인적으로 다니며, 공인종교나 신흥종교로 개종한 사람이 많아 신앙민이 많이 줄었다. 술이나 고기를 먹고 접근하면 남당 할망이 바다에 빠뜨린다고 전해지며 남당에서 개를 잡아먹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

㉚ ㄱ는갯골 으드렛당

㉛ 명칭 : 으드렛당

㉜ 당신 : 토산에서 갈라다모신 '알토산 요드레 한집'을 모심.

㉝ 제일 : 8, 18, 28일

㉞ 위치 : 세화 2리 포구 해변도로 서쪽 끝 바닷가 바위숲

㉟ 당의 형태 : 해변형, 지전물색형이라 하나 지금은 옛 모습이 남아 있지 않다. 1995년 당 뒤에 양어장이 생기면서 양어장 주인이 죽은 나무와 넝쿨, 비닐과 쓰레기 등을 깨끗이 정리해버렸다.

㊱ 제물 : 밥, 고기, 삶은 계란, 채소 (제사음식과 비슷하다)

㊲ 기타 : 토산 출신의 할머니가 당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신 이후로는 당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당에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한다.

### 3) 가신신앙

세화 1리나 세화 2리는 가신신앙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세화 1리는 커다란 의식도 없어서 가신신앙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며, 세화 2리는 예전에 했던 용굿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역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의식은 거의 없었다.

#### (1) 세화 1리

① 액막이(올레크시)

: 정월이나 이월에 심방이나 스님을 불러 간단히 한다. 옛날엔 닭을 올레에 던지며 점을 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문전에 쌀을 놓고 기도만 한다.

② 성주풀이, 토신제

: 스님을 모셔와서 가끔 하는 경우는 있으나 거의 하지 않는다.

③ 조왕제

: 특별히 모시지 않고 문전풀이와 같이 한다.

④ 백중제

: 소와 말 등의 가축을 기르는 집에서 소와 말의 무질과 번식을 비는 제로 10년 전까지만 해도 지냈으나 오늘날에는 거의 지내는 집이 없다. 예전에는 소와 말을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돌보았기 때문에 백중제를 이웃끼리 함께 지냈다. 7월 백중날 음식을 장만하고 소와 말을 기르는 깨끗한 들에서 제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었다.

(2) 세화 2리

① 요왕제(용굿)

: 마늘의 평안과 무사안녕을 기원하며 또한 만선의 기원과 바다에 빠져 죽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지냈다. 심방이 귀신들을 모셔놓고 술대 접을 한 뒤 마을이 편안하고 어부들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빈다. 그러나 일제시대 이후(혹은 4·3사건 이후나 1970년대 이후라고도 함)부터 공인종교나 신흥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돈을 내는 사람이 적어져 굿을 하지 않는다.

㉠ 제관 : 삼제관. 요왕제를 지내기 전에 3일 정성을 들인다.(돼지고기나 말고기 등을 먹지 않음) 심방은 옷토산이나 세화 1리, 표선 등에서 부른다.

㉡ 제비 : 집집마다 제비를 걸었다.

㉢ 제일 : 정월 초하루나 정월 보름, 7일동안 제를 지낸다.

㉣ 제물

메는 심방이 부르는 신의 수만큼 메를 올리는데 보통 2개를 올린다. 보

시메는 제관 가족들 중에 물에 빠져 죽은 영혼의 수만큼 올린다. 실과는 사과, 배, 감, 귤, 대추, 잣, 밤, 꽃감 등 형편이 되는대로 올린다. 떡을 돌레떡, 보시떡을 올리고 지물로는 종이 1~2권을 올린다. 삶은 계란을 껍질을 벗겨서 올린다. 물색은 빨강, 파랑, 노랑 각 1자씩 올리고, 생쌀을 올린다.

㉔ '지들임'라고 해서 하연 종이에 밥, 과일, 고기 등을 조금씩 담아서 가족 수만큼 1인당 2개씩 만들어 바다에 던지는데 1개는 '용왕지', 1개는 '몸지'라 해서 자신을 위한 것이다. 지를 만들 때 바다에 잘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구리수저나 숟뚜껑 조각을 함께 넣기도 한다. 쌀과 명두, 상잔으로 점을 친다.

㉕ 음복 : 쌀과 돈은 심방이 가져가고 나머지 음식들은 마을 사람들끼리 나누어 먹는다.

㉖ 금기 : 몸이 비린 사람들(집에 상이 나거나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참석하지 않는다.

## ② 토신제

: 집터를 수호해 주는 신을 위해 드리는 제로, 새 집을 지을 때나 집안에 새로운 건축을 지을 때 좋은 날을 받아서 지낸다.

### ㉑ 제물

㉑ 메 : 산메 4 (7번 씻어서 곤쌀 3사발, 호린 좁쌀 1사발) 예전에는 쌀 2, 좁쌀 1, 피 1를 올렸으나 오늘날은 피를 구하기 어려워 피 대신 쌀을 올린다.

㉒ 제주 : 청주나 생감주

㉓ 생선 : 옥돔 3마리

㉔ 육류 : 회고기로 상어고기 1점, 쇠고기

㉕ 채소류 : 미나리, 무, 고사리를 생채로 소금을 간하여 올린다.

㉖ 어패류 : 생조개 3개, '깡칠이'를 생채로 말려 올린다.

㉗ 실과류 : 꽃감, 대추, 잣, 밤, 귤 3가지 (기자, 나스, 은주)

㉘ 폐백 : 명주 1필, 종이 1~2권

㉙ 장닭 : 잡아서 생것으로 올린다.



- ㉠ 물색 3가지(빨강, 파랑, 노랑)을 두른다.
- ㉡ 떡은 하지 않고 상 하나만 차린다.
- ㉢ 축문에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며 가족의 이름과 나이를 써서 제를 지낸 후 태운다. 토신제를 지내기 3~4일 전 정성을 드리며 축문을 읽는 사람도 또한 정성을 들인다. 상은 뒷문 근처에 차리며 병풍은 치지 않는다.
- ㉣ 조왕제
  - ㉤ 올리는 제물은 토신제와 비슷하게 올린다.
  - ㉥ 제물을 올릴 때 떡(시루떡, 돌레떡)은 7개 올린다.
- ㉦ 귀양풀이
  - ㉧ 장사를 지낸 날 밤에 심방을 불러서 지낸다.
  - ㉨ 초저녁에 2~3시간 정도 지낸다.
  - ㉩ 영혼이 넘어가는 12문을 만들어 지전과 돈을 짚에 매달아 지전은 불 태우고 돈은 심방이 가져간다. 올리는 제물은 토신제와 비슷하다.
- ㉪ 성주풀이
  - ㉫ 집을 새로 지을 때 쓴 나무에 산신이 붙어 온다고 해서 그 산신을 없애기 위해 지내는 것으로 하룻밤이 걸리지 않게 지낸다.
  - ㉬ 올리는 제물은 토신제와 비슷하다.
  - ㉭ 심방이 산신을 불러모아 망태기에 쌀, 고기, 돈, 과일 담은 것을 “나무 베러가자” 하고 말을 하며 집 지은 나무에 두드리면 귀신(산신)이 달아난다고 한다.
- ㉮ 문전제
  - ㉯ 제사 지내기 전에 하는 것으로 특별히 따로 지내지는 않는다.
  - ㉺ 제물은 제사상과 똑같이 올린다.
- ㉯ 뉘들임
  - ㉻ 아이가 사고를 당하거나 이플 때 심방을 불러서 한다.
  - ㉼ 뉘들임을 집에서 하기도 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사고를 당한 자리에 가서 한다.
  - ㉽ 뉘들임을 할 때에는 물 한 그릇, 생쌀 한 사발을 준비한다.

⑧ 푸다시

㉠ 귀신이 붙어서 아프면 심방이 떼어 내는 것으로 제물은 토신제에 올리는 것과 비슷하다.

㉡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이라 하여 먹지 말아야 한다.

⑨ 애기맞이

㉢ 애기를 낳게 해 달라고 비는 의식으로 좁메떡 7개를 만들어 올린다.

㉣ 이렇게 떡을 7개 올리는 것은 칠성할망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